

독서 아카고라 연구

06

기획논문: 돌봄과 독서의 열린활동성

장정희 돌봄의 관점에서 본 1920년대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과 그 가치 지향성

남윤정 '오늘의 어린이책'에서 발견한 돌봄의 실제

민병휘 돌봄체계와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희 옛이야기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의 상호 돌봄 서사

일반논문

오정옥 그림책 읽기 경험과 만 5세 유아의 문해 활동 사례

윤은서·오준호 지역 도서관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독서 환경의 재구성 방향

우리들의 10주년

오길주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며 × 포스터로 보는 10년

노래 공연

황채영 여행 온 달토끼 외

북토크

정승각 오소리네 집 꽃밭

독서, 그 현장

권미숙 초·중등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사례

민상훈 유아 영어 교육기관에서의 영어 문해력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유아의 독서 활동성

안남재 수학학습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와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실천사례

부록

『독서 아카고라 연구』 정관 | 편집위원회 규정 | 투고 규정 | 투고 논문 심사 규정 및 심사서 양식
| 연구 윤리 규정 및 서약서 양식 | 저작권 이양 및 활용 동의서

기획 논문 | 돌봄과 독서의열린활동성

돌봄의 관점에서 본 1920년대방정환의 어린이 운동과 그 가치 지향성 장정희	7
‘오늘의 어린이책’에서 발견한 돌봄의 실제 남윤정	31
돌봄체계와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민병휘	65
옛이야기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의 상호 돌봄 서사 김경희	97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정관	249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54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투고 규정	257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투고 논문 심사 규정 및 심사서 양식	259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연구 윤리 규정 및 서약서 양식	262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저작권 이양 및 활용 동의서	267

일반 논문

그림책 읽기 경험과 만 5세 유아의 문해 활동 사례 오정옥	123
지역 도서관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독서 환경의 재구성 방향 윤은서 / 오준호	149

우리들의 10주년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며 오길주	173
--------------------------------	-----

노래 공연

여행 온 달토끼 외 황채영	181
------------------	-----

북토크

오소리네 집 꽃밭 정승각	187
-----------------	-----

독서, 그 현장

초·중등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사례 권미숙	215
유아 영어 교육기관에서의 영어 문해력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유아의 독서 활동성 민상훈	229
수학학습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와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실천사례 안남재	239

기획 논문

돌봄과 독서의
열린활동성

돌봄의 관점에서 본 1920년대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과 그 가치 지향성

Bang Jung-hwan's children's movement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1920s from the perspective of care

장정희*

국문요약 이 글은 돌봄의 관점에서 1920년대 방정환 어린이 운동의 의미와 가치 지향성을 재조명한 논의이다. 돌봄을 인간의 행복 추구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통해 방정환의 어린이관과 당시 어린이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반추하여 현대 돌봄 담론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920년대 어린이 운동은 천도교소년회를 비롯한 사회적 움직임을 통해 어린이를 계몽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고 권리를 주장한 해방적 돌봄 운동이었다. 또한 1922~1923년 배포된 ‘어른에게’, ‘어린 동무들에게’ 선전지 분석을 통해 각각 ‘존중·배려·성장·사회적 지원’, ‘존중·건강·생명·양보·자연’의 돌봄 가치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1923 어린이 해방 선언’의 세 조항은 어린이 인권과 해방이 돌봄의 핵심 가치임을 보여준다. 이에 본고는 인간 존중과 해방, 어린이의 권리를 중심에 둔 돌봄 논의가 향후 더욱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한다.

핵심어 1920년대, 돌봄의 관점, 방정환, 어린이 운동, 어린이 해방, 어린이날 선전지

* (사) 방정환연구소 이사장 및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차례**
1. 들어가며
 2. 돌봄의 관점에서 본 방정환의 시대, 어린이 문제들
 3. 어린이날 선전문을 통해 본 어린이 돌봄의 가치 지향성 분석
 4. 어린이 해방의 관점과 아동 돌봄의 미래 지향점
 5. 나오며

1. 들어가며

오늘날 ‘돌봄의 시대’¹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 전반의 각종 복지, 교육, 의료 등에 걸쳐 ‘돌봄’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개념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돌봄’은 누가 하는지의 주체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누구를 위한 것인지 대상의 문제, 또 관계의 측면에서 자기 돌봄인지 상호 돌봄인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각적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언뜻 돌봄은 개인의 문제처럼, 가족의 문제처럼, 또는 사회적 차원의 복지 문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돌봄은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좁혀 볼 수도 있지만, 정책 입안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전반에 적용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로 넓혀지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돌봄’에 대한 인식은 치료와 복지의 영역에 더 가까웠으며, 주체와 대상의 관계도 어느 정도 단선적으로 가시화된 상태인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의 모습으로 비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돌봄에 대한 이러한

통념은 균열되며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식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곧, 코로나 전지구적 팬데믹을 통해 전 인류가 돌봄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절대 생존의 공동체 속에 놓여 있다는 자각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한 인간은 돌봄을 통해 탄생하여 끝내 돌봄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된다. 돌봄은 우리 삶의 보편적 윤리 양식일 것이다. 오늘날 뒤늦은 돌봄의 재발견을 통해 우리는 새삼스럽게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발명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글은 돌봄의 관점에서 본 1920년대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의 의미와 그 가치 지향성을 오늘에 새롭게 되짚어보고자 하는 논의이다. ‘돌봄’이라는 명제는 하부 지향성을 은연중에 내포한 복지적 윤리 개념이라는 것이 그 동안의 일반 인식이었으나, 오늘날 ‘돌봄’은 연령을 초월한 문화 제 전반의 아우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돌봄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며, 우리 바깥의 문제이기도 하다. 돌봄은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와 사회적 지향성이 지닌 의미가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한 방법으로 원용되며, 그 내향적 가치와 외향적 가치가 조화롭게 충족됨으로써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물질적 충만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돌봄은 우리 인간의 행복 추구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행위와 실천 양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방정환의 어린이관, 특히 1920년대 어린이 운동의 사회적 확산 및 그 반향을 반추하는 일은 현대의 제 돌봄 영역에 새로운 입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¹ 권범철 외, 『돌봄의 시간들』, 모시는사람들, 2023, 4쪽. 돌봄의 문제를 사건, 제도, 관계, 세대, 젠더, 가치, 지역, 가정, 생태 등 9가지 정동적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

2. 돌봄의 관점에서 본 방정환의 시대, 어린이 문제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돌봄’의 시선으로 처음 ‘어린이’를 주목한 시기는 1920년대였다. 소위 어린이 운동의 필요성이 자각되고 움트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운동이 가열차게 시작된 시기이다. 타자화되어 있던 어린이 문제가 곧 내 문제, 내 민족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동일화 각성이 이루어진다. 그 동안 소위 장유유서와 같은 구윤리의 지배 논리 속에서 어린이는 어른 세계로부터 한 층 밑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미성년에서 성년을 향한 계몽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었다.

‘소년’의 호명은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징후였지만, 최남선 발행 『소년』이 창간호에서 주문하였듯이, ‘우리 대한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 그리 하라 하면 능히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를 교도하여라.’의 대상으로서 등장하였던 것이다. 즉, 이때의 소년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의 주체’로서 방점이 있었던 것이며, 한 사람의 인격을 중심에 둔 ‘존재론적’ 주체의 발견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20년대 김기전과 방정환의 아동관은 그 이전의 시대와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여러 글에서 어린이를 근대 인류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그 존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정호를 중심으로 한 ‘천도교소년회’의 지도자가 되어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회합을 만들고 스스로 힘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갔다.

1920년 6월 개벽사에서 『개벽』이 창간된 후 바로 그 다음 달 7월호에 발표된 김기전의 「장유유서의 말뼉, 유년 남녀의 해방을 제창함」은 분명히 근대 아동관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보여 준다.² 이 글에서 김기전은 소학교에서 교

사의 아동학대,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을 비판하고 무엇보다 ‘이놈 저놈’ ‘이 자식 저자식’과 같은 말투를 고쳐야 함은 물론, 유년이 비록 잘못을 하게 되더라도 10분의 9까지는 널리 용서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감정적 기분으로 아동을 대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는 이러한 어린이에 대한 인권 보장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관점에서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사회 운동으로서 ‘아동 해방론’ 전개를 강력히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정환은 어린이 문제를 몸소 실천하고 이끌어 나간 어린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돌봄의 관점으로 1920년대 방정환의 시대를 다시 돌아보면, 과연 당대 어린이의 돌봄은 어떻게 인식되었고, 어떠한 고민 아래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나간 것일까?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던 100년 전 일제강점기 조선 어린이가 처해 있던 현실이란 절대적 돌봄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그 초기적 형태의 하소연은 ‘1922년 5월 1일’ 천도교소년회의 어린이날 선전지를 통해 처음 발화, 사회화되었다. 1922년 5월 1일자 매일신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조선초유의 소년일(어린이날)」

의미깊은 것겨운 이 소년날은

이천만 형제가 다함께 빌으

중의 1人이며 안이 世界 16億萬人中の 1人이며 將來의 큰 運命을 開拓할 일군의 1人이라 하야 그의 人格을 認할 것이외다. 그리하여 그로 더불어 아모쪼록 際會하야 長幼간에 열리는 따수한 새길을 짓도록 할 것이외다. 이러한 精神을 長者된 우리가 各히 所有하면長幼有序의 末弊로 起한 現下의 諸般 惡習을 改하게 될 것이며 半島의 數百萬 어린 男女는 仍習의 무서운 坑塹으로서 解放될 것이외다. 近日 女子解放論이 盛行함에 不拘하고 兒童解放論이 傳하지 못하였나잇가.” 김기전, 「장유유서의 말뼉, 유년 남녀의 해방을 제창함」, 『개벽』 2호, 1920.7.

2 “條件條件히 말하자면 限이 업을 것이외다. 要約히 말하면 第一 幼年도 亦是 사람이다. 2千萬 兄弟

5월 1일을 기하여 대선전

그동안의 묘선은 소년을 매우 등한히 알았다. 오죽 소년이라면 어린 것이라
는 한 말로써 그의 성장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게을리 하였다.

헛말로 속임을 레스로 하였고 늘 갖가지 하여 주지 안었으며 경어를 써 주
지 안었고 모욕과 리발을 떠맞쳐 하여주지 안었으며 잡자는 것과 운동을 충분
히 하게 하여 주지 안었고 연극장 갖은 구경을

마음대로 가게 하되 동물원 식물원 갖은 자연을 찾게 하여 주지 안었으며
장가나 식집을 일즉 보내여 익순에 시들게 하였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린이
에 달렸거니 었지 그들의 사름을 되는 대로 방임하라. 그 위 어린이의 시대를
지닌 사름들은 흠 슈 업거니와 읊으로 자라나는 그들을 위함은 우리 민족의
일이고 또 자괴 집안 일이니 이천만 형제가 다갓치 끼닷고 일심으로 실행하면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구차하여도 식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잘
키우면 남보다 더 낫게 살 수가 있다. 이것은 현대 뜻있는 사름들의

가장 열렬히 부르짖는 소리이며 더구나 천도교소년회(天道敎少年會)에서는
이뉘 그 갖은 절실한 각성 아락에서 오늘로 묘선 어린이의 놀을 삼고 소년운
동을 땡렬히 하리라는데 오늘 아침 열시부터는 천도교 청년회 기백사 월보다
그 타의 모든 스람들이 총출동하여 시내 각처로 선뎐문을 비포하며 오후 두시
부터는 각 학교에 상학하얏던 천도교소년들이 도라와서 역시 찬란한 선뎐문을
혹은 못치고 혹은 비부하는 동시에 땡진한 소년들은 자동차 네 대에 난호아 타
고 노락을 부르며 시너를 비회하리라 한즉 물론 묘선에

처음있는 갑분 문화덕 식칙을 가진 이 운동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놀닐 것
이며 또는 그날 밤 일곱시부터 어린이의 놀의 창립 기림식이 경운동 천도교당
닉에 개최되야 온갓 즈미로운 노름이 잇다는데 전 갖은 선뎐문을 이뉘 각 디

방에 발송하여 오늘 즉 오월 일일은 뜻갑흔 어린이의 날이 되얏스며 일로 좇차
일반 어린이를 위하여 심절한 경의를 표하지 안이치 못하겠더라.

- 「조선 초유의 소년일(어린이날)」 전문, 매일신보, 1922.5.1

이 글은 1922년 어린이날이 처음 선포될 당시, 매일신보가 소개한 ‘조선 초
유의 소년일’이라는 보도의 전문 내용이다. 이 보도의 내용을 전문 인용한 것
은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다루고 있는 내용의 방향에서 볼 때 그 보도 자료 제
공의 작성 주체가 방정환일 것으로 잠정 추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 글의 서두는 ‘그 동안 조선은 어린이를 매우 등한히 알았다’고 쓰
고 있다. 여기서 ‘등한히’라는 말은 ‘무엇에 관심이 없거나 소홀한 태도로’라
고 표준국어대사전³은 뜻을 풀이하고 있다. 즉, 이는 돌봄의 관점에서 ‘돌보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등한히’ 앞에 ‘매우’라는
강조 부사어를 덧붙이며 당시 조선 어린이들이 심각하게 처해 있는 ‘돌봄 부
재’의 현실을 지적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 부재의 원인으로 분석하는 대목이 흥미롭다. 그 이유
는 ‘오직 소년이라면 어린 것’으로 취급하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과 비교해 장애 문제라든가 부모 부재, 경제, 자립 등의 문제가 아니라 방정
환 시대의 가장 첨예한 어린이 문제는 바로 ‘장유유서’로 인한 고질적인 어린
이 차별 대우였다는 점이다. 이는 당대 사회가 즉 어른과 어린이를 이원화시
켜 지배-피지배 관계를 내면화하고 어린이의 심적, 물적, 그 외 모든 조건에
서 하부로 억압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 의식을 통해 사람
의 권리, 즉 인권을 신장시키겠다는 의식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실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등한히’ 하고 있다는 조목 내용들은

3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https://dict.wordrow.kr/>

일곱 가지에 해당된다. 이 일곱 가지의 내용은 그대로, 첫 어린이날 ‘어른에게’ 나눠주는 선전지 문구와 일치한다. ①헛말로 속이기 ②가까이 해 주지 않기 ③경어를 써 주지 않기 ④목욕 이발도 때맞춰 해 주지 않기 ⑤잠자는 것과 운동 충분히 해 주지 않기 ⑥식물원 동물원 같은 자연을 찾게 해 주지 않기 ⑦ 시집 장가를 일찍 보내기 등이다. 결국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대한 관심 부재 및 무지로 인해 제대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의 결과이다.

어린이에 대한 돌봄 부재의 당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기전과 방정환이 착수한 일은 바로 ‘어린이 운동’ ‘사회 인식 개선’이었다.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한 해 앞선 1921년 5월 1일 천도교청년회 유소년부에서 독립하여 따로 설립된 ‘천도교소년회’는 이 사업의 중심 주체였다. 그래서 소년회는 창립 1주년 기념일인 1922년 5월 1일을 기해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사향을 본격적으로 사회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 방법은 주로 소년회 결속을 통한 회합의 발전과 어린이날 ‘선전지 배포’를 통한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는 것이었다.

3. 어린이날 선전문을 통해 본 어린이 돌봄의 가치 지향성 분석

1920년대 김기전과 방정환을 중심으로 기를 드높인 우리나라 운동은 어린이 당자의 자기돌봄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대 사회적 인식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운동이었다. 이 어린이 운동의 돌봄 상호 관계성을 살펴보면, 어린이가 스스로를 자기 돌봄의 주체로 각성함에서 출발하여, 어른과 어린이, 어린이와 어린이 그들 상호 간의 상호 돌봄으로 확장해 나간 방향성이 뚜렷이 나

타난다.

3.1. ‘어른에게’ 선전지 분석: 존중, 배려, 성장, 사회적 지원

이러한 상호 관계성은 어린이날 배포했던 선전지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1922년과 1923년 불과 1년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 돌봄의 인식 변화 및 그 가치 지향성의 변화이다.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당시 어린이 자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돌봄 인식이 어떠했는지, 그러한 돌봄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 나갔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어른에게’ 나눠 준 선전지의 내용을 보자.

1922년 5월 1일 선전문	1923년 5월 1일 선전문
1.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2.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3.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4.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5.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6.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7.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십시오. 2.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3.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4.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5.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6. 산보와 원족(나들이) 같은 것을 가끔 가꿈 시켜 주십시오. 7.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 세히 타일러 주십시오. 8.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십시오. 9.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십시오.

‘어른에게’ 선전문은 어른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들에 대한 요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1922년에는 모두 7개 조항, 1923년에는 9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조항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1922년의 선전지 조항에 대한 참가 단체의 조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문장 역시도

1923년의 선전문은 다소가 정제된 형태를 보여 준다. 1922년 어린이날 선전지는 ‘천도교소년회’에서 발행한 것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이는 인쇄된 내용 자체가 소년회 자체의 논의로부터 생성된 ‘어린이 토론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1922년 어린이날의 선전지 내용은 전반적으로 소박하며 어린이다운 순수한 희망 사항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1항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시오’, 6항 ‘동물원에 자주 보내 주십시오’, 7항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무슨 이유와 근거로서 1923년 어린이날 선전지에서 빠졌는지 이것은 분명히 의문이다. 특히 마지막 7조항은 당시로서는 어린이 인권 차원에서 큰 사회적 이슈였던 ‘조혼 문제’를 어린이들이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1922년 선전지에서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대상 지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특징적 양상이다. 예를 들어 ‘헛말’ ‘경어’ ‘목욕’ ‘이발’ ‘잠’ ‘운동’ ‘동물원’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언술적인 면에서, ‘헛말로 속이지 마시오’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오’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오’ 등에서와같이 부정적인 어법을 통해 강력한 의지적 표현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반면, 1923년 어린이날 선전지에 반영된 가장 큰 변화는 3가지로 집약된다. 그것은 1항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시오’, 8항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9항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같은 내용이다. 직접적인 요청 형태로 되어 있는 1922년에 비해 1923년의 선전문은 사회 인식 변화 및 전환을 이끌어 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1923년 선언문의 처음과 마지막에 해당하는 1항과 9항은 지금까지

어른 중심으로 되어 있던 사회관, 우주관을 역발상하여 오히려 어린이를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1922년 선전지 6항에서 ‘동물원에 자주 보내 달라’고 하는 어린이의 바램은 1923년 선전지 8항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동물원’은 그 하나의 예시에 해당될 뿐이며, 이것만으로는 어린이들이 생활해 나갈 사회적 환경 조성에서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 개념을 포함한 것은 당시 어린이 운동 주체들의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 준다.

9항의 내용은 크게 보아 첫째는 대상에 대한 인식의 문제, 둘째는 신체와 가족 활동, 훈육의 자세 문제, 셋째는, 사회 제도의 지원과 우주적 생명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 어린이 돌봄의 기본 자세와 실천 방법, 제도 정책의 지원 과제 등을 두루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돌봄 체계의 구조적 조합은 돌봄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족 관계, 사회적 단위, 심지어 우주적 생명관으로 발전해 나간다.

종합해 보면, 1922~1923년 어린이날 ‘어른에게’ 선전지의 비교에서 나타난 공통된 돌봄적 요소는 ‘존중’ ‘배려’ ‘성장’ 세 가지로 파악된다. 그리고 어린이의 ‘사회적 지원’까지 발전시킨 것은 1923년에 이른 뒤이다. 주목할 점은, 1923년 선전문 제1항을 장식하고 있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시오’는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욱 높여 대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어, ‘장유유서’가 지배하던 당시의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에서는 실로 혁신적 사고 전환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3.2. ‘어린 동무들에게’ 선전지 분석: 존중, 건강, 생명, 양보, 자연

우리나라 어린이날 선전지의 독특한 형식상의 특징은 각각 어른(어른에게)과 어린이(어린동무에게)에게 배포된 2종류의 선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어른과 어린이 당자가 함께 실행에 동참함으로써 당대 어린이의 인권과 권리 신장에 조속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기초로 한다. 이와 같은 운동의 양방향성은 일반 여성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과 차별되는 어린이 운동의 독자적인 방향성으로도 분석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어린이는 ‘성장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이 당자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사회적 희망이 담긴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같은 구성은 1920년대 어린이날 제정과 그 어린이 운동이 자기 돌봄을 기초로 하여 상호 관계성을 지향했음을 의미한다.

‘어린 동무들에게’ 선전문은 모두 청유형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922년 5월 1일 선전문	1923년 5월 1일 선전문
1. 어른에게는 물론, 우리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2. 손으로 코풀어 문지르지 말고 손수건 가지고 다니십시오. 3. 길거리에 광고 붙인 것은 찢지 마십시오. 4.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도 그림도 쓰지 마십시오. 5. 도로에서 떼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6. 꽃이나 풀을 사랑하고 동물을 잘 보호하십시오. 7. 전차가 기차가 좁을 때는 나 많은 어른에게 자리를 주십시오.	1. 돈은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2.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3.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4.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5.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6.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7.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어린이는 어른이 기르는 대상의 관점을 넘어 스스로 자라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노출되지 않는 내면의 감정과 정신의 문제, 건강한 신체와 성장, 그

리고 사회적 윤리를 습득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 삶의 조화와 기쁨을 만들어가게 된다. ‘어린 동무에게’ 선언문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참된 인식과 자기 돌봄의 방법을 담고 있다.

형식상의 측면에서 볼 때, ‘어른에게’ 선전문이 7항(1922)에서 9항(1923)으로 2항이 더 늘어진 것과 달리, ‘어린 동무들에게’ 선전문은 7항을 유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1922년에서 제외된 조항, 그리고 1923년에 새로 들어간 조항의 내용이다. 제외된 조항은 2항 ‘손으로 코 풀어 문지르지 말고 손수건 가지고 다니십시오’, 3항 ‘길거리에 광고 붙인 것은 찢지 마십시오’ 2개이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정한 생활 습관 내지 규칙으로 보여 절로 소박한 웃음을 짓게 한다. 어린이들이 직접 선전지를 짠 숨씨 속에서는 오히려 생생한 감동과 솔직함이 묻어난다. 손수건이 없이 소매 끝으로 코를 쓱쓱 문지르고 다니는 그 당시 어린이들의 비위생적 습관을 자신들이 스스로 고쳐보자는 의지를 담았다. 흥미로운 점은 ‘코’의 문제(1922)가 1923년에는 ‘입’의 문제(1923)로 바뀌면서, 다소 규범적인 문장으로 된 점이다. 7항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에서 ‘입을 꼭 다물고’는 공기 중의 병충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 습관의 하나로 볼 수 있겠고, ‘몸은 바르게’는 어린이의 몸가짐 전반의 자세 문제를 담고 있다.

1923년 선언문에서는 한 해 전 작성된 선전문 조항에 없던 특별한 내용을 제일 앞서 제안한다. 그것은 ‘돈은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이다. 이 1항의 삽입은 그 상징적 의미만큼 방정환의 생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어린이』를 통해 해와 관련한 글을 몇 차례 쓰고 있기 때문이다.⁴ 특히 언술의 측면에서 이 1항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반드시’라는 표현이

4 무기명(방정환), 「꼭 성공하는 법」, 『어린이』 8권 1호, 1930.1, 22~23쪽.
방정환, 「해를 배우자」, 『어린이』 9권 1호, 1931.1, 2~3쪽.

다. 여기서 ‘돋는 해’와 ‘지는 해’란 일종의 자연물에 비유한 우리 삶의 반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이고, 하루 생활로 보아서는 기상의 시간이요, 하루의 성찰을 마련하는 시간이다. 자기 삶을 ‘반드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4항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에 서는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을 강조한다. 내가 함부로 버린 ‘유리 조각 하나’가 다른 어린이들에게 큰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동식물에 대한 태도에서도 1922년에는 ‘보호’라고 하였으나, 1923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감정 상태인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보아 적극적인 생명의식을 보여 준다. 흥미로운 점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식이 아니라 ‘어른에게’로 통칭함으로써 가족 내의 구성원을 넘어 어린이를 규정한 것이다.

종합해 보면, 1922~1923년 어린이날 ‘어린 동무들에게’는 ‘존중’, ‘건강’, ‘생명’, ‘양보’, ‘자연’ 등의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해’의 비유적 상징을 가져와서 어린이의 삶과 성장을 빗대어 연결한 것은 선전지의 문학적 특성을 더해 준다. 전반적으로 선전지의 내용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서 존중이란 나이듦과 높낮이를 차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감정적 연대 과정이다. 즉 이러한 측면은 어린이의 사람된 권리를 회복 하자는 본질적인 면으로, 즉 인권의 문제는 돌봄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⁵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서상희, 「인권으로서의 어린이·청소년 돌봄」, 『오늘의 교육』 59, 교육공동체넷, 2020.

4. 어린이 해방의 관점과 아동 돌봄의 미래 지향점

어린이날 선전문에서 어린이 돌봄의 보다 진보적인 가치 지향성은 ‘1923 어린이 해방 선언문’에 포함되었다.

1923 어린이 해방 선언문

-소년운동의 세 가지 조건-

본 소년운동협회는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 한나마에 심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천하 형제의 심심(深甚)한 주의와 공명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라.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할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이 선언문은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소년운동의 선언으로 공표된 것으로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하여 ‘1923 어린이 해방 선언’(Declaration of the Liberation of the Children in 1923)으로 통칭하여 부르고 있으며,⁶ 이는 1924년 국제 연합의 아동 권리 선언(일명 제네바 선언)보다 1년 앞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어른에게’ ‘어린 동무들에게’는 상호 돌봄을 수행해야 할 어른과 어린이의 돌봄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위 3개 조항은 어린이 돌봄에 대한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가치 지향성을 담고 있다. 첫째는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락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14세 이하의 그들에

6 이주영, 「〈어린이선언〉의 시대적 변화 과정과 의미」, 『방정환연구』 1,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 2019; _____, 『방정환과 어린이 해방 선언 이야기』, 모시는사람들, 2021.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는 것이요, 셋째는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좋을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는 어린이가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완전히 독립된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요, 두 번째는 일정 연령이 도달하기 전 어린이가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선언이요, 세 번째는 어린이들이 잘 배우고 놀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윤리적 압박’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해방’이라는 언술이 사용되었다. 인간의 해방은 곧 자유의 정신이요, 권리의 정신이요, 시민의 정신이다. 구속되거나 압박의 상태 밑에서는 자유도, 권리도, 시민의 자격도 완전해질 수 없다. 이렇듯 이미 100년 전 어린이 돌봄의 가치 지향성을 인간 해방에 두었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확장될 ‘돌봄의 시대’에 꼭 회귀하여 연구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자본가가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노동 구조를 악용하여 착취하고, 기성의 어른이 기존의 유리한 조건을 보수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노동 문제에 있어 언제나 취약한 고리로 존재한다. 이 약한 고리를 서로 돌봄을 통해 견제하고 상호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23 어린이 해방 선언문을 통해 1920년대 방정환과 어린이 운동가들이 연합하여 공표한 ‘어린이 해방’ 정신은 인간의 근원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전제로서, 앞으로 어린이 돌봄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학평론가 이현구(李軒求)는 일제 강점기 때의 어린이날이 “거족적 축제”였다고 회상하며 어린이날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기도 했다.

“어린이날은 단순한 어린이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이 축제 같은 기분으로 이 날을 맞았고 손에 손에 태극기 대신 자그마한 기를 들고 거리에 나

와 행진했으며 어린이 운동은 청년 운동과 함께 하나의 국민이 한국민임을 알게 한 뜻깊은 날이었지요. 행사가 열렬해지고 뭔가 무형의 힘을 느끼자 일제는 36년부터 어린이날 행사를 금지시킬 정도였으니까요. 3.1.정신과 더불어 어린이운동이 전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나중엔 어린이 해방, 소년 독립이라는 말로 일제를 자극했습니다.”⁷

과거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전 국민이 축제 같은 분위기였으며, 가장 인상을 남기는 기념 행사는 뭐니뭐니 해도 어린이들이 ‘자그마한 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행진’하는 것이었다. ‘어린이 해방’ ‘소년 독립’이라는 말은 일제를 자극하기도 했다. ‘어린이 해방’이라는 표현은 ‘조선 독립’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었기에 자유롭게 기표화할 수 없었다는 말도 된다. 1929년 5월 조선일보의 한 사설에서는 ‘어린이날’의 참된 의미에 대해 “어린이날을 그의 해방일로서 기쁘게 기념”⁸하자는 날이었다고 쓰고 있다.⁹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일제 강점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경공업화와 산업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나가기까지, ‘1923 어린이 해방 선언문’에서 표방한 ‘어린이 해방’ 정신을 국가 발전과 경제 개발, 산업화라는 미명 속에 묻어버리고 말았던 뼈아픈 사실을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해방 후 1957년 5월 5일(해방 후 새로 제정된 어린이날)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 선포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보자

7 「어린이 가슴에 무궁화를, 50돌 맞는 어린이날 새 행사로」, 『조선일보』, 1973.4.15.

8 「사설 어린이날에 제하여」, 『조선일보』, 1929.5.5.

9 이 절의 일부 논의는 필자의 아래 논문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었음을 참조. 장정희, 「한국 어린이날 어린이해방선언(1923)의 역사적 의미 고찰」, 『방정환연구』 9,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 2023.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1957.5.5. 대한민국 정부 제정 선포)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제일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와 불량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8.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이 헌장은 ‘1923 어린이 해방 선언’보다 34년 뒤에 정부 제정으로 선포된 것임에도 그 정신과 체계 양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가장 단적으로 상호 돌봄 정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이를 대상화한 것이 그것이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된다고만 하였지, 1923년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어린이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완전한 인격적 예우’란 인간 존중과는 차원이 다르다. 윤석중이 ‘어린이 해방 선언문’을 일러 ‘어린이 독립 헌장’이라고 표현했듯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어른과 대등하고 평등한 인격으로 어린이를 예우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에는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물이거나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어린이 노동의 문제도 조항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은 일체 폐하라는 1923년 선언을 개선하여 1950~60년대 사회에 부합하는 소년 노동 금지 연령을 제한하여 사회적으로 헌장의 정신을 계도할 필요가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노동은 국가

산업화와 자본 논리에 희생이 되어, 1960~70년 평화시장 13,4세의 어린 여공들의 비인간적 노동 현장,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한 전태일을 적으나마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 돌봄이 어떤 가치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본다. 이 역시 어른의 입장에서 아동을 대상화하고 강제해 나갈 때 또 하나의 억압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해방’의 관점은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억압과 구속 밑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이다. 어린이의 해방과 자유는 곧 어린이의 권리 정신과 이어진다. 어린이에게 그들의 권리를 가르치지 않고 시혜적 차원에서 돌봄만 강화된다면 이는 또 다른 자유가 없는 구속으로 함몰될 것이다.

5. 나오며

2023 세계방정환학술대회 때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야누쉬코르차협회 바라 야니나 소찰 회장은 아동 권리 협약의 배경이 된 야누쉬코르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코르차크는 1899년 “19세기 이웃 사랑 생각의 발전”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아동은 미완성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다. 그렇다, 인간이지 인형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성에 호소할 수 있고 아이들은 응답할 것이다. 마음

을 터놓고 말하면 아이들은 이해할 것이다. 아이들은 인간이다. 아이들의 영혼에는 우리가 지닌 모든 생각과 감정의 배아가 있다.”

그는 앞으로가 아닌 지금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아동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회적 인식에 분개한다.

마침내 1924년, 국제연맹 총회는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일명 제네바선언(Geneva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는 아동 보호만을 전적으로 다룬 최초의 문서로 다섯 가지 짧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선언이 제정됨으로써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이 선언 자체가 아동의 복지와 존엄성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모든 이들에게 성공 사례로 인식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야누시 코르차크는 이 선언의 내용에 실망했다. 그는 자선과 자애의 돌봄이 아닌 아동의 권리를 요구했다. 그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존경을 요구했다. 선언이 아니라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법적 해결책을 기대했다. 아동의 존엄성과 합당한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아동의 권리 및 자유를 위한 기본법을 요구한다. 이것이 다는 아닐 수 있으나 내가 발견한 아동의 3대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에 대한 아동의 권리

둘째, 현재에 대한 아동의 권리

셋째, 자신의 본모습 그대로 살 아동의 권리

-바바라 야나나 소할, 「야누시 코르차크, 몽상가인가 현실주의자인가?」,

『2023 세계방정환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 2023.11.9

무엇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 것일까? 어린이 해방의 관점에서 어린이를

‘독립된 한 사람의 시민’, ‘한 사람의 완전한 인격’이라는 전제가 이루어질 때 아동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전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어린이를 위한 기본법으로 자유대헌장을 주장한다”(1부 37항)고 어린이 자유 대헌장을 선언한 폴란드 야누쉬코르차크의 정신은 한국 방정환과 우리나라 초기 어린이 운동 방향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그것은 어린이의 자유 해방의 관점에서 ‘자선과 자애의 돌봄이 아닌 아동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어린이 그들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방정환의 천도교소년회 조직(1921.5.1), 어린이날의 제정(1922.5.1), 『어린이』 잡지 창간(1923.3), 세계아동예술전람회 개최(1928.10)에 이르는 일련의 어린이 운동은, 곧 어린이가 마땅히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 누리고 향유하며 사람의 몫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챙겨야만 했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 청소년은 자신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는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¹⁰를 갖는다. 돌봄은 사람 권리가 차별받거나 보장되지 않았을 때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인간다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아동 교육, 경제, 문화 제 분야에 걸쳐 있는 돌봄의 정책적 현안들이 이와 같은 인간 존중과 해방, 어린이의 참된 권리를 중심에 두고 어린이 돌봄 논의를 시작하고 실행한다면 상당한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본다.

10 서상희, 「인권으로서의 어린이·청소년 돌봄」, 『오늘의 교육』 59호, 교육공동체넷, 2020.11, 51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어린이』, 『개벽』, 『조선일보』, 『동아일보』

2. 단행본 및 논문

권범철 외, 『돌봄의 시간들』, 모시는사람들, 2023.

서상희, 『인권으로서의 어린이·청소년 돌봄』, 『오늘의 교육』 59, 교육공동체넷, 2020.

이주영, 『〈어린이선언〉의 시대적 변화 과정과 의미』, 『방정환연구』 1,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 2019.

_____, 『방정환과 어린이 해방 선언 이야기』, 모시는사람들, 2021.

장정희, 『한국 어린이날 어린이해방선언(1923)의 역사적 의미 고찰』, 『방정환연구』 9,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 2023.

3. 기타 자료

표준국어대사전 <https://dict.wordrow.kr/>

ABSTRACT

Bang Jung-hwan’s children’s movement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1920s from the perspective of care

Jang, Jeung-Hee _ Institute of Humanit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Bang Jung-hwan’s children’s movement of the 1920s through the lens of care ethics and to illuminate its value orientation for contemporary discussions on child care. By examining how care functions as a practice supporting human dignity and happiness, the study seeks to reveal the movement’s significance as an early form of child-centered, rights-based care.

Methods The study analyzes primary materials from the 1920s, including the propaganda leaflets To Adults and To Children, and the 1923 Declaration of the Liberation of Children. Through textual analysis, it identifies the care-related values—respect, consideration, health, life, growth, and social support—embedded in these documents and interprets them within the broader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movement.

Conclusions The analysis shows that Bang Jung-hwan’s movement promoted a care-oriented vision recognizing children as full persons with inherent rights. The values expressed in the 1920s leaflets and declarations highlight that children’s human rights and liberation should be core principles of care. The study concludes that centering respect, dignity, and rights in child-care discourse today can lead to more meaningful and transformative outcomes.

Keywords 1920s, Perspective of Care, Bang Jung-hwan, Children’s Movement, Children’s Liberation, Children’s Day Propaganda Paper

이 논문은 2024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오늘의 어린이책’에서 발견한 돌봄의 실제

The Realities of Care Found in *Today's Children's Books*

남윤정*

국문요약 어린이 청소년 문학은 독자의 특성 때문에 미학적 측면 외에도 여러 관점을 포괄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어린이책에 담긴 돌봄의 장면을 살펴보는 일은 돌봄 가치의 실천이 필요한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돌봄의 관점에서 어린이 청소년 문학의 주체와 서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돌봄 윤리의 이론적 맥락과 비평적 관점을 리뷰하고, 분석 기준으로 삼을 돌봄 개념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추천 도서 12종을 선정하여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추천 도서들은 관계성, 상호의존성, 공감, 책임, 취약성, 사회적 맥락의 돌봄 개념을 주체와 서사 양면에서 충족하였다. 취약한 인물들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들과 공감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맥락은 서사의 주요한 흐름으로 작동하였다.

이 글은 어린이 청소년책에 구현된 돌봄의 가치들을 사례 분석으로 살펴본 첫 시도이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돌봄의 이야기들이 창작되어 어린이와 성인 독자들이 돌봄의 감각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핵심어 어린이 청소년책, 돌봄 윤리, 관계, 상호 의존, 공감, 책임, 취약성, 사회적 맥락, 주체와 서사

* 문화콘텐츠 기획자, 다움북클럽 편집위원

차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사례 분석
	4. 결론

1. 서론

살아가면서 돌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돌보거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간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거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비인간이거나 자연이거나 최소한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의 돌봄이 없다면 존재하기 어렵다. 돌봄의 범위는 그만큼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이다.

돌봄의 자장 안에는 책 또한 포함된다. 내용은 차치하고 쓰는 행위와 읽는 행위가 바로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다. 우리는 독서 과정에서 책과 ‘함께 살아있음’을 느낀다. ‘함께 살아있음’, 돌봄을 그려내는 일에 관한 한 어린이책은 특별히 일류 선수에 해당한다. 서가에서 아무 어린이책이나 꺼내 들어도 거기엔 반드시 돌봄의 향기가 배어있다.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을 떠올려 보면 누구나 따뜻한 위로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어른으로 어린이책을 읽으며 받는 감동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주제와 서사가 대놓고 돌봄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모든 어린이책에는 돌봄의 장면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책에서 돌봄이 그려지는 방법과 내용은 비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동심주의와 교훈주의가 거의 폐기되었고, 어린이 주체가 당당하게 할 말 하며 성장하는 서사들이 창작되어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시

대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습적으로 그려지거나 덜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상은 존재한다. 이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산다. 그들은 누구일까. 이미 오래된 사회 문제인 ‘돌봄의 위기’를 말할 때, 사건과 사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부터 동물과 자연 등 비인간에 이르기까지 대상은 다양하다.

지금 ‘어린이책과 돌봄의 실제’를 훑아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린이 독자, 어린이책을 읽는 성인 독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다정하게 곁을 내어주는 독서 행위가 되려면, 오늘의 어린이책에 담겨야 할 돌봄의 장면은 어떠한지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한다.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책의 주제와 서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윤리학, 사회학, 여성학 분야에서 진화를 거듭해 온 돌봄의 개념을 살펴본 뒤 어린이책 분석을 위한 틀로써 ‘돌봄 개념’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책 큐레이션 비정기간행물 『오늘의 어린이책 1~3호』¹에서 추천한 439종 도서 중 돌봄을 주제로 한 그림책과 동화를 사례로 선정하여 텍스트 분석을 진행한다. 돌봄 개념은 텍스트 안에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주제와 서사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살펴보고,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기술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 문학에서 돌봄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 실재를 밝히는 것이 이 작업의 작은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정치한 문학 비평이나 사회학적 비평의 글이기보다는 돌봄의 관점에서 각각의 어린이책을 제한적으로 리뷰한 글이라는 점을 미리 밝힌다.

1 『오늘의 어린이책』은 2021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비정기 간행물로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청소년책을 추천하고 리뷰하는 비정기 간행물이다. 창작 및 번역된 그림책, 동화, 청소년문학, 동시, 논픽션 등 신간 어린이청소년책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현재까지 통권 3호가 발간되었고 총 439종의 도서를 추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와 주요 관점들

전통적으로 돌봄 개념은 윤리학의 변방에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를 거쳐 근대 공리주의에 이르기까지 전통 윤리학은 이성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기준을 정한 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justice)’에 초점을 맞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성 윤리’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 중용을 윤리의 기준으로 삼았다. 칸트의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도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었다. 근대 공리주의 또한 이성적 결정을 통한 행위 결과의 이로움에 주목했다. 전통적 윤리학에서 돌봄의 행위 과정과 인간의 감정은 종종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근대 이후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대하면서 전통적 이성주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고, 윤리학의 관점도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프랑스의 윤리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서구의 전통 철학이 나 이외의 타자를 대상화한다고 비판하고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에 도덕적 호소력이 있다고 말했다.² 레비나스에 의하면 우리는 고통받는 타자의 호소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존재이다.³ 미국의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칸트주의나 공리주의가 자율성과 이성에만 집중하여 감정과 돌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인간의 감정, 특히 연민과 공감의 중요함을 역설하였다.⁴

² 에마뉘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15, 116쪽.

³ 우치다 타츠루, 『사랑의 현상학』, 갈라파고스, 2013, 54쪽.

⁴ 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공리, 2016, 123쪽.

현대 윤리학에서 개인의 감정과 돌봄이 점차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사회학과 페미니즘 이론의 진전은 현대의 돌봄 윤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사회학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이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관한 의미를 어떻게 창출해 내는가에 관심을 두는 이론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구조나 사회체계가 먼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의미 있는 구조나 사회체계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한편,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에 주목하였다. 가부장제는 여성을 자녀 양육, 노인 부양, 가사 노동 등 돌봄의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을 방해하고 사회 진출을 제한하였음은 물론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여성의 행위로 여겨진 돌봄 행위를 평가 절하하고 비가시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여성의 노동이었던 돌봄 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인식하여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의 문제를 비판한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주장과 함께 돌봄 윤리에 결정적인 이론적 개념을 제공하였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윤리학과 인접 학문의 학문적 배경과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의 돌봄 윤리가 탄생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이론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1. 캐럴 길리건(Carol Gilligan)

미국의 페미니스트 윤리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캐럴 길리건은 전통 윤리학에서 소외되었던 관계와 배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 관점을 제시했다.⁵ 길리건은 돌봄을 주요한 윤리적 개념으로 도입하며 관계와 배려를 중심에 두는 도덕 발달 이론을 주창하여 흔히 ‘돌봄 윤리(Ethics of Care)’의 창시자로

⁵ 캐럴 길리건, 『침묵에서 말하기로』, 심심, 2020, 178쪽.

일컬어진다. 길리건의 이론은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⁶ 피아제의 제자이기도 한 콜버그는 스승의 인지 발달 이론을 도덕 발달 단계에 적용하여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복잡성이 증대하는 연대기적 도덕 발달론을 주장했다. 그는 성인이 될수록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윤리 개념을 중시하는 도덕 판단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콜버그가 여성 간의 섬세하고 협동적인 사회 문화적인 배려 관계를 도외시한 점을 비판한 길리건은 새로운 ‘돌봄의 윤리’를 주장했다.

길리건의 돌봄 윤리는 관계의 윤리이다. 인간은 상호의존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책임과 배려는 윤리적 결정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이때 도덕적 판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⁷ 길리건은 돌봄 윤리가 세 단계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① 1단계: 자기 돌봄(Self-care)

자신의 생존과 욕구를 우선시하며 자기 보호에 집중하는 단계. 자신의 필요 충족이 중요함.

② 2단계: 타자 돌봄(Care for others)

타인에 대한 배려가 판단의 중심이 되어 타자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단계.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도덕적 행위로 여겨짐.

③ 3단계: 상호 돌봄(Care for self and others)

자기 돌봄과 타자 돌봄 사이의 균형을 찾는 단계. 자신과 타자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책임감 있는 도덕적 판단을 내림.

6 캐럴 길리건, 앞의 책, 92쪽.

7 캐럴 길리건, 앞의 책, 104쪽.

캐럴 길리건은 관계와 배려, 상호의존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돌봄 개념과 도덕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때 도덕적 판단은 보편적인 원칙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좌우된다. 길리건의 이론은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이 증대될수록 교육, 정치, 사회복지 등 다양한 실천적 영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차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배려와 책임을 강조하는 ‘돌봄의 윤리’라는 새로운 관점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1.2. 넬 나딩스(Nel Noddings)

미국의 교육학자인 넬 나딩스는 캐럴 길리건의 ‘돌봄의 윤리’를 발전시켜 기존의 합리와 정의에 기반한 도덕 교육에 반대하고 도덕 교육은 관계에서 비롯되므로 타자에 대한 ‘돌봄’ 확산이 도덕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딩스가 주장한 ‘돌봄 교육(care education)’⁸은 타자에 대한 공감과 수용이라는 관계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이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돌봄을 받는 사람이 응답할 때 완성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레비나스가 ‘고통받는 타자’의 관점에 주목했던 것과 일치하는 사고이다. 또한 돌봄은 관계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며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약자, 동물에게까지 돌봄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2.1.3. 우에노 치즈코

일본의 여성학자인 우에노 치즈코는 일본 사회의 돌봄 노동이 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이론을 전개했다. 돌봄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

8 넬 나딩스, 『배려와 도덕교육』, 교육과학사, 2018, 31쪽.

다. 우에노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여성에게만 돌봄이 부과되면서 돌봄 노동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왔다고 말한다. 특히 가사와 가족 돌봄이 여성에 의해 무급으로 제공되는 노동으로 취급되면서 경제 영역에서 아예 지워졌고(비가시화)⁹ 이는 여성의 낮은 지위를 지속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돌봄의 문제는 단순히 가정 내 역할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특히 우에노 치즈코는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돌봄 문제에 천착한다.¹⁰ 고령화로 인해 많은 여성이 노부모 돌봄과 자녀 돌봄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어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에노는 돌봄의 사회화를 주장한다. 돌봄 노동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탈가족화¹¹가 그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돌봄 노동을 공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이가 돌봄에 참여하는 사회 구조로의 변화,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가시화함으로써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우에노 치즈코의 주장이다.

2.1.4. 조한혜정

한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조한혜정은 돌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돌봄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⁹ 우에노 치즈코, 『돌봄의 사회학』, 오월의봄, 2024, 158쪽.

¹⁰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141쪽.

¹¹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170쪽.

가치로써 이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특히 그는 탈성장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때 돌봄이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탈성장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적으로 연대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며 개인주의적 삶이 아닌 공동체적 실천인 상호 돌봄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조한혜정은 돌봄을 생태적 관점으로 확장한다. 돌봄은 인간 사이 관계뿐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돌보는 데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더 넓은 차원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표 1 | 주요 이론적 개념들

	주요개념
캐럴 길리건	돌봄의 윤리, 관계와 배려, 상호의존과 책임, 도덕 발달 3단계 이론
넬 나딩스	돌봄 교육, 맥락적 실천적 돌봄, 동물에게까지 확장하는 돌봄
우에노 치즈코	가부장제 비판, 돌봄 노동권 경제적 가치 인정, 돌봄의 사회화, 제도 개선
조한혜정	상호작용과 지속가능성, 공동체적 돌봄, 생태적 돌봄

〈표 1〉에 요약된 바와 같이 현대 돌봄 이론과 개념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언급된 주요한 개념들 가운데 문학 텍스트 분석, 특히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대상으로 한 분석 작업에 적절한 개념들을 추출하여 이후 분석 과정에 적용할 것이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돌봄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때 이 작업 또한 돌봄의 실천적 맥락이 될 것이다.

¹² 조한혜정, 「돌봄이 살린다」, 플라톤아카데미TV, 2024.

2. 선행 연구 리뷰

어린이책 비평의 장에서도 돌봄은 점차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나 돌봄 윤리를 전면에 내세운 비평의 글을 접한 기억은 드물다. 다양한 분석 시각 중에서도 돌봄 윤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비평과 페미니즘 비평의 관점으로 텍스트를 읽을 때 돌봄의 양상을 읽어내기 수월할 것이다. 특히 페미니즘 비평은 성차별과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작품이 여성이 위치를 어떻게 재현하는지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거나 억압되지 않았는지를 따져보는 비평적 입장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주민, 동물과 자연 등을 분석할 때도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스웨덴의 비교문학자 마리아 니콜라예바는 ‘타자(others)’에 대하여 언급하며 페미니즘 비평은 ‘사회의 다른 그룹 간의 불균형 또는 불평등, 비대칭에 대한 의문, 성 또는 계급, 국가, 인종의 다름에서 생기는 권력과 차별을 다루는 여러 비판적 자세를 하나로 담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이중성 접근은 성인 작가와 청소년 독자 사이의 권력 갈등을 시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와 어른 사이의 불균형, 불평등, 비대칭이 아동과 청소년 문학 작품에 어떻게 제시되고 평가되는지 다룰 것이다.’라고 사회적 맥락에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작업의 유용함과 의미를 설파했다.¹³

평론가 김재복은 ‘정치적 올바름과 동화의 문학으로서의 미학이 서로 잘 스며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주체의 내면이다. 동화에서 어린이 주체의 내면은 더 이상 비가시적인 영역에 남겨 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은 진정성의 주

체가 참된 자아와의 사이에서 건설하는 대화의 공간이다.’¹⁴라고 말하며 아동 문학의 정치성과 미학이 만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평론가 오세란은 ‘어린이나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정체성을 품어주어야 비로소 미래의 우리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고백한다. 이어서 ‘어른이 청소년에게 인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린이나 청소년의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해 줄 때 세상은 달라진다.’¹⁵라고 말하며 문학 작품에서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했다. 또한, ‘동물과 자연의 소리를 듣는 능력은 본래 그렇게 왜소한 것이 아니다. 판타지로 자연과 교감하는 것은 인간이 비인간과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구인 문학의 시사점을 제공’¹⁶한다며 비인간과의 공감을 비평적으로 언급했다.

페미니즘 비평의 자장 안에서 타자에 대한 재현의 윤리 문제에 천착해 온 송수연은 ‘폭력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관계에 기초한 현실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비윤리적이다.’라고 선언하며 단지 가시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드러내는가의 표현 방법이 더 중요함을 역설했다.¹⁷

강수환은 평론집 서문에서 ‘가장 윤리적인 태도란,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바라볼 수 없노라며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르게 바라보며 이 사안을 행해 성큼 다가서는 일’¹⁸이라는 조르주 디디-위베르만¹⁹의 입장을 빌려

¹⁴ 강수환, 『다르게 보는 용기』, 창비, 2023, 41쪽.

¹⁵ 오세란, 『기묘하고 아름다운 청소년문학의 세계』, 사계절, 2021, 8쪽.

¹⁶ 오세란, 앞의 책, 166쪽.

¹⁷ 강수환, 앞의 책, 39쪽.

¹⁸ 강수환, 앞의 책, 7쪽.

¹⁹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은 프랑스의 미술사학자, 철학자로서 2014년에 출간된 『가스 냄새를 감지하다』라는 저작에서 가시화되지도, 기억되지도 않는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되돌아와 가독성을 획득하게 되는지 질문한다.

¹³ 마리아 니콜라예바, 『어린이 문학에 나타난 힘과 목소리, 주체성』, 교문사, 2012, 14쪽.

자신의 비평적 태도를 전한다.

평론가 김지은은 그림책 『할머니의 뜰에서』²⁰를 비평하면서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엾는 정성을 담아 기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물이 순환하고 지렁이로 인해 땅속의 흙이 순환하듯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²¹라고 말하며 사람 간의 상호작용과 자연 생태를 은유하였다. 이 비유는 돌봄 윤리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며 비평 또한 이런 시선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동시를 쓰며 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로 활동하는 김유진은 최근 출간한 비평서 전체에서 돌봄의 윤리를 내포한 비평문을 다수 썼다. ‘아동문학의 할머니 캐릭터가 오직 사랑과 돌봄의 전형성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성으로 살아 숨 쉴 때’²²를 언급한 글에서부터 일본의 리얼리티 쇼 「나의 첫 심부름」에 대하여 ‘지금껏 내가 가족의 돌봄을 받았듯 가족에게 내가 필요할 때 기꺼이 돕겠다’²³는 마음을 여러 번 보았다고 기술한 글에 이르기까지 김유진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한다.

또한, ‘복지란 그저 밥을 굶지 않게 해 주는 걸 끝으로 삼지 말고 남들과 달리 제한당한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는 걸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평의 말미에 적었다. 김유진은 ‘다양성’을 내일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면서 ‘나다움’을 언급한다. ‘다양성은 나의 나다움과 너의 나다움이 공존할 때 가능하다. 다양성을 이상에 그치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모두의 나다움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차별을 반대하는 것에 있

20 『할머니의 뜰에서』, 조던 스콧 글,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지은 역, 책읽는 곰, 2023.

21 김지은 외, 『나에게 친절하고 싶은 당신에게, 이토록 다정한 그림책』, 새의노래, 2023, 38쪽.

22 김유진, 『구체적인 어린이』, 민음사, 2024, 55쪽.

23 김유진, 앞의 책, 65쪽.

다.’고 부연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의 나다움은 당연히 다양성의 투쟁이 된다.’²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상, 여러 연구자의 비평 글에서는 돌봄이라는 단어나 윤리적 개념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지향점이 돌봄 윤리에 닿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데 형식주의적으로 구조, 문체, 상징, 서사 등을 비평하는 것을 지나 텍스트 안과 밖에서 주체들의 관계와 상호작용, 구조와 불평등의 문제 등까지 함께 살핌으로써 사회적 맥락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앞서 소개한 돌봄 윤리의 이론적 개념과 어린이청소년문학 비평의 장에서 훌륭한 글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평론가들의 관점을 수용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 사례 분석

3.1. 분석 기준과 연구 질문

3.1.1. 분석 기준과 정의

앞 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된 여러 ‘돌봄의 윤리’에서 제시된 돌봄 개념과 평론가들의 비평 글에서 발견한 비평 언어 가운데 내재적 공통 분모를 추출하여 분석의 기준과 언어로 삼고자 한다.

- 핵심 개념: 관계성, 상호의존성

24 김유진, 앞의 책, 256쪽.

- 추가 개념: 공감, 책임, 취약성, 사회적 맥락

관계성은 돌봄 윤리의 핵심 개념으로써 개인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임을 말한다.

상호의존성은 모든 존재가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 돌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공감은 돌봄 관계의 근본 태도로서 타자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책임성은 돌봄이 윤리적 의무임을 강조한다.

취약성은 모든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돌봄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맥락은 돌봄 윤리의 추상적 원칙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상황을 중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3.1.2. 연구 질문

- ① 주체들의 취약성이 표현되는 방식은 적절한가? - 타자화의 관점
- ② 주체들은 어떤 존재와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있으며 공감하는가?
- 상호작용의 관점
- ③ 서사는 사회적 맥락과 책임성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가?
- 공동체적 관점
- ④ 독자의 심리적 반응과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 독서활동/심리적 관점

3.2. 분석 대상 선정

분석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그림책과 동화 12종으로 선정하였다. 각각 그림책 7종, 동화 5종으로 국내외에서 어린이 문학 작품에 수여하는 상을 받았거나 비평가들로부터 다수의 추천을 받은 작품들이다. 선정된 책들의 모집단은 『오늘의 어린이책』 1~3호의 439종 도서가 대상이 되었다.

『오늘의 어린이책』은 어린이청소년책을 큐레이션하고 비평의 글을 실어 매년 발행되는 비정기간행물로 어린이책 리뷰어 모임인 ‘다움북클럽’²⁵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도서이다. 다움북클럽은 2019~20년에 추진된 ‘나다움어린이책’²⁶ 프로젝트의 기획 및 실행 주체로서 자기공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청소년책을 추천하는 리뷰어 그룹이다. 『오늘의 어린이책』은 2021년부터 매년 신간을 대상으로 도서를 추천하고 있으며 도서목록은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자기공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도서를 리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2〉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다움북클럽 추천 도서의 중심 가치는 ‘돌봄의 윤리’ 창시자인 캐럴 길리건이 도덕의 발달 단계에서 말한 자기 돌봄, 타자 돌봄, 상호 돌봄과 구조와 내용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추천 도서 대부분은 돌봄의 윤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오늘의 어린이책』 추천 도서 가운데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²⁵ 다움북클럽의 기획위원은 김다노(동화작가), 김유진(동시인, 평론가), 김지은(교수, 평론가), 남윤정(기획자), 서현주(성교육활동가), 신수진(번역가), 윤아름(초등교사), 이혜인(그림책작가), 유지현(기획자), 최현경(편집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²⁶ ‘나다움어린이책’은 2019~20년 동안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실행된 지원사업으로 성평등 어린이책 추천, 창작공모전, 학교 도서관에 성평등 어린이책 나누기, 성평등 어린이책 포럼 및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교육문화사업이다.

〈표 2〉『오늘의 어린이책』 큐레이션 기준과 캐럴 길리건의 개념 비교

다움북클럽 중심 가치	정의	세부 항목	캐럴 길리건 도덕의 단계
자기긍정	나와 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함	주체성	자기 돌봄
		몸의 이해	
		일의 세계	
다양성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	가족	타자 돌봄
		사회적 약자	
		표현	
		젠더다양성	
공존	평등하게 연대하고 배려하며 함께 어울림	사회적 인정	상호 돌봄
		안전	
		연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도서는 〈표 3〉의 그림책 7종과 〈표 4〉의 동화 5종이다.

〈표 3〉분석 대상: 그림책 7종 목록

	도서명	글	그림	번역	출판사	출간일	나라	오늘의 어린이책
1	한 사람	위해준	야엘 프랑켈		시공 주니어	20230620	한국	공존-연대
2	고양이 손을 빌려드립니다	김채완	조원희		웅진 주니어	20170526	한국	다양성-가족
3	오, 미자!	박숲	박숲		노란 상상	20191015	한국	자기긍정-일의 세계
4	나의 친구 아그네스 할머니	줄리 플렛	줄리 플렛	황유진	북뱅크	20210315	캐나다	다양성-사회적약자
5	다같이 함께하면	브리타 테크트럽	브리타 테크트럽	김경연	미디어 창비	20180928	영국	공존-연대
6	너와 나	사이다	사이다		다림	20191126	한국	공존-연대
7	잘 가, 안녕	김동수	김동수		보림	20161001	한국	공존-연대

〈표 4〉분석 대상: 동화 5종 목록

	제목	글	그림	번역	출판사	출간일	나라	오늘의 어린이책
1	비밀소원	김다노	이윤희		사계절	20200731	한국	다양성-가족
2	페퍼민트	백운유			창비	20220725	한국	다양성-가족
3	산책을 듣는 시간	정은			사계절	20180820	한국	다양성-사회적약자
4	나는 무니	김해원			낮은산	20210330	한국	공존-연대
5	프리워터	아미나 루 크먼 도슨		이원경	밝은미래	20230707	미국	공존-연대

3.3. 돌봄의 윤리로 읽는 그림책의 실제

『한 사람』²⁷은 2023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 대상을 받은 야엘 프랑켈이 그림을 그리고 웅진주니어문학상을 받은 위해준이 글을 작업한 ‘우리’와 ‘함께’의 힘을 말하는 그림책이다.

담담하게 절제된 그림과 글은 차분하게 말한다. 여기 친구들에게 거절당한 한 사람이 있다고. 모두가 그를 등길 때 한 사람이 그 곁에 서 주고, 눈을 맞춰 주고, 손을 잡아 준다. 그래서 외로운 그 한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게 누군가의 결



『한 사람』, 위해준 글, 야엘 프랑켈 그림, 시공주니어, 2023

²⁷ 다움북클럽, 『오늘의 어린이책 3』, 오늘날다움, 2024, 154쪽.

에 서 줄 수 있는 다정한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거둢나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고 작품은 전한다.

그림책의 서사는 시종일관 레비나스가 말한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에 주목한다. 시작부터 어린이 주체는 취약한 채로 여럿 가운데 홀로 존재한다. 누구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다. 그러나 그를 외면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 본 한 사람이 생겨난다. 그 둘의 상호작용은 서로를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 놓는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책임성 앞에 독자의 마음은 위로받는다. 누구나 한 번쯤 군중 속에서 홀로된 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얼굴을 보여주고 손을 내민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 내는 것이다.

친구 관계는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다. 친구 맺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어린이에게 이 책이 어떤 울림으로 다가올지 짐작할 수 있다.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일은 눈길을 맞추고 손을 맞잡는 작은 용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그림책 『한 사람』은 담백하게 드러낸다.

가족 관계와 가사 노동을 유머러스한 그림과 서사로 완성한 『고양이 손을 빌려 드립니다』²⁸는 김채완이 쓰고 조원희가 그렸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속담이 있다. 바쁠 때는 작은 도움이라도 간절하다는 뜻인데, 이 그림책에는 가사 노동으로 지친 엄마에게 진짜 고양이가 손을 보탠다. 무관심한 아빠의 뒤편에서 지치게 집안일만 하던 엄마는 고양이 덕분에 잠깐의 여유를 얻는다. 현실의 안타까움에 기반한 기발한 상상으로 서사는 궁금증과 물입감을 자아낸다.

이야기를 끝까지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그림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선명하다. 무임 노동인 가사 돌봄에 대하여 고양이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28 다음북클럽, 『오늘의 어린이책 1』, 오늘날다움, 2021, 115쪽.



『고양이 손을 빌려 드립니다』, 김채완 글, 조원희 그림, 웅진주니어, 2017



『오, 미자!』, 박숲 글·그림, 노란상상, 2019

엄마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가사 노동자로 설정되었고 가장 가까운 타자인 남편과 상호작용에 실패한 채 고양이와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공감을 나눈다. 고양이는 자신의 가사 노동에 항목마다 고등어로 값을 매긴다. 엄마의 노동보다 나은 처지에 있기도 하려니와 엄마의 노동에도 그만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함을 웃음기 머금고 넌지시 드러내는 것이다. 『고양이 손을 빌려 드립니다』를 읽으며 어린이 독자는 엄마를 떠올릴 것이고 성인 독자는 자신이거나 가족 중 누군가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감정이입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는 마침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연히 보여주면서 반성적으로 마무리된다.

『오, 미자!』²⁹는 박숲이 쓰고 그렸다. 등장하는 다섯 ‘미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다. 건물 청소부, 스텐트우먼, 택배 기

29 다음북클럽, 앞의 책 102쪽.

사, 전기 기사, 이사 도우미로 살아가는 이들의 하루는 힘들고 바쁘다. 가끔 부당한 차별이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미자’들은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자신을 인정하고 따뜻한 손을 내밀기 때문이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격려의 말이 주는 위안과 자부심으로 미자들은 땀 흘려 일한다.

다섯 미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취약한 노동자로 등장하지만 활기차고 힘이 세고 용감한 주체로 설정되어 있다. 얼굴은 밝고 행동은 당당하다.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거나 일회적인 관계일 수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들이 건네는 공감의 말에 격려받는다. 우리도 어쩌면 가까운 타자보다는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의 일회적 인사와 한마디 말에서 마음의 양금이 풀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림책 『오, 미자!』는 바로 그 지점을 부드럽게 보여준다. 불안과 불평등이 지배하는 오늘의 사회에서 우연한 마주침, 그 얼굴이 주는 위로와 힘을 역설한다.

이러한 서사를 거치며 그림책 『오, 미자!』는 노동을 통해 자존감을 지키고 생동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미자’들을 위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노동 현장에 렌즈를 들이대고 밝고 건강하게 여성 노동자의 실체를 드러내면서도 사람 사이의 공감과 공동체적 정서를 놓치지 않은 드문 작품이다.

『나의 친구 아그네스 할머니』³⁰는 캐나다 그림책이다. 여기엔 엄마와 둘이 바닷가 외딴곳으로 이사 와 아그네스 할머니와 이웃하며 살게 된 여성 어린이 카테리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소녀는 대자연 속에서 이웃 할머니와 친구가 되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그릇을 빚는다. 계절이 바뀌고 할머니가 점점 쇠약해지자 할머니의 말동무가 된다.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낯선 땅에 마음을 붙이게 되는 주인공은 아그네스 할머니와 친구가 된 일이 무엇보

30 다음북클럽, 앞의 책 129쪽.

다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든다.

그림은 흙벽의 질감이 느껴지는 듯 소박하고 글은 화자인 카테리나의 심성에 어울리게 차분하다. 독자는 어린이를 따라 아그네스 할머니와 조금씩 친해진다. 그리고 할머니가 병석에 누운 장면에서는 어찌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소녀와 할머니의 첫 만남에서부터 성인 독자는 조금쯤 예감한 일이었으리라. 그 마음을 글과 그림이 천천히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림책이다.

어린 소녀가 무슨 이유로 엄마와 둘이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외로움과 불안, 취약성은 그림과 글에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소녀는 자신의 방을 꾸미고 이웃을 친구로 사귈다. 어디에 살든 주변을 돌아보고 가꾸는 깨끗한 마음이 느껴진다. 여기서 어린이는 할머니와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된다. 그것은 기쁨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할머니 또한 이웃으로 온 소녀를 동등하게 친구로 여기고 대한다. 공감의 관계이다. 소녀와 할머니 곁에는 엄마와 할머니의 딸이 있지만 배경으로만 잠시 등장할 뿐 서사는 오롯이 세대 간의 우정을 그리는 일에 할애된다. 그렇게 연결된 관계가 얼마나 희망적이고 아름다운지 그림책 『나의 친구 아그네스 할머니』는 웅변한다.

그림책에는 가끔 구멍이 뚫려있다. 그저 뚫는 법은 없다. 작가는 왜 이 책의 표지와 내지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었을까. 『다 같이 함께하면』³¹은 책의



『나의 친구 아그네스 할머니』, 줄리플렛 글·그림, 황유진 역, 북뱅크, 2021

31 다음북클럽, 앞의 책 231쪽.



『다 같이 함께하면』, 브리타 테크트럽 글·그림, 김경연 역, 미디어창비, 2018

절하게 사용한 그림은 이야기와 조화를 이루며 끝까지 따라 읽을 수밖에 없는 흡인력을 선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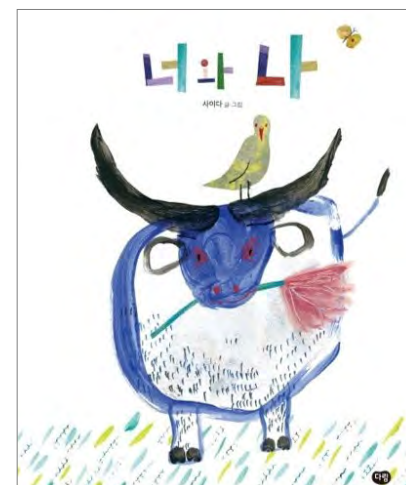
책장을 넘기면 뚫린 구멍으로 어린이가 등장한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새로운 구멍을 통해 또 다른 어린이가 나타난다. 이야기의 종반부에는 9개의 구멍 안에 어린이가 보이고 반대 면에도 9명의 어린이가 둥글게 서 있다. 독자는 상상해 볼 수 있다. 어쩌면 이 구멍은 열린 마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에 이르면 양면에 꼭 차게 어린이들이 서 있다. 서로 다른 얼굴색, 서로 다른 옷차림, 장애 어린이도 함께하고 있다. 모두가 팔을 벌리고 활짝 웃으며 화면 밖을 바라보는 배경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다 같이 함께하면』의 작가 브리타 테크트럽은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수상한 작가로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부드러운 색감과 독특한 질감, 다채로운 화면 구성으로 국내외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작품도 장면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대자연의 풍경에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아름답다. 거기엔 사슴, 백조, 고양이, 북극곰 같은 다양

제작 방식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좋은 사례이다. 제목과 표지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인종, 환경, 평화, 공존 같은 어려운 주제를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일깨워주는 그림책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숨은 그림을 찾는 기분을 느끼도록 다채롭게 배치한 섬세한 일러스트가 펼쳐진다. 거기에 천공

(구멍을 뚫는 제작 방식, Die-cut) 기법을 적

한 동물들이 함께 한다.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건 자연과도 함께 하는 것임을 독자는 자연스레 깨닫게 된다. “우린 하나하나 다 특별해. 저마다 꿈이 다를지도 몰라. 하지만 손에 손을 잡고, 모두 함께하면 우린 한 팀이야.” 도입부에 쓰인 텍스트가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드러낸다. 또한 이 문장에는 돌봄의 윤리가 딱 맞춤으로 들어 있다.



『너와 나』, 사이다 글·그림, 다림, 2019

『너와 나』³²는 생태계의 공생 관계를 재미있게 드러낸 논픽션 그림책이다. 공생은 서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 관계의 대표이다. 이 책에는 서로 좋은 달라도 각자의 강점을 살려 타자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다.

타조는 좋은 눈으로 얼룩말은 밝은 귀로 도움을 주고, 빨판상어는 자신보다 큰 상어의 몸에 붙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상어가 잡아먹은 물고기의 찌꺼기에 의존해서 산다. 부족함을 채워가며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았다고 꼭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는 아니다. 이해관계가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큰 의미가 되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공존이고 돌봄이라 할 만하다.

주체들은 결핍된 것들을 타자에게 의지하는 강력한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는 종속이 아니다. 이는 자연계란 본질적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서로 연결된 촘촘한 그물망으로 지속 가능성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가장 강력한 공동체인 셈이다. 강력하고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 본래 자연스

32 다음북클럽, 앞의 책 232쪽.



『잘 가, 안녕』, 김동수 글·그림, 보림, 2016

럽게 연결된 끈 같은 것. 이런 그물의 코가 끊어지면 공동체의 건강성도 따라서 약화한다. 독자는 『너와 나』를 즐겁게 감상하다가 우리 사회는 어떠한 지 되묻게 될 것이다.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동식물들의 따뜻한 관계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자문하게 만드는 그림책이다.

김동수 작가의 『잘 가, 안녕』³³은 ‘로드킬’을 소재로 한다. 묵직한 주제임에도 작가 특유의 유아적 단순성과 절제된 색채, 그리고 짧고 덤덤한 문장에 실린 힘이 만만치 않은 작품이다.

표지를 넘기자마자 독자가 만나는 첫 문장은 불편하다. “픽. 강아지가 트럭에 치여 죽었습니다.” 느닷없는 죽음, 어이없는 죽음,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 죽음조차 돌보아지지 않는 죽음. 그림책이 다루는 소재는 로드킬이지만 가엾은 모든 죽음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죽음이기도 하다.

진혼의 마음을 담아 로드킬로 세상을 뜬 동물들을 위로하고 작별 인사를 고하는 주체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이다. 그 또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상처 받고 취약한 존재이다. 그림에도 할머니는 동물들의 주검을 하나하나 정성껏 수습하여 고이 저세상으로 보내는 의식을 치른다. 찢기고 터지고 잘려 나간 동물들의 상처를 꿰매고 봉대로 감고 눈을 감기고 이불을 덮어 준다. 마침내 할머니가 동물들을 떠나보내는 뱃전에 서서 “잘 가, 안녕.”이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에도 할머니의 손길이 닿는 듯하다.

할머니는 죽은 동물들과의 상호 의존 관계 속에 존재한다. 죽음을 인연으

33 다음북클럽, 앞의 책 231쪽.

로 하지만 섬뜩하거나 불쌍한 느낌은 전혀 없고 서사는 끝까지 다독거리는 따스한 위로의 눈물로 찰랑거린다. 공동체가 돌보지 않는 두 존재, 인간과 비인간이 죽음으로 만나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서사가 주는 감동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세상의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위한 연민과 위로의 판타지라는 『잘 가, 안녕』에 붙여진 부제에 조금의 과장도 느껴지지 않는다. 자연과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 문명에 대한 고발을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말해도 울림은 웅장하기만 하다.

3.4. 돌봄의 윤리로 읽는 동화와 청소년소설의 실제

『비밀 소원』³⁴은 2019년 제1회 나다움어린이책 창작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다노의 동화이다. 자기공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그림책과 동화를 찾는 공모전에서 이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유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가 자연스럽게 서사에 녹아든 점과 등장인물들이 관습에 물들지 않고 전복적인 긍정의 태도를 갖고 있다

는 점에 있다. 인물들은 정상 가족, 비정상 가족이 따로 없음을 천연덕스럽게 보여준다. 또한, 어린이 주체들의 주체적 개성과 발랄함에 더하여 주변 인물인 할머니와 이모, 이웃들의 캐릭터까지 새로운 매력이 있다.



『비밀 소원』, 김다노 글, 이윤희 그림, 사계절, 2020

34 다음북클럽, 앞의 책 119쪽.



『페퍼민트』, 백은유 장편소설, 창비, 2022

미래와 이랑, 현옥이가 별이는 우정과 성장의 이야기인 『비밀 소원』에는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이 없다. 미래는 할머니, 이모와 함께 살고 있고, 이랑이는 엄마, 아빠가 별거 중이라 마음이 복잡하다. 현옥이는 아빠가 가사 일을 전담하는 가정에 산다.

어린이 주인공들의 다양한 가족 관계를 표나게 드러내지 않고 섬세하게 배치해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세심한 장치로 인해 독자들은 나와

다른 가족의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세상은 이런 가족에 대하여 취약하다고 말하겠지만 주인공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는다. 주체의 입장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타자의 시선에 갇히지 않는다. 이 동화에서 모든 인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 동네는 하나의 공동체로 작동한다. 문제가 생기면 헌법책을 들고 튀어나오는 할머니까지 있으니까.

『페퍼민트』³⁵는 돌봄과 죽음, 용서와 화해를 정면으로 다루는 청소년소설로 열아홉 살 시안과 해원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 이후 6년 만에 다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시안은 매일 페퍼민트 차를 우린다. 몇 년째 병상에 누워 있는 엄마를 위해서다. 6년 전 해원의 가족에 의해 전염병에 감염된 뒤 엄마는 회복하지 못하

35 다움북클럽, 『오늘의 어린이책 2』, 오늘날다움, 2023, 71쪽.

고 식물인간이 되었다. 간병 생활의 괴로움과 엄마에 대한 죄책감까지 시안을 괴롭히는 감정은 다양하다. 한편, 병을 옮기고 사라진 뒤 다시 만난 해원에게도 불안은 깊다. 이름까지 바꿨지만,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이 알까 봐 늘 조마조마하다.

두 친구의 위태로운 관계를 따라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과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한 두 사람의 고통이 마지막까지 눈을 땔 수 없게 한다.

『페퍼민트』는 돌봄 노동, 특히 영케어러³⁶의 돌봄을 소재로 한 흔치않는 소설이다. 시안은 간병인 최 여사와 번갈아 엄마를 돌보고 최 여사는 간병인인 면서 동시에 집안을 돌보는 여성이다. 엄마를 돌보느라 삶이 망가졌다는 생각과 엄마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죄책감 사이에 갈등하던 시안은 최 여사에게 위로받고 공감의 대화를 나눈 뒤 비로소 엄마를 돌보는 행위가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했음을 깨닫는다. “엄마는 나를 키우는 동안 자신의 삶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 적 있을까.”(95쪽)라며 질문을 던지는 주인공의 독백은 어떤 돌봄이든 무게가 다르지 않음을, 돌봄이란 모두가 지나야 할 삶의 한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각성이자 성장의 표시이다. 돌봄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일상은 지속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돌보지 않고 우리는 성장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소설은 말한다.

시안과 해원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돌봄의 윤리처럼 용서 또한 받는 자의 수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열쇠는 사회

36 영 케어러(Young Carer: Hidden in Plain Sight?)(2004, 호주 아동 및 청소년 위원회): 영 케어러는 가족 구성원 중 장애, 질병, 정신질환, 중독 등으로 인해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돌보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2004년 앤 서덜랜드, 카렌 와이어트, 마사 누스바움, 히라타 나오시, 다이앤 에커먼, 조한혜정 등이 참여한 보고서를 통해 처음 논의되었다. 호주의 약 백만 명에 달하는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 문제 상황을 겪는 영 케어러를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센터 설립, 교육 및 취업 지원, 가족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리 보호 등을 제안하였다.



『산책을 듣는 시간』, 정은 장편소설, 사계절, 2018

적 약자, 타자가 쥐고 있다. 그러나 시안이 돌봄의 현실을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한 불가능한 일로만은 보이지 않는다. 희망은 있다.

『산책을 듣는 시간』³⁷은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가진 두 친구의 동행을 그리는 고학년 대상 동화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열아홉 수지와 안내견과 함께 다니는 전색맹 시각 장애인 한민의 우정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청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친구라는 사실을 신기하게 여기지만, 두 친구와 안내견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이이다. 수지는 한민과 함께 산책할 때 완전해진 느낌이 들고 안정감을 느낀다. 그런데 인공 와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변한다. 완전했던 침묵의 세계는 불완전한 소음의 세계로 바뀌고 수지는 낯선 세상에 적응해 나가며 눈이나 귀가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수지와 한민은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와 함께’ 불편 없이 지낸다.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것은 둘 사이에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수지가 의학의 힘을 빌려 청각을 회복하면서 인공 와우의 기계적 소음으로 고통받을 때도 한민은 유일한 위안이 되어 준다. 따듯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힘든 시기를 지나며 마침내 수지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모르는 것

37 다음북클럽, 『오늘의 어린이책 1』, 오늘날다움, 2021, 133쪽.

은 모르는 채로 남겨두어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한다. 바로 ‘산책을 듣는 시간’ 사업이 그것. 산책을 통해 자신이 성장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마음먹는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는다.

장애를 부끄러워하지도 극복하려고도 하지 않는 지수와 한민의 태도는 당사자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취약성을 갖지 않은 존재는 없다. 그럼에도

누군가의 취약성을 문제 삼아 대상화하는 일은 돌봄의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산책을 듣는 시간』의 주체들은 자신을 긍정하고 상호 의존 관계에서 힘을 얻고 성장하여 마침내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된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 독자가 두 청년의 멋진 출발을 응원하게 만든다.

『나는 무늬』³⁸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을 목격한 여성 청소년 문희가 친구들과 함께 죽음의 비밀을 캐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우정과 연대, 그리고 해원의 청소년소설이다.

제목의 ‘무늬’라는 단어는 주인공 문희의 별명이자 이 소설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관계의 무늬를 중의적으로 드러낸다. 불법적인 청소년 노동으로 헛되이 목숨을 잃은 것도 모자라 도둑 누명까지 쓴 배달원에게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다는 탐정을 자청하는 문희와 친구들의 용기는 어른 독자들을 조금쯤



『나는 무늬』, 김해원 장편소설, 낯은산, 2021

38 다음북클럽, 앞의 책, 230쪽.



『프리워터』, 아미나 루크만 도순 장편소설, 이원경 역, 밝은미래, 2023

부끄럽게 만든다.

이 소설에서 어른들은 어른답지 못하며 청소년들은 얽치락뒤치락하면서도 결국 진실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는 존재로 그려진다. 청소년소설 서사에 드물지 않게 등장하는 클리셰이긴 하지만 단단하고 아름다운 문장과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인물들의 활약 덕분에 거슬리지 않는다. 청소년 노동과 가정 폭력, 아동 학대까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작가 정신 또한 놀랍다. 이 고단한 현실

을 이겨나갈 힘은 친구들 간의 상호 의존과 연대에서 온다. 남의 일에 신경 끄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작가는 취약한 타자를 위해 함께 울어 주고, 부당한 일에 나서서 항의하며 행동하는 이야기말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한다. 고통을 겪고 눈물을 닦고 난 뒤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지를 『나는 무늬』는 묻고 있다.

『프리워터』³⁹는 미국 최고의 아동문학상으로 일컬어지는 뉴베리 대상(Newbery Medal)을 2023년에 수상한 장편소설이다. 탈주 노예 역사에서 영감을 받아 쓰인 이 책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8세기를 배경으로 노예였던 열두 살 호머가 농장에서 탈출해, 습지에 숨겨진 탈주 노예 공동체, ‘프리워터’에 살게 되는 이야기이다.

흑인 남매가 노예 농장에서 탈주하여 습지 깊숙한 곳, 꿈같은 자유의 땅에

도착한다. 살아남기 위해 눈에 띄지 않기를 삶의 원칙으로 세운 열두 살 호머가 각성하는 과정은 짜릿하고도 눈물겹다. 일곱 살 여동생 에이다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놀랍고 후련하다. 활시위를 당기며 영웅의 꿈을 꾸는 산지의 도전과 가족에서 소외된 노라의 주체적 선택에는 손뼉을 치게 된다. 도망 노예의 발걸음만큼이나 빠르게 읽히면서도 밀도 있는 구성과 표현이 매력적이며 등장인물 어느 한 사람 생생하지 않은 이가 없다. 우정과 용기, 십 대의 성장과 가족애란 무엇인지 다채로운 주제 의식도 장편답다.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다.

흑인 노예라는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어린 주인공들은 당당하고 주체적이다. 때때로 생존을 위해 본성을 감추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존을 억압하는 타자에 굽히지 않는 저항 정신이 살아있다. 어린 주체들은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여 난관을 극복하여 마침내 자유를 획득한다. 그 과정의 드라마틱함은 『프리워터』를 읽는 과정의 백미이다. 노예제 사회라는 사회적 한계로 볼 때 노예였던 흑인들이 늪지 깊숙한 곳에 숨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역사적 실체가 믿기지 않으면서도 어린 주체들의 생동과 상호 돌봄의 서사 탓에 독자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는 소설이다.

4. 결론

7종의 그림책과 5종의 동화 및 청소년소설을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 추출한 6개의 개념(관계성, 상호의존성, 공감, 책임, 취약성, 사회적 맥락)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작업은 앞서 연구 질문으로 선정한 타자화, 상호작용, 공동체, 독서활동 심리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과정이었다.

39 다움북클럽, 『오늘의 어린이책 3』, 오늘날다움, 2024, 158쪽.

결론적으로, 12종의 대상 도서는 돌봄의 개념과 질문들을 모두 충족한다. 어느 작품 하나도 어긋나지 않음이 놀라웠다. 대상 도서들이 다루는 소재는 친구, 가족, 공동체, 자연 등 서로 다르지만, 지향점은 다르지 않았다. 인물들은 각각의 이유로 취약하지만 그제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공감하고 책임을 지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살아간다. 애초에 연구의 모집단인 『오늘의 어린이책』이 추천한 도서들이 갖는 특성이 반영된 탓이 클 것이다. 돌봄의 윤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이라는 단어 모두에 돌보는 마음이 스며있다.

공감과 돌봄의 인물과 서사들은 감동을 준다. 창작자들의 예민하고 집요한 작가 의식이 독자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다면 독서가 주는 가장 큰 효과일 것이다. 서사가 흐르는데 주인공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읽는 재미가 없듯 귀한 시간을 내어 독서를 했음에도 독자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고 심리적 변화를 겪지 않는다면 몹시 무의미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 가치가 담긴 도서들이 주는 감동은 매우 크고 그 교육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을 주장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려 함이 아니라 돌봄 윤리가 드러난 책을 골라 살펴서 좋은 사례로 삼고자 함에 있다. 이 모자란 글이 작가들의 창작 욕구를 조금이나마 자극하고 이후의 문학 비평에서 돌봄 윤리의 관점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하는 데 작은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들이 어린이책에서 돌봄의 장면과 돌봄의 미학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수환, 『다르게 보는 용기』, 창비, 2023.
 김유진, 『구체적인 어린이』, 민음사, 2024.
 김지은 외, 『나에게 친절하고 싶은 당신에게, 이토록 다정한 그림책』, 새의노래, 2023.
 넬 나딩스, 『배려와 도덕교육』, 교육과학사, 2018.
 다움북클럽, 『오늘의 어린이책 1』, 오늘날다움, 2021.
 _____, 『오늘의 어린이책 2』, 오늘날다움, 2023.
 _____, 『오늘의 어린이책 3』, 오늘날다움, 2024.
 마리아 니콜라예바, 『어린이 문학에 나타난 힘과 목소리, 주체성』, 교문사, 2012.
 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궁리, 2016.
 에마뉘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15.
 오세란, 『기묘하고 아름다운 청소년문학의 세계』, 사계절, 2021.
 우에노 치즈코, 『돌봄의 사회학』, 오월의봄, 2024.
 우치다 타츠루, 『사랑의 현상학』, 갈라파고스, 2013.
 캐럴 길리건, 『침묵에서 말하기로』, 심심, 2020.
 조한혜정, 『돌봄이 살린다』, 플라톤아카데미TV, 2024.

ABSTRACT

The Realities of Care Found in Today's Children's Books

Nam, Yoon-Jeong _ Children's Book Editor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subjects and narratives in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are constr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care. It seeks to illuminate the social significance of caring values in literature for young readers by examining how themes such as self-affirmation, diversity, and coexistence are embodied in contemporary works.

Methods The study review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care ethics and extracts key concepts as an analytical framework. Twelve recommended children's and young adult books were selected based on themes aligned with caring values, and a textual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care-related elements appear in characterization and narrative structure.

Conclusion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elected works reflect core dimensions of care—including relationships, interdependence, empathy, responsibility, vulnerability, and social context—in both subjects and narratives. The findings highlight the potential of children's literature to cultivate caring sensibilities in young and adult readers, suggesting the need for more stories that deepen ethical awareness and social empathy.

Keywords children's and young adult books, ethics of care, relationships, interdependence, empathy, responsibility, vulnerability, social context, subject and narrative

돌봄체제와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nkage Method of Care System and Reading Education Program

민병휘*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돌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바로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다양한 돌봄의 영역에 있는 돌봄체제에 대한 이해와 독서와 연결된 독서교육을 설명하고 돌봄체제와 독서교육을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독서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세가지 요소로 모델링, 코칭, 스케폴딩 기법을 통하여 독서교육이 단순한 읽기와 지식습득이 아닌 돌봄대상자들의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 중심의 이해와 창의성, 분석적 사고, 능동적 학습 태도를 육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돌봄대상자들로 하여금 책을 통한 독서의 효율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돌봄체제, 돌봄, 돌봄 민주주의, 독서교육, 독서교육 프로그램, 구성주의 교수학습법

이 논문은 2024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다문화국제학교 교감 및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상임이사

- 차례**
1. 들어가며
 2. 돌봄 체계
 3. 독서교육
 4. 돌봄체계와 독서교육 연계
 5. 통합방안 제시
 6. 맺은말

1. 들어가며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학교 교육 활동과 지역사회체계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전일제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에 의한 교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나라의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한 바가 있다.

가족제도의 다변화로 소규모 가족의 증가되고 경제활동을 필요로 여성의 인구 증가로 양육과 보육 환경이 필요에 의한 변화가 돌봄체계의 마련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양육간의 협력을 통한 연계로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돌봄체계의 여러 영역에서 활동이 증대되었다.

특히,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증가되고, 개인은 우울감, 불안감, 정신적 소진과 육체적 소진 등의 문제로 사회적 병리는 증가되고 있다. 사회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증가도 경제적 문제와 돌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태어남과 죽음의 적정비율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돌봄의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공적이고 사회적 시스템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노인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증가는 이전에 없었던 방식의 돌봄체계를 사회적이고 경제적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은 세계적인 정책적 과제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20여년에 걸쳐 급속도의 변화로 인한 돌봄의 가속화를 경험하고 있다. 소수의 집단에서 필요한 사항이 다수의 보편적 집단에서 돌봄 공백이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 체계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돌봄체계의 수요량이 크게 증가로 인한 돌봄정책의 성격 변화는 돌봄욕구의 보편적인 증가요인이기도 하다. 특정 필요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돌봄체계의 지원도 보편적 성격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돌봄체계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었다. 정책대상이 확대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인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독서교육의 관점에서 돌봄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교육적인 요소를 제공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

공급주체 성격이 다원화되고 재원이나 이전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결과적인 형태에서 돌봄체계의 여러 구성원 가운데 제도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연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의 여러 요소와 문제를 통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사회적 돌봄체계를 이용하고자 하면 이용의 편의성, 이용방법과 절차, 그리고 공급의 다양성으로 인한 선택적 사항 등에 관해서 상당히 복잡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발전가능한 효과적인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적합한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돌봄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하는

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으나 실천적으로 너무나 익숙해져서 큰 효과가 있음에도 표준화된 제도적 서비스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바로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돌봄체계에서 독서교육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통하여 독서교육프로그램의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돌봄체계

2.1. 돌봄 체계의 개념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있듯이 인생의 삶의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돌봄을 주고받아야 한다. 인간의 태생은 양육자의 돌봄 가치의 절대적 필요 상태로 시작되며, 타자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돌봄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약화된 상태로 소멸하는 존재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빈곤, 실업, 질병 등의 여러 요소에 의하여 타인의 돌봄에 의존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인간은 이러한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취약적인 존재이기에 타인에 의한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되는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는 구조가 있는 사회현대적 존재이다. 이

와 같이 돌봄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근원적인 ‘취약성’과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다.²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로 저평가되고 공공정책적 측면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돌봄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공식화하려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다른 표현을 통하여 최근 용어에 있어서 ‘돌봄 사회’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고, ‘돌봄 국가’, ‘돌봄 노동’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돌봄에 대한 윤리론적 관점의 접근³, 정치학적 접근⁴, 경제학적 관점의 접근⁵, 정의론적 관점의 접근⁶, 복지제도의 한계를 논의한 접근⁷ 등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있다.

본래 학교에서 ‘교육’은 ‘돌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전적인 교육학적인 관념에서는 돌봄과 교육을 각각 분리된 형태로 가정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로 구분했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돌봄은 교육과 함께하는 전제 조건이며, 돌봄 자체가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돌봄을 가족 간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서비스로서의 돌봄을 넘어 모든 규모의 생명체에 활성화되어 있고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⁸

1 ‘care’는 ‘돌봄’ 또는 ‘보살핌’로 표현되며, 배려와 양육의 의미로도 나타낸다. 국내 교육학계에서는 Noddings(1992)의 ‘돌봄 사회’, ‘돌봄 국가’ 등을 주창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돌봄’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살핌과 배려’가 개인적 덕목을 지칭하는 용어라면, ‘돌봄’은 개인윤리와 공동체와 사회적 의미도 내포한 용어이기도 하다.

2 김희강, 『돌봄민주국가』, 박영사, 2022.

3 버지니아 헬드,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 윤리』, 박영사, 2017.

4 조안 C 트론트,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박영사, 2021.

5 낸시 폴브레, 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또하나의문화, 2021.

6 다니엘 잉스터, 김희강 역, 『돌봄: 정의의 심장』, 박영사, 2017.

7 김희강, 『돌봄민주국가』, 박영사, 2022.

8 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역,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니케북스, 2021.

돌봄의 경제에서는 시장경제적 이윤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새로운 목적과 존재양식을 택하는 거대한 변화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사회적책임투자, 이해관계자 경영과 같은 다양한 변화도 시도되고 있다.

돌봄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돌봄의 개념의 대부분은 인간의 근원적 조건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근원적 조건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이다.⁹

돌봄과 교육은 단순한 양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배려, 존중의 행위이며, 큰 의미에서 윤리적 가치로 이해되어야 하며, ‘인식론적 돌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¹⁰

돌봄을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존, 발달, 기능할 수 있도록, 이들이 생물학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기본적인 역량을 발달·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Tronto¹¹는 돌봄의 개념을 확장하여 ‘가장 포괄적인 수준에서 잘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바로잡고 지속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들의 개념 정의는 주로 사회학적,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포괄적 정의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돌봄을 윤리적 측면에서 ‘돌봄 윤리의 초점은 우리가 특별히 책임져야 할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도덕적 각성’이라고 하였다.¹²

9 에바 페터 키테이,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버지니아 헬드,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 윤리』, 박영사, 2017; 조안 C 트론트,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박영사, 2021.

10 임부연, 「유보통합 돌봄에 대한 학문적 탐구: 돌봄의 인식론적 전회를 중심으로」, 『어린이교육비평』 13(1),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2023.

11 조안 C 트론트,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박영사, 2021.

12 버지니아 헬드,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 윤리』, 박영사, 2017.

2.2. 돌봄 체계의 영역

현대 사회에 있어서 돌봄은 가정을 넘어 사회화되면서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일종인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결국 돌봄의 주체와 유형의 변화가 새롭게 나타나고 세분화되었다.

이처럼 돌봄의 유형과 주체와 대상은 각각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돌봄대상자의 유형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돌봄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과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조차 모호한 실정이다. 사회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전 분야에 돌봄의 서비스 형태는 접근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채로운 돌봄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상이 되며, 상담, 의료, 간호, 복지, 요양 등, 돌봄을 둘러싼 돌봄의 부정의, 책임의 불균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Tronto는 돌봄당사자들이 의제발굴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에 의해서 돌봄 정의가 형성되고,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³ 그런 만큼 다양한 돌봄 이해관계자들의 계층, 성별, 민족적 배경, 인종 등 주어진 조건과 지위 등으로 인한 특권과 권력 관계에 대한 성찰과 함께 돌봄 정의를 조성하면서 돌봄자와 피돌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 돌봄 의제를 발굴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돌봄과 관계된 실질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돌봄책임이 공유될 수 있는 민주적인 조건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¹⁴ 돌봄거버넌스 구성에서 계층, 성별, 민족, 인종 등 권력관계의 불평등

13 조안 C 트론트,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박영사, 2021.

14 김희강, 『돌봄민주국가』, 박영사, 2022.

에 대한 인식과 불평등, 부정의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돌봄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성별화, 계층화는 지속되고, 돌봄 가치에 대한 평가 절하도 여전하다.

특히 Tronto는 ‘함께 돌봄’이라는 것을 통하여 돌봄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모두가 필연적으로 돌봄수혜자됨을 강조한다. 사회구성원 모두는 각자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인생에서 반드시 있으며,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는 실천적 책임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돌봄을 받는다. 따라서 ‘함께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돌봄의 대상이 누구되며, 어느 정도로 돌보아야 할 것인지, 돌봄 책임의 분배를 어떻게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함께 돌봄’이라는 선협적 가치는 쉽게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 실상이다. 돌봄은 사회적 약자에게 대체로 전가되는 경향이 높으며, 돌봄의 책임을 무겁게 짐으로써 취약해져 결국에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 버리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¹⁵

2.3. 돌봄 체계와 교육

돌봄은 교육과 보육의 구분적이고 분리된 경계를 넘어 보다 확장되고 통합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돌봄을 확장적 의미로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서로 구분적인 내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며, 돌봄과 교육은 상호 협력적인 모습으로 함께 가야 한다.

돌봄의 공공적 접근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고자 한 스웨덴교육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호주의 사례에

¹⁵ 에바 페터 키테이,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보듯이 유아를 위한 무상교육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차이가 나는 돌봄과 교육으로 단순하게 나눔없이 ‘돌봄 있는 교육’으로 함께 수행하고 있다. 아이들의 해방감과 자유로움, 그리고 안전한 놀 권리를 보장하며 ‘보육과 교육의 동시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 역시 우리가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¹⁶

돌봄과 교육은 서로 간의 분리해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다. 돌봄과 교육의 본질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3. 독서교육

3.1. 독서교육의 개념

독서의 사전적 정의는 “책을 읽음”, “책 읽기”(국어사전, 2024), 또는 “읽는 행위”(Merriam-Webster Dictionary, 2024)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행해지는 일들의 계획”,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는 계획이나 시스템”이다. 그러면 독서와 프로그램을 합성한 독서 프로그램은 독서를 위한 수행 계획이나 과정 또는 읽는 행위를 위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으로 시스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의미로, 일부 사전적 의미로 독서 프로그램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literacy skills)을 교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Princeton’s WordNet, 2024)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 읽기와 쓰기를 같이 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¹⁶ 정선아, 「영유아기와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방안 돌봄과 교육의 통합 관점에서, 『어린이교육비평』 7(2),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2017.

나타났다.

교육학 분야에서 읽기와 독서는 모두 글을 읽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글 깨치기 수준에서의 글자 읽기에서부터 전문 확장, 인격 수양, 정서 함양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¹⁷ 이에 비해 독서교육은 독서자료를 매체로 자기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 사회적 적응을 위한 독서인격의 형성을 계획적으로 원조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독서와 독서교육은 실상 다수의 문헌에서 명확한 구분없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독서교육과 독서지도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으로 혼재되어 사용한다.

특히, 국내에서 독서를 크게 교육(독서교육 및 독서지도), 교정(독서클리닉), 치료(독서치료)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거나¹⁹,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발달적, 교정적, 치료적, 임상적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²⁰, 독서교육을 통한 교정과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독서 프로그램 분야의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국내에서 도서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과 교육문화프로그램은 도서관 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문화(예술훈), 독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강좌, 활동 및 행사를 통칭하고 있다.²¹

3.2. 독서와 독서교육의 구분

독서와 독서교육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본질과 목적에서

17 한국교원대학교, 『독서 교육 사전』, 교학사, 2006.

18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2023.

19 김수경, 「독서의 본질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6.

20 공주대학교,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태일사, 2015.

21 김판준, 「국내 독서 프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과 과제」, 『정보관리학회지』 41(2), 한국정보관리학회, 2024.

차이가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개념은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발달과 학습에 기여한다.

3.2.1. 독서

독서는 텍스트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해석하는 능력 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독자가 글자를 인식하고,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며,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독서는 행위대상자가 여러 종류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대리하여 체험을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는 최고의 방법이다. 따라서 문자 언어가 발명된 이래로 현재까지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고 있다.²²

‘독서’를 ‘인격 수양, 전문 확장, 교양교육 등의 차원으로 수행하는 책 읽기’를 의미하며, ‘읽기’는 ‘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언어를 읽는 행위 등 폭넓은 행위’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²³

- ① 기본적인 독서 과정: 독서는 기본적으로 문자를 해독하는 활동이다. 여기에는 글자를 소리 내어 읽는 음운 인식에서부터,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 과정도 포함한다.
- ② 개인적 독서 경험: 독서는 매우 개인적인 활동으로, 각자 관심 있는 주제나 장르의 텍스트를 읽으며 정보를 얻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이다. 주로 자기 주도적 활동이 이루어진다.

22 노병성, 「아날로그와 디지털 텍스트의 독서 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34(1), 한국출판학회, 2008.

23 정병기, 「연구 독서의 유형과 과정 및 방법: 연구 독서 연구를 위한 시론과 새로운 독서법 제안」, 『사고와 표현』 2(2),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09.

- ③ 목적: 개인의 흥미를 충족시키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읽어 감동을 느끼거나, 기술 서적을 읽어 특정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목적이 다양할 수 있다.

3.2.2. 독서 교육

독서교육은 개인이 독서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문해력을 기르는 교육 과정이다. 이는 단순한 텍스트 해독을 넘어서, 텍스트의 구조, 맥락, 저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독자가 능동적으로 텍스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까지 포함한다.

- ① 목적: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또한, 독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 분야에서 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프로그램 및 방법론: 독서교육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초등 단계에서는 기본 해독 능력을 강조하고, 이후 중등 및 고등 단계에서는 비판적 독서기와 메타인지적 전략을 배우게 된다. 이는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학문적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 ③ 사회적 및 정서적 지원: 독서 교육은 단순한 학문적 목표 외에도 학습자의 정서적 성장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와준다. 교실에서 독서 토론이나 그룹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세계관과 공감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3.2.3. 독서와 독서 교육의 차이점

구분	독서	독서 교육
정의	텍스트를 해독하고 이해하는 개인적 활동	체계적으로 읽기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 과정
목적	정보 습득, 감정적 경험, 자기 주도적 활동	문해력, 비판적 사고, 학습 성취도 향상
방식	개인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짐	교육적 목표에 맞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
대상	일반 대중, 모든 연령대	학습자(주로 학생), 특수한 교육적 필요를 가진 그룹
중점	의미 파악, 텍스트 해석	비판적 사고, 정서적 지원, 문해력 개발

3.2.4. 독서와 독서교육의 상관관계

독서는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활동이라면, 독서교육은 그 활동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사고력과 문해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며, 독서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텍스트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게 된다.

3.3. 독서교육의 현재 상황

국내 독서 프로그램 분야의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에 부여된 저자키워드를 대상으로 주제어 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설명한다.²⁴

논문주제어 분석을 토대로 지난 22년(2001~2022년)간 독서 프로그램 분야에서 최고로 집중되어 있는 주제는 독서 치료이며, 다음 순서로 독서 프로그램, 독서 교육, 독서 치료 프로그램, 공공도서관, 독서, 청소년, 자아존중감, 독

24 김판준, 「국내 독서 프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과 과제」, 『정보관리학회지』 41(2), 한국정보관리학회,

서 토론, 독서 활동에 대한 연구가 상위 주제로 수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주요 주제로 영양력 있게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판준은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독서 프로그램의 3개분야로 나누었으며, 이는 독서 치료 프로그램, 독서 교육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구체적으로 제1영역인 독서 치료 프로그램은 주로 유아,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을 수행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으며, 제2영역인 독서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과 밀접한 독서교육과 교양교육 관련 연구가 많았다. 제3영역인 독서 프로그램 영역은 주로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과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에 기반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표 1 | 독서 프로그램 분야의 논문 군집별 지역주제, 대표 단어, 연구영역²⁵

군집	지역주제	대표 단어	연구 영역
C1	독서 치료	청소년, 스트레스, 독서치료, 유아, 정서지능, 분노, 어머니, 아동,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독서 치료 프로그램
	독서 치료 프로그램		
C2	청소년	스트레스, 그림책, 자아존중감, 아동, 장애, 공감능력, 유아, 독서프로그램, 학습, 공감	독서 치료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C3	그림책	교양교육, 어린이, 대학, 아동, 취약계층, 고전, 고전독서, 우울, 교육, 토론	독서 교육 프로그램
	초등학생		
C4	아동	독서토론,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독서지도, 독서, 자기효능감, 비교과, 진로, 읽기, 진로독서	독서 교육 프로그램
	리터러시		
C5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독서교실, 독서캠프, 문화프로그램, 읽기, 동기, 독서, 주부, 인식, 이용	독서 프로그램
	독서 교육		
C6	독서 토론	독서프로그램, 독서교실, 독서캠프, 문화프로그램, 읽기, 동기, 독서, 주부, 인식, 이용	독서 프로그램
	학교도서관		

2024.

25 김판준, 「국내 독서 프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과 과제」, 『정보관리학회지』 41(2), 한국정보관리학회, 2024, 56쪽.

3.4.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분명한 목표 아래 돌봄대상자의 수준에 적합한 독서 자료를 활용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길러줄 수 있으며, 적절한 독서방법과 전략을 적용하여 창의성과 학습능력 신장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독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발되어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독자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성공적인 독서 프로그램은 독서 기능과 전략의 사용능력에 더하여 독서 동기 측면에서의 성장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하고도 중요한 성과물들을 생산하는 것 이어야 한다.²⁶

돌봄대상자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독서 방법과 문제해결능력을 개선하고 정서적 심리적 함양을 하게 된다. 독서의 인지적 영역은 주로 텍스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잘 파악하는 지적인 작용에 대한 부분이다. 독해능력, 독해 수준, 독해기능과 전략은 인지적 영역에 있는 문제들이다. 오랫동안 독서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직결된 독서의 인지적 영역은 독서교육이나 독서 연구의 핵심이었다.²⁷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한 유형을 분류하면²⁸, 첫째로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 둘째로 학교교육 내에서의 독서교육의 방법과 성과, 셋째로 지역사회치단체 및 지역 도서관 등에서의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26 피터 애플러백, 조병영·김소현·조재윤·서수현·김종윤 역, 『독서 평가의 이해와 사용』, 한국문화사, 2010.

27 이순영·최숙기·김주환·서혁·박영민, 『독서교육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28 국내논문은 RISS에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 유형을 토대로 검색한 결과로 3가지 유형의 성과로 구분한다.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 학교교육 내에서의 독서교육의 방법과 성과, 지역사회치단체 및 지역 도서관 등에서의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등으로 구분된다.

로 나눌 수 있다.

4. 돌봄체계와 독서교육의 연계

독서교육과 돌봄체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돌봄체계에서 돌봄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독서교육의 성과는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장애인, 노인,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처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

4.1. 돌봄체계와 독서교육의 연관성

돌봄체계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특수 교육대상자 또는 노인 돌봄대상자에서 돌봄체계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 ① 특수 교육대상자에서의 돌봄: 장애 아동이나 발달 지연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독서교육에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돌보는 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보다 전문적인 학습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결합되어야 돌봄 대상자가 효과적으로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 ② 노인 돌봄과 독서교육: 노인돌봄체계에서 독서교육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독서는 노인들의 정신적 자극을 통해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돌봄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노인 돌봄 기관에서는 읽기 그룹 활동이나 개인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 지지와 함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4.2. 독서교육을 통하여 돌봄체계에 기여하는 방식

- ① 정서적 돌봄: 읽기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경험을 텍스트와 연결하게 된다. 이러한 독서교육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 돌봄체계는 대상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돕습니다. 특히, 불안 장애나 스트레스를 겪는 학생들에게 독서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② 신체적 지원: 돌봄체계의 신체적 제한이 있는 대상자들이 독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예시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책 또는 음성 텍스트 기술을 제공하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이들에게는 도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돌봄과 교육이 통합된 방식으로 학습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4.3. 통합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체계의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향으로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읽기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돌봄대상자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를 한다.

- ① 개인 맞춤형 학습: 돌봄대상자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개인화된 독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돌봄대상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② 가정과 기관의 협력: 가정에서의 독서 습관과 지역 사회 내 돌봄 기관의 지원을 결합하여, 돌봄대상자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관된 독서교육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돌봄대상자가 다양한 문헌에 접근하고, 서로 다른 독서자료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된다.
- ③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정서적 지원 요소를 포함하여, 학돌봄대상자들이 독서교육 활동 중 겪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독서 그룹 활동이나 대화 중심의 독서 수업을 통해 돌봄대상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 ④ 멘토링 시스템: 보다 숙련된 학습자나 돌봄교육자가 멘토가 되어 독서교육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돌봄대상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대상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여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⑤ 디지털 읽기 도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 도구와 자료를 제공하여, 특히 시각적 혹은 신체적 제한이 있는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전자책,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독서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⑥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온라인 독서 클럽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학습자들이 다양한 자료에 접근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독서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체계의 연계를 새롭게 접근하면, 돌봄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원받는 환경에서 독서 능력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근은 특히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집단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독서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된다.

4.4. 돌봄과 독서교육 연계 주요 사례

4.4.1.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경기도에서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6학년의 초등학교 학생과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초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독서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한다. 책놀이, 학습지도, 보드게임, 요리교실 등 다양한 종류의 독서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장점은 접근성, 안전성, 만족도가 높으며, 주 5일, 하루 5시간 운영한다.

4.4.2. 초등돌봄교실 독서 프로그램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등돌봄교실에서 학년별 수준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돌봄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 이해력 향상, 인성교육, 정서안정에 도움이 된다.

4.4.3. 대구두류도서관 돌봄 지원 프로그램

대구두류도서관에서는 교과연계 독서를 통해 학습역량을 배양하고, 책읽기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감정 표현법을 배우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돌봄대상자들의 정서회복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4.4.4. 인천시교육청북구도서관 마을돌봄학교

인천시교육청북구도서관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초등돌봄교실에 독서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마을돌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대상은 부평구 관내 초등학생의 돌봄교실이며 마을활동가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다양한 종류의 독서와 문화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지역 사회와 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배움과 돌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돌봄교실의 질적 향상은 물론 학교와 마을이 동시에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

5. 통합방안의 제시

5.1. 돌봄체계와 통합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 연계 방안

독서는 간단하고 사소한 문장의 이해에서 비롯하여 독자의 초인지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단계에서 진행되는 책과 독자의 상호작용이다. 문장만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봄대상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적인 독서가 확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고 타자의 생각을 함께 함으로써 지적이고 정서적인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인 관계를 마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독서교육프로그램은 구성주의 교수학습법을 통하여 계획하고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돌봄체계에서 돌봄자의 교육적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돌봄자인 교육자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으로의 단계적 과정을 통하여 독서가 단순한 지식 전달과 정보습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돌봄자의 지원을 통하여 돌봄대상자는 자기 관점에서 지식을 구성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돌봄체계와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성주의 교수학습이론²⁹을 토대로 Collins 등이 제시하는 인지도제이론과 Brandford의 상황적 학습이론과 Spiro의 인지적 유연성이론과 Vygotsky의 근접 발달대에서 요구되는 교육자의 역할³⁰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주의 교수학습법은 교육과정에서 학습자가 습득하는 경험과 상황을

29 김윤희,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의 이론적 탐색』, 원미사, 2001.

30 구체적 이론에 대해서는 임형연, 「韓國의公共圖書館における兒童教育的役割と兒童教育プログラムにおける構成主義教授學習モデルの設計」, 도쿄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중시하고 자기반성적 주체적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돌봄대상자의 창의성, 분석적 사고, 능동적 학습 태도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돌봄체계에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구성주의 교수학습이론에서 돌봄자인 교육자의 역할은 학습에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권위적 역할이 아니라 돌봄대상자가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존재가 아닌 간접적 조언과 도움을 통한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돌봄자인 교육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모델링(modeling)과 관찰 및 지원을 하는 코칭(coaching), 스케폴딩(scaffolding)의 지원활동 과정을 통해서 돌봄제공자의 통합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도록 역할 해야 된다.

이는 학습자에게 전문가의 문제해결 과정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방법을 분석, 평가하고 학습자 스스로 적절하게 문제해결을 수행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율적으로 정의해서 체계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독서교육이 시행되는 시점에서의 돌봄자인 교육자와 돌봄대상자의 상호 관계는, 돌봄자인 교육자에게서 돌봄대상자로의 일방적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상호협력에 의한 것이며, 돌봄대상자의 중심으로 지식습득하는 것을 인식하고 돌봄대상자의 주체적 학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돌봄자인 교육자의 역할인 모델링, 코칭, 스케폴딩에 대한 개념은 <그림 1>과 같다.

5.1.1. 모델링(modeling)

모델링은 돌봄대상자가 독서교육의 과제를 수행하고 돌봄자인 교육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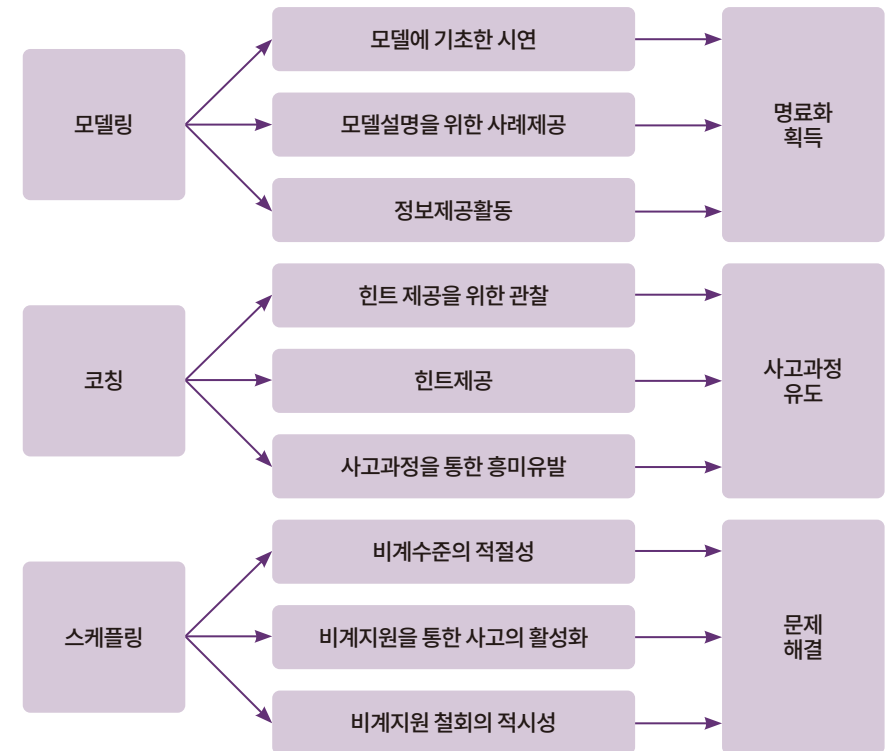


그림 1 | 독서교육프로그램의 3가지 역할 모델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돌봄대상자가 수행 과제를 관찰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돌봄의 독서교육의 책을 읽어주는 수업에서 돌봄자가 그날의 독서교육의 과제(책의 주제, 내용, 독서 후 활동)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기본 틀이다. 구성주의 교수학습법을 토대로 수업은 문제해결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 전문가인 돌봄담당 교육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시연 과정으로 모델링해서 시작된다.

모델링의 과정에 의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시받고 돌봄대상자는 관찰행위를 통해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때 돌봄자가 제공하는 기본틀에 포함된 정보, 자료, 지식, 사례, 시연 등의 모델링은 돌봄대상자의 다양하고 다면적이고 복잡한 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분석요소의 체계적 집합인 모델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돌봄대상자로 하여금 과제에 대한 명료하게 처리한 목표로 설정한다. 이러한 모델링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은 아래의 3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돌봄대상자의 이해력 제고하는 것이다.

- ① 모델을 통한 시연
- ② 모델의 자세한 설명을 위한 유사 사례의 제시
- ③ 모델에 입각한 정보제공

5.1.2. 코칭(coaching)

코칭은 학습자가 독서교육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자가 돌봄대상을 관찰하고 필요하다고 인지할 때에 적절한 힌트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코칭을 하기 위해 돌봄자인 교육자는 학습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자는 돌봄대상을 충분히 관찰하고 그들이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는지를 파악하고 돌봄대상자의 흥미를 유발시켜 일련의 사고과정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자는 돌봄대상자의 관점을 이해하며 돌봄대상자에게 상황에 맞는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한다. 결국 코칭의 궁극적 목적은 학습자를 사고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끄는 것이며, 코칭은 이를 위해 교육자가 ‘학습자를 위한 힌트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코칭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은 아래의 3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돌봄대상자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흥미유발을 이룬다.

- ① 힌트제공을 위한 관찰
- ② 힌트제공
- ③ 사고과정을 통한 흥미유발

5.1.3. 스캐폴딩(scaffolding)

스캐폴딩은 학습자가 과제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교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비계(scaffold)³¹를 지원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말한다.

돌봄대상자가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해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때, 돌봄자인 교육자는 다면적 지식을 이용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다면적 지식을 이용한 재현은 복잡하고도 규칙적이지 않은 상태의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돌봄대상자가 근접발달대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게 하여 사고의 개선과 자기조절 능력을 제고시키는 상황을 말한다.

즉, 독서교육 과제를 파편적으로 작은 단위로 나누거나, 과제의 자료들의 배치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가감하거나, 활동의 규칙을 다르게 하는 등의 비계 지원을 통해 돌봄제공자가 스스로 조절이 이루어지도록 역할 수행하도록 한다. 이는 돌봄대상자의 능력보다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비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대상자의 발달 상황과 지적 능력에 적절한 비계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원활동은 돌봄제공자의 활발한 사고 활동과 고차원적인 탐구영역을 제고시키게 된다. 이와 동시에 돌봄자인 교육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지원을 철회한다.

결국, 스캐폴딩이란 ‘비계설정을 통한 독서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서, 스캐폴딩의 최종 목적은 문제해결하는 것이다. 스캐폴딩을 위한 돌봄자인 교육자의 역할은 3단계 구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31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한다.

- ① 비계수준의 적절성, 비계의 지원이 돌봄대상자의 지적 수준에 맞는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비계 지원을 통한 사고의 활성화는 지원되는 비계가 돌봄대상자를 근접 발달대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게 하며, 사고의 개선을 통한 다면적 지식 구성과 자기조절을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비계 지원 철회의 적시성은 돌봄대상자가 교육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 지원을 바로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5.2. 돌봄체계와 통합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 필요성과 방법

독서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체계의 연계는 돌봄대상자들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고, 학습과 정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은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보려고 한다.

5.2.1. 연계의 필요성

- ① 전인적 발달 촉진: 독서교육은 돌봄대상자들의 인지적, 언어적, 정서적 발달을 돕고, 돌봄체계와 연계하여 영유아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
- ② 학습 지원: 독서교육을 통해 학습기간에 있는 돌봄대상자들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고, 돌봄체계와 연계하여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 ③ 정서적 지원: 독서교육활동은 감정적 안정감과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서 돌봄체계와 연계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킨다.

- ④ 사회적 상호작용: 독서교육프로그램과 돌봄체계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성을 배양시키게 된다.

5.2.2. 연계 방법

- ① 프로그램 통합: 독서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하나의 통합된 커리큘럼으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하루 일정 중 독서 시간과 놀이 시간을 번갈아 배치하여 돌봄대상자들이 균형 잡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자 및 돌봄자의 협력: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주요 돌봄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돌봄대상자의 학습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돌봄대상자의 발달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③ 가정과의 연계: 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가정에서도 독서와 돌봄이 연계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의 중요성을 알린다.
- ④ 다양한 독서 활동 제공: 돌봄대상자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독서 활동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림책 읽기, 독서 토론, 독서 일기 쓰기 등을 통해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독서활동과 연계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독서 후 감정 표현 활동이나, 독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역할 놀이 등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돕는다.
- ⑥ 평가 및 피드백: 독서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6. 맺는말

가족제도의 다변화로 소규모 가족의 증가되고 경제활동을 필요로 여성의 인구 증가로 양육과 보육 환경이 필요에 의한 변화가 돌봄체계의 마련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양육간의 협력을 통한 연계로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돌봄체계의 여러 영역에서 활동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돌봄의 여러유형 가운데 독서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적 요소로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적 연계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

독서를 통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타인과 사고를 공유함으로 돌봄의 가치를 높이는 시점에 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상황을 맞이하여 돌봄체계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돌봄대상자들로 하여금 책을 통한 독서의 효율적 접근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돌봄대상자들은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고 경제적이고 사회적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로 독서를 통한 단순한 지식적 접근과 정보적 접근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정서적, 정신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사회적 협력이 더욱더 절실함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한 내용은 구성주의 교수학습법에 기초하여 계획,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돌봄자인 교육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세가지 요소로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기법을 통하여 독서교육이 단순한 읽기와 지식습득이 아닌 돌봄대상자들의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 중심의 이해와 창의성, 분석적 사고, 능동적 학습 태도를 육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모델링은 분석요소의 체계적 집합인 모델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돌봄대상자로 하여금 과제에 대한 명료하게 처리한 목표로 설정한다. 이러한 모델링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은 ① 모델을 통한 시연, ② 모델의 자세한 설명을 위한 유사 사례의 제시, ③ 모델에 입각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돌봄대상자의 이해력 제고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코칭은 돌봄대상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사이, 교육자가 돌봄대상자를 관찰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힌트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코칭을 위한 돌봄자인 교육자의 역할은 ① 힌트제공을 위한 관찰, ② 힌트제공, ③ 사고과정을 위한 흥미유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캐폴딩은 '비계설정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스캐폴딩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은 ① 아동의 지적 수준에 맞는 적절한 비계 지원, ② 아동의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비계 지원, ③ 더 이상 교육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 비계 지원을 즉시 철회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돌봄의 영역에 있는 돌봄체계에 대한 이해와 독서와 연결된 독서교육을 설명하고 돌봄체계와 독서교육을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독서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다 많은 독서교육의 대안적 프로그램의 모색을 통하여 돌봄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여 돌봄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다음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질적 적용과 사례의 연구가 미흡하여 각 돌봄체계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적용을 통한 후속 사례 연구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돌봄체계의 독서교육을 통하여 돌봄대상자의 변화 상황과 사회적 적응 활동을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을 위한 잘 준비된 외부 강사가 필요하지만, 강사 섭외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고, 돌봄자가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감과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독서교육은 돌봄대상자의 지속적인 훈련과정에 있으며 구성주의 교수학습법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시 독서교육전문가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들어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통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돌봄체계의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

프로그램의 적절한 연계를 위하여 돌봄대상자(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모델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돌봄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개별화하고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로 구성된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 단체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독서교육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 구성원 간에 활발한 내용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돌봄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하여 구성원 간의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를 통한 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결국 독서를 통한 개인의 지적 추구에만 머물지 말고, 독서의 가치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고 제도적 지원과 전문가적 역량 강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공주대,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태일사, 2015.
- 김선혜,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한국초등교육』 26(4), 서울교대 초등교육연구원, 2015.
- 김희강, 『돌봄민주국가』, 박영사, 2022.
- 노병성, 「아날로그와 디지털 텍스트의 독서 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34(1), 한국출판학회, 2008.
- 버지니아 헬드,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 윤리』, 박영사, 2017.
- 에바 페더 키테이,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 이순영·최숙기·김주환·서혁·박영민, 『독서교육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 조안 C 트론트,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박영사, 2021.
- 피터 애플러백, 조병영·김소현·조재운·서수현·김종윤, 『독서 평가의 이해와 사용』, 한국문화사, 2010.
- Gilligan, C.,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Held, V.,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2006.
- Kittay, E. F.,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1998.
- Noddings, N.,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Teachers College Press, 1992.
- Tronto, J. C., *Who cares? how to reshape a democratic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2. 기타 자료

-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 초등돌봄교실 독서 프로그램
- 대구두류도서관 돌봄 지원 프로그램 . <https://lifedaegu.com/entry>
- 인천시교육청북구도서관 마을돌봄학교. <https://www.lecturenews.com>

ABSTRACT

A Study on the Linkage Method of Care System and Reading Education Program

Min, Boung-Hui _ Multicultural International School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urgent challenges within Korea's current care system by exploring how reading education can be integrated with various care domains. The objective is to propose a sustainable model that links care practices with reading education and to develop a program that supports effective and meaningful learning for care recipients.

Methods The study examines existing care systems and theoretical foundations of reading education to design an integrated program. Using modeling, coaching, and scaffolding as core instructional elements, it analyzes how these methods can support deeper understanding, creativity, analytical thinking, and active engagement among care recipients engaged in reading activities.

Conclusions The integrated program demonstrates that reading education can play a vital role in fostering self-directed understanding and reflective thinking from a care-oriented perspective. By employing structured techniques and selecting books suitable for care recipients, the study suggests that reading can be approached more effectively, contributing to both educational development and a more sustainable care system.

Keywords Care system, Care, Care democracy, Reading education, Reading education program, Constructivis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이 논문은 2024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옛이야기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의 상호 돌봄 서사

Narratives of mutual care between humans and animals in folktale stories

김경희*

국문요약 이 논문은 옛이야기 가운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상호돌봄 서사에 주목하여 그 서사 목록을 점검하여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종족 시대의 도래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개인화,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옛이야기에서 인간과 동물은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여 현대사회의 반려동물과 같은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은 그 누구보다도 상호협력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옛이야기에 나타난 상호돌봄 서사는 크게 노인의 생계를 도와주는 생계형 상호돌봄 서사, 생명을 구해 주는 목숨 구제형 상호돌봄 서사, 정서적 교감을 통한 공감형 상호돌봄 서사로 유형화하였다. 앞으로 할 인간과 동물의 상호돌봄 서사가 꽃피우길 기대한다.

핵심어 상호돌봄 서사, 옛이야기, 인간, 동물, 생계형 상호돌봄 서사, 목숨 구제형 상호돌봄 서사, 정서공감형 상호돌봄 서사

- 차례**
1. 문제제기
 2. 옛이야기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의 상호돌봄 서사 목록
 3. 옛이야기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의 상호돌봄 서사 특징
 4. 인간과 동물의 상호돌봄 서사에 대한 전망

* 가천대 문화유산역사연구소 연구교수

1. 문제 제기

‘다종족 가족’ 시대의 도래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는 전체의 15%인 312만 9000가구다. 반려동물이 사람의 일상과 관계에 깊숙이 자리를 잡으면서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질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¹ 존 벨라미 포스터는 “오늘날 생태 문제의 핵심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자본주의”로 아무리 친환경을 부르짖어도 본질적으로 자연을 착취하는 문명 체계라고 규정하고, 진정한 생태 혁명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복원해 공동체적 신진대사 체계를 추구하는 ‘생태사회혁명’이라야 한다고 주장²하였다. 이 전환은 생태계에서 인간이 맺어온 관계성의 전환이며, 이를 위해서 생태계의 원천적 관계 방식인 ‘돌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로 돌봄의 제공자이자 수혜자는 인간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에코페미니즘과 여성주의 동물학에서는 인간이 다른 생물과 자연환경을 돌보는 것이 물질적, 이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돌봄은 다른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차이를 인정하며 공통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인간의 감수성에만 국한되지 않는 상호작용과 만남에 대한 관심’이다. 이는 타자에 대한 책임성과 응답능력의 표현이자 상호관계성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돌봄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적절하고 실용적인 방식임을 인정할 때, 동물은 중요한 돌봄의 대상이자 주체가 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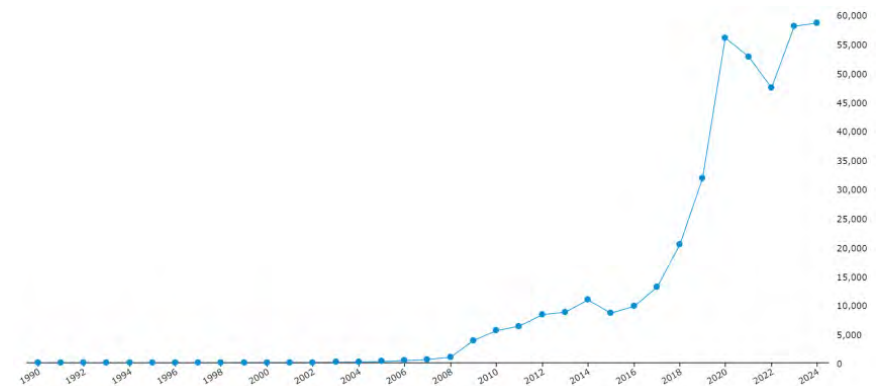
1 김지환, 「다종족 가족」의 출발, 공감대 넓혀야 푼다, 『경향신문』, 2023년 1월 25일자.

2 존 벨라미 포스터 지음 · 박종일 역, 『생태혁명』, 인간사랑, 2010.

3 주설훈, 「반려동물 보호자의 돌봄 경험: 동물 노화, 질병, 죽음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3, 24쪽.

돌봄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주안점을 둘 때,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서도 돌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돌봄’의 범주는 인간과 인간 사이만이 아닌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는 비인간동물 식물에까지 널리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표 1 | 빅카인즈 검색 1990.1.1.-2024.10.8. 돌봄 용어 빈도수



돌봄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 즈음이 2008년이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생기면서는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열 수 없게 되면서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돌봄에 대한 전체 기사가 44,000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반려동물 돌봄이 3,400여 건임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돌봄이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이다. 돌봄의 비중에서 반려동물 돌봄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인플루언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도 2019년부터인데 그 가운데 동물 인플루언서 역시 202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별히, 반려동물로 명명하게 되는 시점은 2014년을 기점으로 이 전까지

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다가 2014년 즈음부터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동물을 대하는 시점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표 2 | 빅카인즈 1990.1.1.-2024.10.8. 애완동물 용어 사용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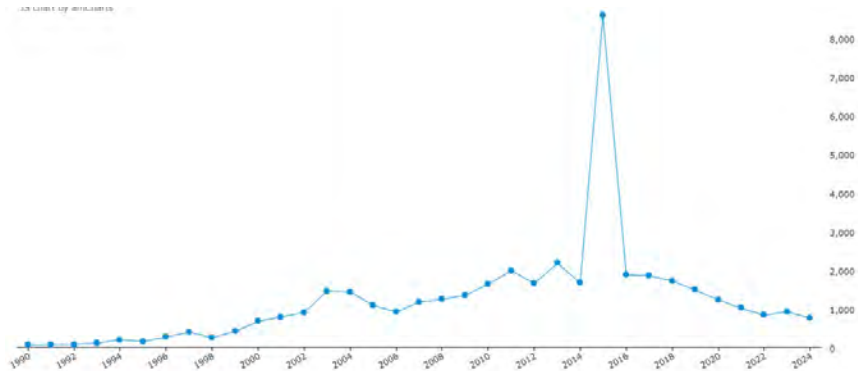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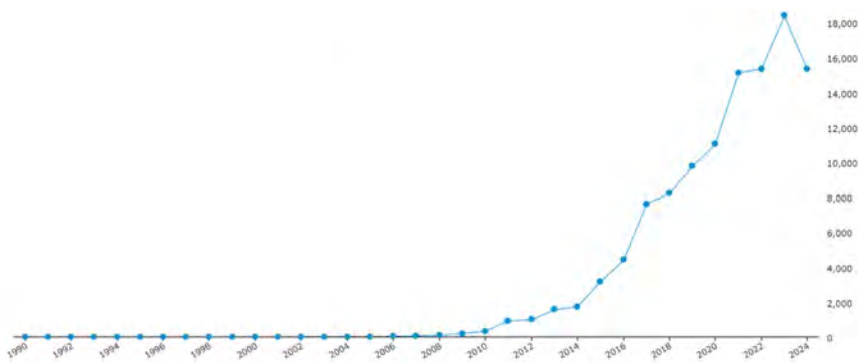


표 3 | 빅카인즈 1990.1.1.-2024.10.8. 반려동물 용어 사용 빈도수



애완동물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것”으로 동물이나 물품에 사용하는 장난감과 같은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반면에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것”을 의미하며, 반려에는 짝, 동반의 상호작용이라는 정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돌봄’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 노인, 어린이를 돌보는 행위와 행위를 강제하는 개인, 가족, 사회, 국가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돌봄이 개인과 개인 간에 또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였다면, 후기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나타난 ‘돌봄의 위기’ 현상은 더 이상 돌봄을 개인적인 관계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있다.⁴ 대다수의 돌봄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울시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반려견 놀이터,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지원, 펫위탁소 등을 운영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연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에서 상호돌봄의 관계에 주목해 보려고 한다. 상호돌봄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서로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파텔은 “자본주의는 자연과 노동력을 저렴하게 착취하면서 성장해왔다. 노동력을 더 저렴화하기 위해 저렴한 돌봄과 저렴한 식량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생명이 저렴해져야 한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려면 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케어하는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서로와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 나아가 우리 주변 세상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을 케어하며 공동으로 육아시설을 이용하는 상호돌봄으로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를 제안⁵하였다.

한국에서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노케어(老老CARE)는 건강한 어르신에게는 독거노인을 돕는 일자리를 주고, 독거노인은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

4 최영, 「돌봄권과 돌봄의 사회화」, 『월간복지동향』, 2024년 1월호.

5 최서은, 「자본주의는 비용을 감추며 성장, 상호 돌봄으로 생명 가치 되찾자」, 『경향신문』, 2023.6.28.

받는 제도”이다. 혼자 살고있는 어르신은 노노케어를 통해 주기적으로 인사와 안부를 확인받고 생활 상태를 점검받는다. 동년배 어르신과 친구가 되어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도 받을 수 있다.⁶

2024년 9월 신한카드에서는 반려동물 생애주기 맞춤 서비스를 담은 The PET 카드를 출시하였다. 이러한 산업은 아이를 돌보듯이 양육자가 반려동물의 생애 전주기를 책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돌봄’ 문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유기견’이라는 단어도 급성장하게 되었다.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반려동물 돌봄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동물은 인간을 위한 가축으로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 놓여있었다. 현대에 동물은 공장식 축산을 통해 식량자원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인간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동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여전히 동물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되고 논란도 많다. 공장식 농장에서 도축되는 농장동물, 인간의 가정에서 유사한 인격적 대우를 받는 반려동물, 공장과 실험실의 실험동물,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생동물로 나뉜다.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인간과 유사한 인격적 대우를 받고, 인간과 상호교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은 언제부터 상호교감하면서 살아온 것일까. 이에 본고에서는 선인들이 남긴 옛이야기에서 인간과 동물이 상호교감하면서 지낸 온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인간과 반려동물이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노노케어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간접적 건강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6, 6~7쪽.

2. 옛이야기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의 상호돌봄 서사 목록

서사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반려동물과 함께한 생애사 내러티브는 개인의 생애사와 반려동물의 의미, 상호작용, 동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개인의 질환이나 임종까지를 통해서 노인들의 인생에서 반려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탐색⁷하는 서사이다. 상대를 평생 돌보며 책임진다는 것은 시간과 신체적 시행착오와 적응 속에서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상호변화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동물, 인간과의 관계와 삶의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⁸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 공간, 생활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는 인간의 내러티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묘사되는 동물과의 의사소통과 공감의 순간, 공유하는 경험들, 서로를 변화시키는 상호성, 동물의 삶과 죽음이 담겨있는 서사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동물의 일생을 구성하고 기록하는 실증적 자료⁹가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가진 집단에서는 반려동물이 있다고 해서 유의미하게 삶의 만족이 증가하거나 스트레스가 감소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미하게 확인되었고, 효과 크기도 큰 편¹⁰”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상호돌봄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 실증적

7 주설아, 「반려동물 보호자의 돌봄 경험: 동물 노화, 질병, 죽음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45~49쪽.

8 위의 논문, 139쪽.

9 위의 논문, 146~147쪽.

10 이종화·손영은,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168쪽.

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생애사를 기록할 수도 있지만, 옛이야기에 담겨 있는 인간과 동물의 상호교감 사례를 통하여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연대하고 서로를 향하여 상호돌봄의 양상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상호돌봄에 주목하여 그 서사의 면모를 탐색하려고 한다.

연구 대상은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와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 옛이야기 그림책이다.

표 4 | 옛이야기목록

번호	옛이야기 제목	
1	고양이와 개의 보은	한국구전설화 1권
2	신묘한 보배	한국구전설화 1권
3	견묘쟁주	한국구비문학대계
4	신묘한 보배	한국구전설화 1권
5	개와 고양이의 구슬	깨동이 이야기 서발
6	다람쥐의 보은	조선동화대집
7	의구비(義狗碑)	한국구전설화 10권
8	오수의 개	웅진주니어
9	날파리 밤 송곳지게 멍석 지게가 도와준 할머니	한국구전설화 12권
10	나쁜 형과 착한 아우와 개	한국구전설화 8권

3. 옛이야기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의 상호돌봄 서사 특징

옛이야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인간과 동물의 상호돌봄 서사가 존재한다. 동물이 인간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상호 협력적 관

계를 유지한다. 이는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동물을 한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상호돌봄 서사의 유형을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노후의 생계를 도와주는 생계형, 목숨을 살려주는 구제형, 정서적 교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돌봄 서사로 나누어 보았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상호돌봄 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생계형 상호돌봄 서사

〈고양이와 개의 보은〉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의 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냥이(고양이)하고 개하고 인제 요새 의가 없습니다. 고냥이, 개는 개하고 고냥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거든. 근대(그런데) 고(그) 유래를 얘기할텐데 한 할머니가 자식도 없고, 영감도 없고, 개하고 괴(고양이)하고 돌을 키웠단 말이야. 그래서 고걸(그것을) 참, 자식처럼 고 사랑해 키웠거든. 그래 개하고 괴가 참 의가 좋아. 그 런기 그래 둘이 의논했어.

“야, 우리가 저 할머니 신세를 무엇으로 갚아야 되느냐?”

이래니,

“저 그 좀 갚아보자.”

그래서 저 장재집에 가서 말이야 쥐를 달개(달구어) 가지고 장재집 그 어느 벽장에 둔 보물을 하나 훔쳐 냈어요.¹¹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견묘쟁주」, 『한국구비문학대계』 1-4, 1981.

〈고양이와 개의 보은〉 이야기는 노부와 함께 사는 고양이와 개의 이야기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각편을 찾아본 결과, 노부가 아닌 혼자 사는 할머니인 경우가 많았다. 자식도 영감도 없는 할머니가 고양이와 개를 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기르자, 고양이와 개는 할머니의 은혜를 갚고자 장자네 집 보물을 훔쳐 오기로 한다. 부모는 자식을 애지중지 기르고, 자식은 성장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반포지효(反哺之孝)와 같은 효의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은 〈고양이와 개는 보은〉과 유사한 다른 동물의 보은 이야기이다.

강원도 산촌에 한 늙은 부부가 있는데, 아들 하나 딸하나가 업시 적적하게 세월을 보내며, 늙은 영감은 짚신이나 삼아서 팔고, 마누라는 이웃집의 절구질 품이나 팔아서 근근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로는 집 뒷 동산 바위틈에서 족제비 한 마리가 어린 다람쥐 한 마리를 쪼차와서 물고 가는 것을 보고 마누라가 급히 몽둥이를 가지고 족제비를 쪼차가 찌려 쫓고 다람쥐를 쫓았습니다. 다람쥐는 엇지 몹시 물렸든지 거의 죽게 되었습므로 대단히 가엾은 생각이 나서 방속 아루목 찢끗한 곳에 숨을 덥혀 두었으니 얼마 후에 회생하였습니다. 두 늙은이는 신기하게 녀어서 일로부터 도투리며 밤 갓흔 것을 갓다 먹이며 애지중지 하여 아들과 딸갓치 길넛습니다. (중략)

어느덧 두 늙은이는 점점 노쇠하여 짚신도 잘 삼지 못하고 품파리도 잘하지 못함으로 생활하기에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하로는 다람쥐들을 모다 압해 불너 안치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우리 부부가 자식이 업시 손수 노동을 하여 살아가든 처지러니, 지금와서는 근력이 업서서 잘 벌지를 못하는 까닭에 호구할 도리가 업스니 어느 결흘에 녀의들을 먹여 살니갓느냐. 인제부터는 모다 산중으로 돌아가서 다 각기 벌업거고 잘 살아라. 우리는 인제 가만이 잇다가 굴머서 죽갓다.”하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다람쥐 무리가 하나식돌식 몰녀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모다 입 속에 곡식을 한 남식 물어가지고 방 소공로 들어와서 토하야 노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몰어온 곡식을 모아노하드니, 진합태산으로 잠시 동안에 여러 말이 되었습니다. (중략)

몇 해를 살다가 병이 들어 죽게될지음에 다람쥐들에게 부탁하되 “나 죽은 후에는 뒷동산에다 무더다고” 하얏드니, 과연 그 유언과 갓치 두 늙은이가 죽은 후에 여러 다람쥐는 모다 숲허하며 뒷동산에다가 산소자리를 파서 노했습니다. 동리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매장하야 주었드니 모다 밤이며 대추며 호도와 갓흔 실과를 만히 갓다가 산소 압해 노코 제를 지낸 후에 산중으로 들어갓다합니다.¹²

〈다람쥐의 보은〉 이야기는 〈고양이와 개의 보은〉 서사보다 다람쥐와 인간의 상호돌봄의 양상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목숨을 구해 주고 자식처럼 애지중지 길러준 부부를 위해 다람쥐 가족이 곡식을 공급하고, 부부가 돌아가신 후에는 장례까지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치른다는 서사를 담고 있다. 노부부가 다 죽게 생긴 다람쥐를 살려냈다는 내용을 통하여 얼마나 극진히 다람쥐를 위해서 애쓰고 돌봐 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람쥐는 건강을 되찾고 자손을 일구어 노부부와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노부부는 늙고 병들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고 다람쥐들에게 더 이상 돌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노부부는 불쌍한 다람쥐를 보살폈고 돌봄을 받은 다람쥐 가족들은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부부를 위해 곡식을 물어다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다람쥐들은 뒷동산에 묻히고 싶다는 노부부의 유언을 받들어, 무덤 할 자리를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까지 하여 노부부의 노후를 극진히 보살폈다. 자식

12 심의린, 「다람쥐의 보은」, 『조선동화대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110~113쪽.

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노부부의 노후는 그간 지극정성으로 돌봐 온 다람쥐 가족들이 책임졌다고 할 수 있다. 노부부는 다람쥐를 돌보았고, 후에 다람쥐들이 노부부를 돌보는 상호돌봄의 형태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1926년 출판된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작품으로 옛이야기에 비해 상호돌봄의 서사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는 옛이야기에서 동화로 수록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찬자의 이야기 구성 방식이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현대 옛이야기 그림책의 〈개와 고양이의 구슬〉 내용이다.

신랑각시는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왔어. 구슬로 밥도 나오게 하고 돈도 나오게 해서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런데 도둑이 들어 도둑이 구슬을 훔쳐가고 말았어.

구슬을 도둑맞자 신랑 각시는 도로 가난뱅이가 되었어. 마침 이 집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주인들이 걱정하는 얘기를 들더니. 한술밥 먹는 식구인데 왜 걱정이 안 되겠어. 개와 고양이는 한 날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 “주인이 우릴 잘 먹여주고 길러주었으니 가만 있을 수 없잔아.” 둘은 구슬을 찾아오자면 도둑놈 집으로 갔어.

마침 신랑 각시는 개와 고양이가 하루 종일 안 보여서 걱정하고 있던 차야.

그런데 둘이 잉어까지 물고 왔으니 좋아라 했지.

“어이쿠 너희들 덕분에 배부르게 먹겠구나.”

잉어를 손질하려고 배를 갈랐더니 그 속에 잃어버린 구슬이 있어!

그 뒤로 신랑 각시는 다시 잘 먹고 잘살게 됐다는 이야기야.

개와 고양이는 어쨌냐고? 잘 얻어먹고 살았겠지, 뭐.¹³

현대 옛이야기 그림책 가운데 노부부, 혹은 독거노인이 아닌 신랑각시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옛이야기에서 주로 〈신묘한 보배〉로 알려진 작품인데, 어머니가 구렁이 알을 먹고 신랑을 낳았다. 구렁이가 신랑이 결혼하는 날 나타나서 신랑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신부가 자신은 신랑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항변한다. 구렁이가 신묘한 구슬을 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지혜 있는 신부는 구렁이를 물리치고 신묘한 구슬을 얻어서 잘 산다는 이야기이다. 그림책에서는 신행길에 나타난 구렁이가 배가 고파서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이는 옛이야기의 축약 과정에서 생긴 서사로 보인다.

신랑각시와 개와 고양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인이 우릴 잘 먹여주고 길러주었으니”라고 묘사되고 있다. 옛이야기의 서사에 담긴 “자식처럼 애지중지 길러서”라는 부분과는 달리 잘 먹이고 잘 길러주었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돌봄의 형태가 자식처럼 사랑하는 돌봄보다는 먹고 입히는 부분에 초점이 있다. 옛이야기에서 인간과 동물의 돌봄 서사가 감정을 돌보는 상호작용이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에 비해 현대 그림책에서는 의식주의 해결이 표현되었다. 한편으로는 ‘한술밥 먹는 식구’라는 점에서 자식으로서의 애지중지하는 감정은 토로가 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 목숨 구제형 상호돌봄 서사

옛날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개로 한 바리 키우고 있었는데 개를 몹시 사랑해서 이 개는 장 이 사람을 따라 댕궤다. 한 분은 이 사람이 武安장이서 술로 마이 묵고 집으로 돌아가는디 술이 너무 취해서 질가에 누버 떨어져서 잤다. 그때는 가을인디 들불이 일어나서 불이 타서 이 삶에 자는 디꺼지 타 들어왔다. 그런

13 양언주 글, 김큐택 그림, 감수 신동훈, 『개와 고양이와 구슬』, 이야기서말 깨동이, 2010.

디도 이 사람은 술에 너무 취해서 불이 타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잤다. 개는 밋 분이고 이 사람을 깨워서 불을 피하기 했겠지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불을 자꼬 타들어오고 하이께네 꼬랭이에 물을 무쳐서 이 사람에 자는 주위으 풀에 뿌려서 불이 타오지 못하게 했다. 개는 밋 분이고 물을 꼬랭이에 무쳐서 뿌리이라고 물 있는 디와 여그를 왔다 갔다 했겠지. 그러이 나중에는 지쳐서 고마 죽었다.

이 사람은 실킨 자고 일어나 보이께네 사방은 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고 있는 둘레는 타지 양코 개는 죽어 있었다. 이 사람은 그거로 보고 개는 지를 살릴라고 물을 여러 번 꼬랭이에 물을 무쳐다가 지 누어 있는 둘레에 추게서 불이 문 타게 했고 개는 지쳐서 죽은 거로 알고 개가 지를 살릴라고 충성 했구나 하고 개으 충성심에 감복하고 개로 잘 물어주고 거그다가 의구비(義狗碑)로 세웠다 세웠다 칸다.¹⁴

일명 〈오수개〉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전북 임실군의 오수(獒樹)는 ‘큰 개 오’와 ‘나무 수’의 합성어로 개 무덤 앞에 세워둔 지팡이에서 싹이 터서 자란 큰 느티나무 이름에서 유래한다고 전해진다. 어떤 사람이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개를 몹시 사랑해서 항상 같이 다니면서 돌봐 주었다. 이 사람은 장에 다녀오는 길에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들불이 나는 줄도 몰랐다. 옆에 있던 개는 주인을 구하고자 자신의 몸에 물을 적서 주인의 몸이 불에 붙지 않게 하다가 죽었다는 서사이다. 옛이야기에 주인과 개에 대한 내용은 지극히 간략하다. “개를 몹시 사랑해서 개는 이 사람을 따라다녔다.”라는 내용밖에는 없다. 그리고 개는 들불 사이에서 주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다는 것이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주인과 개의 보이지 않는 상

14 임석재, 『의구비(義狗碑)』, 『한국구전설화』 10, 평민사, 1993, 50쪽.

호돌봄의 면면들이 숨어 있다. 개는 항상 주인과 함께 생활했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개와 주인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개는 홀아비 집까지 따라왔어요. 그날부터 홀아비 집에서 살았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찮을 정도로 홀아비를 잘 따랐어요.

사람들은 홀아비를 개 아범이라고 불렀어요. 혈떡이를 자식처럼 아낀다고 말이 지요.

어느날 혈떡이가 홀아비를 마중 나왔다가 불이 난 걸 보게 되었어요. 혈떡이는 홀아비를 보고 쾅쾅 지어댔어요. 그래도 홀아비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옷자락을 물어뜯었어요.

혈떡이는 냇가로 달려가 몸을 흠뻑 적시고 홀아비 둘레를 적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숨을 혈떡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불길은 가까스로 홀아비를 돌아갔어요. 혈떡이는 홀아비 옆에 쓰러졌어요.

혈떡이는 영영 깨어나지 않았어요. 홀아비는 혈떡이를 앓고 영영 울었어요.

그곳에 지팡이를 꽂아 두었어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게 아니겠어요.

그 지팡이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되었어요. 의로운 개 혈떡이가 느티나무가 되었다고 해서 오수 즉 개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후 홀아비는 열심히 살았어요. 혈떡이가 준 두 번째 삶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¹⁵

『오수의 개』 그림책에서도 사람들이 홀아비를 개 아범이라고 부르는 점, 혈떡이를 자식처럼 돌본다는 점이 잘 서술되었다. 그림책에서는 개가 ‘혈떡 혈떡’ 거러 ‘혈떡이’라는 이름을 명명해 주고, 혈떡이가 아무도 없는 홀아비를

15 김호민 그림, 정하섭 편, 『오수의 개』, 웅진주니어, 2011.

항상 따라다녀 주변 사람들이 흠아비를 ‘개아범’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결과, 개아범과 혈떡이 사이에는 부자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옛이야기에 나타난 ‘이 사람은 개를 몹시 사랑하고 개는 이 사람을 따라다니고’라는 서사를 더 깊이있게 해석한 결과이다. 사람과 개 사이에 형성된 자식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현대의 독자에게 부자관계 서사로 명명한 것이다. 이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상호돌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살펴볼 이야기는 『팔죽할멈과 호랑이』이다. 이 작품은 〈날파리, 밤, 송곳, 지게, 명석, 지게가 도와준 할머니〉라는 이야기로 전해진다.

옛날에 할 할마씨가 팔뚝을 쪼는디 날마중 나매냥으로 날마당 쪼이께네 고단하기 짝이 없지. 그리서 고단해서 누가 이 팔뚝 쪼아주면 나 잡아가도 조오치 켜다. 그라이 참말인가고 하는 소리가 났다. “할마이 고 말이 참말인가?” 카는 소리가 났다. 그렇다 하이께 호랑이가 툭 튀어나왔다.

그리고 할매요 나 쪼아 줄거이이 다 쪼매문 잡어묵어도 좋은가 켜다. 할매는 켜다꼬 하고 호미로 내주었다. 호랑이는 호미로 퍼떡 한 고랑 쪼아놓고 있었다. 할매는 안 잡어묵고 있었다. 할매는 또 쪼매이 호랑이도 또 뺏을 쪼았다. 이렇게 여러 분 뺏 분 쪼으고 쪼으고 나서 할매로 잡어묵으라 켜다. 할매는 울면서 “호랑아 호랑아 이 뺏팔 거두어서 팔죽 끓이 묵고 잡어묵으라” 켜다. 그 뺏더이 그래라 카고 갔다.

가실이 대서 팔을 거두어서 동지날 팔죽을 한 솥 끓이놓고 팔죽 안 묵고 엉엉 울고 있었다. 날파리가 한 마리 날어오더이 할마이 와 울으우? 켜다. “오늘 지역에 호랑이가 와서 날 잡어묵는다 캐서 운다.” 켜다 카이 “나 팔죽 한 그럭 주문 살기 주우지” 켜다. “오오냐 그래 팔죽 한 그럭 주지” 카고 주이께네 날파

리는 다 묵고 날아갔다.

할매는 또 엉엉 울고 있는데, 이젠 참말로 호랑이가 왔다. “할매 할매 이제 잡어묵어도 되지.” 켜다. 이때 날파리가 날리워서 불을 켜 꺼뿌렸다. 캄캄하이 불이 나 켜 놓고 잡어 묵으라이 호랑이가 부석에 가서 불씨로 책이라고 아궁이를 뒹겼다. 밤이 불이서 툭 튀어나오서 호랑이 눈을 뺏뺏릴라 카이 송곳이 호랑이 배로 쿵 찢어서 고만 호랑이는 죽었다. 명석이 와서 호랑이로 뽏뽏 말으이께네 지게가 와서 지고 한강이다 내뺏렸다. 그리서 할매는 날파리, 밤, 송곳, 지게, 명석이 도와주어서 호랑이한테 잡히지 안해서 잘 살 수 있었다.¹⁶

할머니는 팔농사를 짓는 것이 힘이 들어 누구든지, 팔농사를 지어주면 자신을 잡아가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서 팔농사를 지어주겠다고 하고 할머니를 잡아먹겠다고 한다. 할머니는 호랑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울고만 있을 때, 집에 있는 날파리, 송곳, 명석, 지게가 할머니의 팔죽을 먹고 호랑이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날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경사회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물건들이다. 다른 각편에서는 자라가 등장하기도 한다. 살아 움직이는 사물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이 사물들은 할머니에게 팔죽을 한 그릇씩 얻어먹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호랑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인간과 동물의 상호돌봄을 초월하여 우리 주변의 사물들까지도 인간과 함께 공생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6 임석재, 「날파리, 밤, 송곳, 지게, 명석, 지게가 도와준 할머니」, 『한국구전설화』 12, 평민사, 1993, 59~61쪽.

3.3. 정서 공감형 상호돌봄 서사

옛적으 어떤 곳에 성지가 사넸디 성은 부재로 잘 삶서로 욕심이 많아서 동생네 집이 와서는 욕심나는 것이 있으면 지멋대로 가져가던지 그럼서도 지 것은 동생헌티 암것도 주지 안혔다.

어느 봄날 동생은 소를 두 마리 빌려다가 밭을 가넸디 씨를 뿌려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허고 생각험서 쟁기질험서 갈고 있넸디 난디없이 어디서 개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목에다가 씨가 들어 있넸 다랑치(바구니)를 매달고 이 사람이 갈어 논 뒤를 따라 땡김서 앞밭로 씨를 뿌리고 뒷밭로 흙을 덮고 험서 일을 도와 주었다.

점심 때가 돼서 점심을 먹게 됐넸디 이 사람은 지가 먹을 점심을 개헌티 주어서 맥였다. 개는 그 밥을 먹고 밭 옆으 길에 가서 한 숨 늘어지게 잤다. 그때 비단장시 여러 사람이 각기 비단을 말이다가 실코질 가운데에 개가 누어 자고 있잉게 이 사람보고 저 개를 좀 키워서 우리가 가게 히 돌라고 했다. 그런게 이 사람은 저 개는 보통 개가 아니고 목에 다랑치를 메고 그 안에 든 씨를 앞밭로 뿌리고 뒷밭로 흙을 덮어 주는 일을 허넸 개가 돼서 함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헐 수 없다고 했다. 비단장시덜은 이 말을 듣고 “개가 씨를 부려 주는 개가 어디 있너냐. 그런 허망헌 소리 마시오. 만일에 개가 당신 말래도 씨를 부려 주던지 허면 우리는 이 말에 실은 비단짐을 다 주리다. 그러나 그렇지 못허면 당신이 밭 갈고 있는 그 소 두 마리를 내놔야 허오” 이랬다. 동생은 그러라 허고 소 두 마리로 밭을 강게 개는 일어나서 목에다가 다랑치를 매달고 씨를 앞밭로 뿌리고 뒷밭로 흙을 덮어 주었다. 비단장시는 이것을 보고 헐 수 없이 비단짐을 말짱 이 사람헌티 주었다.(중략)

점심 때가 돼서 성은 각고 온 점심밥은 지가 호낫 다 먹고 개헌티는 주지 안

혔다. 개는 점심도 못 먹고 질것이 한가운데 가서 드러누어서 잤다. (중략)

동생은 개가 죽은 것을 보고 불상히서 그 개를 갖다가 저그 집 뒤뜰에다 잘 묻었다. 그랬더니 그 개 묻은 디서 배나무가 나더 무럭무럭 자라서 배가 열렸넸디 가을에 봉게 배는 청실밴디 이것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

성은 이것을 보고 그 개으 시체를 파다가 저그 집 뒤편에다 묻었다. 개으 무덤에서 배나무가 나서 무럭무럭 잘 자랐다. 그러더니 배가 많이 열려서 성은 종와라고 했넸디 가을이 돼서 배가 익었넸디 배는 독배가 돼서 독같이 탄탄헌 배가 떨어져서 성은 이 독배에 얻어맞어각고 죽어 버렸다고 한다.¹⁷

〈나쁜 형과 착한 아우와 개〉의 서사는 잘 알려진 〈홍부놀부〉와 같은 못된 형과 착한 아우라는 모방담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착한 아우는 씨를 뿌리면서 힘이 들어 ‘누가 씨를 뿌려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 순간 개가 나타나 씨를 뿌려주었다. 착한 동생은 이 고마운 개에게 자신의 점심을 기꺼이 나누어주고, 개가 곤한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착한 동생은 우연히 만나게 된 개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 개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개가 자신에게 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큰 돈을 벌기도 한다. 이는 착한 동생과 개 사이에 맺어진 상호돌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반면에 나쁜 형은 동생이 얻게 된 재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 개에게는 애정이 하나도 없다. 그 결과, 자신을 도와준 개에게 자신의 점심을 나누어줄 수도 없고, 잠을 자는 개를 봐줄 필요도 없다. 오직 나쁜 형은 동생이 어떻게 재산을 만들었는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형은 개와 상호돌봄이나 교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결과는 참혹하다. 오히려 형은 사람들에게 ‘씨를

17 임석재, 「나쁜 형과 착한 아우와 개」, 『한국구전설화』 8, 평민사, 1991, 52~54쪽.

뿌리는 개'라는 거짓말을 한 대가로 자신의 재산까지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나쁜 형은 개를 죽여버렸다.

동생은 개와 맺은 친밀한 상호돌봄 교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의 죽음에 슬퍼하고 애도하여 잘 물어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개를 물어준 곳에서 배가 열려, 배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쁜 형은 바로 가서 개의 시체까지 파다가 자기 집에 묻었다. 이후 열린 배는 독배로, 결국 나쁜 형은 독배에 맞아 죽게 되었다. 나쁜 형은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개와 상호돌봄이나 교감을 하지 않을 결과이다. 하지만, 착한 동생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개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개를 위해 편한한 휴식처를 제공하였다. 그것을 받은 개는 착한 동생에게 보답하였다. 착한 동생과 개가 보여준 상호돌봄의 형태는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극진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인간과 동물의 상호돌봄 서사에 대한 전망

인간이 동물의 언어를 알아듣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과 동물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상호교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 팔자가 상팔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간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도 식용이 아닌, 사랑받고 귀함을 받는 반려동물이 있었던 것임은 틀림없다. 현대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분류는 공장식 농장에서 도축되는 농장동물, 인간의 가정에서 유사한 인격적 대우를 받는 반려동물, 공장과 실험실의 실험동물,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생동물로 나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다.

'동물 인플루언서'가 나오고,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춘 카드의 등장, 펫 헬스케어, 펫푸드, 펫서비스, 펫테크까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도 성장세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Petfam)족의 증가로 펫산업규모가 커지고 동물권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인간과 동물은 앞으로 더욱 깊이 상호돌봄의 서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인간은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함께하면서 반려동물과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감정의 교감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경제적 비용, 시간, 노동력이 들어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동물권에 대한 높은 지지가 생기면서 유기견도 많아졌다. 오히려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키우는 사람이 늘었다고, 병들었다고, 키우기 어렵다고, 귀엽지 않다고 반려동물을 유기하기도 한다.

옛이야기에서 인간은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며 자식처럼 키웠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없어도, 동물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키우는 동물은 자식과 같았다. 그러니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자식에게 해줄 것이 많고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많다보니, 오히려 자식과 같은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우리가 앞으로 써 나가야 할 인간과 동물의 돌봄 서사에는 진정한 가족으로 자식의 상호돌봄 서사가 꽃피우길 바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심의린, 『조선동화대집』, 한성도서출판주식회사, 1926.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91.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s://kdp.aks.ac.kr/inde/gubi>

2. 단행본 및 논문

김지환, 「다종족 가족’의 출발, 공감대 넓혀야 푼다」, 『경향신문』, 2023.1.25.
김호민 그림, 정하섭 편, 『오수의 개』, 웅진주니어, 2011.
서정오 저, 박경진 그림, 『팔죽 할멈과 호랑이』, 보리, 1997.
양언주 글, 김규택 그림, 감수 신동훈, 『개와 고양이와 구슬』, 이야기서말 깨둥이, 2010.
이종하·손영은,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주설아, 「반려동물 보호자의 돌봄 경험: 동물 노화, 질병, 죽음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3.
존 벨라미 포스터, 박종일 역, 『생태혁명』, 인간사랑, 2010.
최서은, 「자본주의는 비용을 감추며 성장, 상호 돌봄으로 생명 가치 되찾자」, 『경향신문』, 2023.6.2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노노케어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간접적 건강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6.

ABSTRACT

Narratives of mutual care between humans and animals
in folktale stories

Kim, Kyung-Hee _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narratives of mutual care between humans and animals in traditional stories and to identify their thematic characteristics. By exploring how old tales portray humans and animals as cooperative partners and social members—much like contemporary companion animals—the study seeks to illuminate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hese relationships in a multi-ethnic, individualized era.

Methods The study reviews a range of traditional narratives featuring human-animal relationships and classifies them according to forms of mutual care. Through textual and thematic analysis, the narratives are grouped into categories reflecting livelihood assistance, life-saving interactions, and emotional or empathetic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and animals.

Conclusions The findings show that old stories depict humans and animals engaging in reciprocal care through shared labor, protection of life, and emotional connection. These narratives highlight a long-standing cultural vision of interspecies cooper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such mutual care narratives can inspire future perspectives on human-animal relationships in modern society.

Keywords Mutual care narrative, old stories, humans, animals, livelihood type mutual care narrative, life saving type mutual care narrative, emotional empathy type mutual care narrative

이 논문은 2024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한글
본문

그림책 읽기 경험과 만 5세 유아의 문해 활동 사례*

Five-Year-Olds' Literacy Practices Emerging from Picture Book Reading Experiences

오정옥**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아의 그림책 읽기 경험이 '학습'이 아닌 '놀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구성주의적 맥락에서 볼 때 유아의 성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책을 읽는 경험 역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일컬어지는 요즘 유아들이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을 읽고 수행한 여러 가지 문해활동을 소개한다.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속에서, 유아의 읽기 경험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해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향후 그림책을 넘어서 유아들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텍스트로 확장하여 그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그림책 읽기, 유아 문해력, 놀이 중심 학습, 만 5세 유아, 문해 활동

- 차례**
1. 들어가며
 2. 그림책 읽기와 놀이
 3. 만 5세 유아의 문해놀이 사례
 4. 마치며

* 이 논문은 2024년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사)한국문예원언어콘텐츠연구원 원장

1. 들어가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오늘날의 유아들은 읽고 쓰는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인류가 종이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기록문화는 진화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면을 활용한 읽기 쓰기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 영상 이미지, 음향과 음악 등 시공간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읽고 쓰는 것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유아들에게 문해의 대상과 방식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문해교육의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

문해력이란 텍스트를 다루는 능력이다. 즉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며 자기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은 텍스트의 개념 자체가 달라졌다. 고전적으로 텍스트는 책, 잡지, 신문과 같이 종이에 인쇄된 것을 말하지만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뜻하는 의사소통의 단위 즉 말, 대화, TV 프로그램, 광고, 문자 메시지, 사진, 예술작품 등과 같은 담론의 일부일 수 있다.¹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의 차원도 글, 그림, 디지털 메시지, 영상, 대화 등 평면적인 문해력이 입체적인 문해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짧은 시간의 클릭이 온전한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연관 검색어, 하이퍼링크 등을 타고 다른 정보로 이동하여 깊이 있게 읽고 자신의 지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문해력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의 단편 [바벨의 도서관]을 떠올리면 하나의 문을 열어 다른 문으로 통하는 지식의 고리가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나오미 베런은 읽기에서 텍스트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한

다. 스크린을 읽을 때는 훑고 지나기 쉽고 스마트폰을 대할 때는 인지적 수행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즉 마음가짐이 종이로 읽을 때보다 사고의 깊이가 얇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읽기의 깊이는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더욱더 견고하게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텍스트는 절대적인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비판적인 해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유아가 접하는 텍스트는 성인에 의해 선택되고, 누군가가 읽어주는 책을 듣게 된다. 어린 독자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것보다 생각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텍스트의 선택과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생각을 나누며 읽어야 한다.

읽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 과정이다. 입력 방식이 달라진 것처럼 입력된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 과정을 거쳐 말이나 글,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생산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제 쓰기는 글을 구성한다는 뜻의 작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디자인하는 일까지도 포함되었다. 어린이들의 이전에 비해 더 광범위한 텍스트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쓰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종이책을 읽고 쓰는 것과 오디오 형태의 텍스트를 읽고 쓰는 전략은 달라야 할 것이다.

나오미 베런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매체를 넘나들며 깊이 읽기를 구사할 수 있는 ‘양손잡이 문해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한다. 디지털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식습득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문해 학습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듯 두 가지 언어가 혼합되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라나는 유아들이 그림책을 읽는다는 것은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골고루 이

1 제넷 에번스, 『Literacy Moves On 읽기 쓰기의 진화: 아이들은 미디어를 어떻게 읽고 쓰고 만드는가』, 사회평론, 2011.

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ecoming Nation of Readers에서 관례적인 읽기가 가능해지기 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림책 읽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이의 읽기 능력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어릴 때부터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는 것이고 이는 전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유아의 문해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특히 유아의 경우 그림책 읽기는 누군가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는 능력, 그림을 읽는 능력, 글을 읽는 능력, 책의 디자인을 보는 능력 등 총체적으로 요구된다. 그림책을 읽기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소리 내어 읽고 말하는 오감을 활용한 복잡한 과정이다. 유아교육은 정해진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개별적인 발달, 욕구, 흥미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실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그림책을 읽는 경험은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유아의 문해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 방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례는 그림책 경험을 통한 유아의 다양한 문해 활동을 소개하여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일컬어지는 유아들에게 적합한 문해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그림책 읽기와 놀이

2.1. 그림책 읽어주기

그림책은 눈으로 보기도 하면서 글을 읽을 수도 있고 누군가 읽어주는 이

야기를 듣기에도 적합한 텍스트이다. 이러한 그림책 읽어주기는 관계를 맺기가 중요하다. 특히 어린 유아들과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어주느냐에 따라 책을 통해 만나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림책 읽어주는 것은 그 자체가 놀이가 되어야 한다. 놀이(play)의 사전적인 정의는 인간이 재미를 얻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한다. 물질적 보상 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행위이며 외부의 강제에 의한 행위도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이나 일과 구별되지만, 노동에도 유희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놀이는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규정되며, 승부와 관련 있는 놀이는 게임(game)으로 불리기도 한다 (네이버 위키백과). 그림책 읽기는 읽어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즐거운 정서를 갖고 상호작용하는 놀이가 되어야 한다. 도서관이나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물리적 장소도 책 읽는 환경으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세팅이 필요하고 접근성이 쉬우며 일상적인 활동이 된다면 유아는 책을 더 가까이하는 독자가 될 것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실 운영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유아의 주도적 놀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다. 유아에게 놀이는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다. 문해에서 놀이는 유아들이 텍스트에 대한 경험을 자기 나름의 개인적인 방식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놀이의 특성을 볼 때,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선택과 몰입, 반성이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 몰입은 시카고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¹⁾는 창의적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로 ‘몰입’을 경험한다고 한다. 몰입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느끼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는 때를 말한다. 즉 시간 왜곡 경

험을 하는 것이다. 노는 것처럼 일하라는 것은 일에 몰입을 말하는 것이고, 즐겁게 일하라는 뜻이다. 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는 태도와 능동적 자발성, 유연한 창의적 경험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발달해 나가야 한다. 지식을 가르쳐주고, 암기하고, 평가받는 것은 유아교육과 어울리지 않는다. 마치 시간과 경쟁하듯이 빨리 많이 배워야 한다는 압박을 경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을 구현한 AI의 학습 방법을 그린 것이다.²



AI 학습 방법

이 기사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경험하며 실수와 도전을 통해 학습의 수준을 능동적으로 확장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AI에게 우리가 역으로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부분이다. 특히나 유아 시기부터 놀이를 통해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며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책을 읽는 경험 또한 학습이 아닌 놀이가 되어야 한다.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할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 모든 것은 놀이적 유희와 흥미, 즐거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어야 할까?

첫째, 읽어주는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 책 읽기가 놀이적 요소를 가져온다면 자발성이 중요하다. 이 자발성은 부모나 교사가 책을 읽어주는 자체를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짐 트렐리스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보다 무엇을 사랑하고 소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을 대하는 태도에서 성인의 모습이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즐거운 독서가 몰입 독서로 이끌 것이다. 재미가 독서 활동을 즐겁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둘째, 읽어주는 사람과 유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대감을 형성한다. 소리 내어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성인과 유아가 같은 장면을 바라보며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책의 장면을 매개로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책을 읽어주는 동안의 대화는 어른의 일방적인 질문이 아니라 느낌과 생각,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호기심과 관심사, 동질감 등을 얻으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긍정적인 유대감은 유아의 독서 태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읽어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아의 참여를 유도한다. 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유아를 참여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마음에 드는 장면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 페이지씩 번갈아 읽으며 책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페이지 전환page turning시 숨바꼭질 하듯이 다음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도 있다. 유아의 특성을 살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등장인물의 행동을 따라 하며 온몸으로 그림책을 본다. 책 읽는 과정 자체가 놀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AI 학습 방법」, 『조선일보』, 2024.8.27.

넷째, 읽어주고 듣는 사람과 따듯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책 읽기는 관계 맺기의 과정이다. 책을 읽어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작가와 독자의 관계, 작품 안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 등이 있다. 관계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이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을 말한다. 관계를 맺는 과정은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 듣는 사람의 입장, 읽어주는 사람의 입장, 작가의 입장, 독자의 입장, 인물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도 노력하면서 좁혀나가는 것이다. 이때 표현은 중요한 수단이 되며 그림책 읽어주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맞추고, 표정과 몸짓으로 따듯하게 주고받는 소통이 일어나야 한다.

2.2. 구성주의적 관점의 유아기 문해 활동

문해력(literacy)이란 ‘문자와 글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읽고 쓰는 능력’으로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 외에도 다양한 능력을 기반으로 최근 문해력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³ 이러한 문해력은 유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자뿐 아니라 그림, 영상, 사물, 인간관계, 사회적 현상 등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자기의 언어로 재창조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텍스트를 해독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림책은 글과 그림 두 가지 언어를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림을 통한 시각적 정보는 글의 내용과 연계하여 그림책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한다. 이때 그림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도 하고, 글이 내용의 전반을 이끌기도 한다. 혹은 글과 그림이 서로 상호보완하는 관계에서 이야기를 구성하기도 한다. 글과 그림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휘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문자를 학습하는 방법에는 모든 학습은 경험, 반복, 습관을 만든다는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부호중심 언어교육 접근법(Code Emphasis Approach)이 있다. 언어 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의미보다는 문자 자체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 보니 너무 분석적, 논리적이어서 언어 규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반면에 총체적 언어교육 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구성주의와 상호 작용주의에 근거한다. 이 접근법은 언어 활동을 의미 이해 과정으로 구체적인 상호작용적인 놀이를 의미있는 학습활동으로 본다. 부호중심 언어교육 접근법과 달리 의미를 지닌 이야기에서 자기의 욕구와 필요를 갖고 예측 수정하는 인지과정을 경험하며 점차 작은 단위의 언어학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히 상징이 아닌 자신의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학습의 주체인 유아의 의미 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미 있는 문해 자료라면 무엇이든 학습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맛있게 먹은 과자봉지, 재미있게 들은 노래, 영화나 연극 포스터, 광고지, 길거리 표지판, 식당의 메뉴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해 자료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넘어 더 폭넓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자료는 문학작품 즉, 그림책이다. 그림책을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 교육의 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졌다. 유아 스스로 학습을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일 때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교사 유아 간, 또래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총체적 언어교육 접근법은 언어교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철자와 소리 문자를 소홀히 여겨 읽기 성취도 능력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음운 규칙의 기능적인 언어학습을

3 최나야·정수지·최지수·김효은·박상아, 『EBS 문해력 유치원』, EBS BOOKS, 2022.

병행하는 균형적인 언어교육 접근법(Balanced Language Approach)도 제안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본 그림책을 통한 문해 놀이는 비고츠키가 말한 사회적 환경의 매개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아의 발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으로 유도된다는 것이다. 교실에서 교사 자신의 경험을 시범 보이는 것은 물론 유아의 경험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삶 속에서 정서적으로 느낀 경험이 말이나 글, 그림, 무용, 이야기, 예술작품과 같은 기호체제로 탈바꿈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유아는 성장하는 것이다. 정서적 참여를 일으키는 경험이 많을수록 기대 이상의 성장을 가져온다. 이 과정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만 5세 유아의 문해놀이 사례

3.1. 관찰 놀이

사물을 관찰하는 태도는 창의적 사고의 바탕이 된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헤엄이>, <프레드릭>, <새앙쥐와 태엽쥐> 등 칼데콧상을 여러 번 수상한 네덜란드 출신 작가 레오 리오니는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있는 거장들의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놀이를 좋아했다고 한다. 레오라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피카소 등 역사적으로 창의적인 인물들의 사고하는 공통적 특성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관찰을 통해 일상을 재창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⁴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자세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4 로버트 루트벤스타인·미셸 루트벤스타인, 『생각의 탄생: 다빈치에서 파인만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도구』, 예코의서재, 2007.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의 시선을 이끄는 이미지, 영상 등과 같은 매체에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새로운 자기만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아의 창의성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주변을 관찰한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과 다르다. 그림책을 감상할 때 등장인물의 모습이나 배경에 관심을 갖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그냥 보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창의적 사고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소개되는 활동은 그냥 보는 것, 비슷한 것을 비교하는 것, 나만의 생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통해 유아가 그림책으로 기초적인 문해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다.

3.1.1. 일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해활동

유아기 풍부한 발현적 문해 경험은 이후 초등이상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는 정보를 문해활동으로 연계하여 읽고 쓰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간식을 먹을 때 과자봉지를 직접 보고 그리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얻는 경험도 좋다. 이 과정에서 광고에 필요한 요소를 발견하며, 알리고자 하는 의도 파악,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전달



광고표지를 검색해서 따라 그리기

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광고에 대한 문해력을 기르는 기초 놀이가 될 수 있다. 유아기의 문해활동은 발현적인 문해활동으로 이어질 때 의미있는 활동이 된다.

3.1.2. 그림책 등장인물 비교하기

유아는 그림책을 읽는 동안 등장인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작가가 그린 작품과 비교하며 인물의 다양한 해석으로 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빨간 모자〉의 경우 전 세계에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아래 그림은 같은 이야기를 읽고 등장인물을 그린 작품이다. 책의 이미지를 관찰하여 그대로 그리기도 하고 자기만의 해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책을 재화하는 것처럼 인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만의 생각으로 확장해 나가는 활동으로 창의적인 문해력을 기를 수 있다.



그대로 따라 그린 그림 (1) 그대로 따라 그린 그림 (2)



재해석하고 그린 그림

재해석하고 그린 그림

재해석하고 그린 그림

〈거미 아난시〉(제럴드 맥더멋 저)를 읽고 작가가 했던 것처럼 조각 종이를 이용해 거미를 만들어 본 활동이다. 도형으로 특징을 살려 표현한 작가의 의도

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거미를 만들어 본다. 빨간 모자와 달리 종이를 이용해 만든 활동은 우연히 유리창에 거미를 붙이면서 거미 전시장으로 변한다. 그리고 출입문에 거미를 붙이고 전시장 안내의 역할이라는 가상놀이로 확대된다.



작가스타일 모방하기

작품에 역할 부여하기



전시 아이디어를 얻은 우연한 발견

유리 창문을 이용한 즉석 전시회

그림책 읽기 경험이 인물의 파악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거미 전시장을 만들어 내면서 역할 놀이로 확대되는 풍부한 문해놀이가 될 수 있다.

3.1.3. 정보책에서 얻은 관찰

정보책은 사진 자료를 활용한 사실적인 그림이 많아 동물과 곤충, 탈것에

대한 정보 얻기를 좋아하는 유아들은 집중해서 책을 읽는다. 정보를 얻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보는 연습은 이후 정보를 검색하고 다루는 문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슨 일이야, 곤충?>(오무라 토모코 저)을 읽고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낀 유아가 종이컵에 쓴 활동이다. 이 유아는 평소에 쓰기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컵에 쓰기를 시도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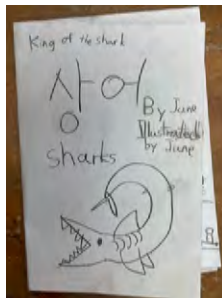


종이컵에 쓴 곤충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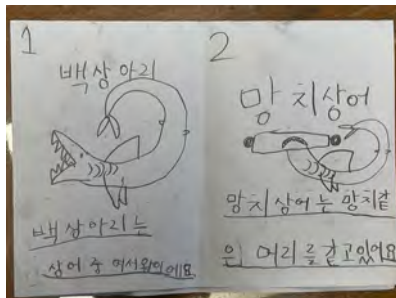


종이컵에 쓴 곤충 이름

아래 활동은 상어에 대한 정보 그림책을 읽고 만든 미니 그림책이다.



미니책 표지



미니책 본문 1~2쪽

3.2. 가상놀이를 통한 문해놀이

프랑스 그림책 작가 클로드 부종의 그림책 [아름다운 책]은 토끼 형제가 책을 발견한 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책을 읽으며 상상에 빠져 있는 동생에게 형은 이렇게 말한다. “빅토르 꿈을 꾸는 건 좋아. 하지만 책에 나오는 것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지.” 그러자 동생은 “에이 그러면 재미 없는데... 그러면 믿는 척하면서 재미있어하는 건 돼?”라고 묻는다. 유아들은 그림책을 읽으며 상상의 재미를 느끼며 책을 읽는다.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라면?’, ‘만약에~ 내가 이 공간에 있다면?’ 갖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림책을 감상하게 되고, 이것은 문학적 허구를 즐길 줄 아는 독자로 성장하는 바탕이 된다. 아래 활동은 등장인물처럼 시인이 되어보거나, 등장인물이 했던 행동을 따라 해 보면서 그 인물이 되어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3.2.1. 내가 시인이자 상상하며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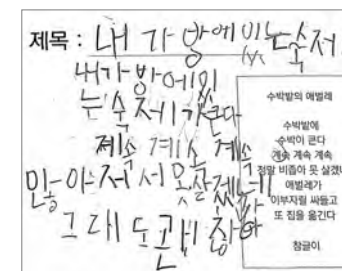
시는 간결한 문장으로 리듬감 있는 언어적 재미를 느끼게 하는 문학 장르이다. 유아들이 시를 소리 내어 읽고 암송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호박밭의 생쥐

호박밭에

호박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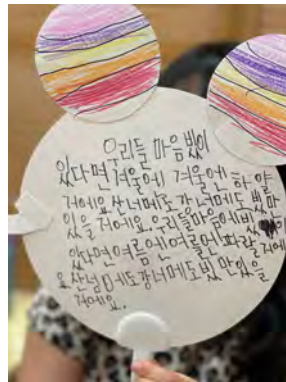
자꾸 자꾸 자꾸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쓴 시

정말
비좁아 못살겠네!
생쥐가
이부자릴 싸 들고
또 집을 옮긴다

권영상



시를 노래로 부르며 쓴 시

3.2.2. 나에게도 이런 모자가 있다면 상상하기

이 세상에 과자가 열리는 집이 있다면 어떨까? 그림책 [황금왕글의 모자] (에드워드 리어 글, 헬렌 옥스버리 그림)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과자가 열리는 나무에 살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다. 가상의 이야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동물도 진짜 생김새와는 조금 다르지만 전혀 어색함이 없다. 그래서 유아들은 쉽게 상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커다란 모자에 나도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하며 커다란 모자에 함께 들어간다. 종이로 된 모자가 진짜 황금왕글의 모자가 되는 상상을 즐기며 경험하는 활동이다.

3.3. 관습적 쓰기의 반전

유아기 문해는 발현적 문해에서 관습적인 문해로 발전해 나간다. 유아기 쓰기는 굵적거리기에서 점자 글자, 단어, 문장으로 발전해 나간다. 유아기의 쓰기는 친구나 부모, 선생님에게 편지쓰기나 글자를 모방해서 쓰기, 오류가 섞인 문장을 쓰는 경우가 많다. 즉 글자를 쓰는 것과 글쓰기가 혼합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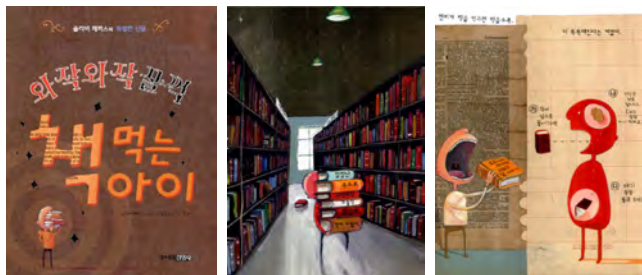


커다란 모자를 상상하고 함께 만지고 체험하기

시기이다. 또한 유아의 글쓰기는 쓰기 도구를 잡는 소근육의 발달과 관련이 있어 글자 크기, 모양, 쓰기 속도는 유아 쓰기 수준을 예측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쓰기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점차 안정적으로 관습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학령기 유아의 경우 그림표현으로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이는 그림책에서도 그림을 통해 글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크게는 글 없는 그림책일 것이다. 만화처럼 한 컷 한 컷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면을 나누고 하나의 그림이 한 문장을 말하고 있다. 그림의 서사를 읽기 좋은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글을 모르는 어린 유아들도 이러한 그림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올리버 제퍼스의 [와작와작 꿀떡 책 먹는 아이]의 경우는 글 없는 책이 아니지만, 책을 씹어먹는 아이 헨리가 책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장면을 아래와 같이 그리고 있다. 이러한 책을 본 독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연계하였다.

3.3.1. 글과 그림의 혼합

그림책의 글과 그림의 배치(layout)는 장면과 어울리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림책의 편집 디자인에서 글자체와 배치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림은 가운데 글자는 위아래에 배치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올리버 제퍼스의 <와작와작 꿀꺽 책먹는 아이>는 독서는 꼼꼼하게 생각하며 자기 것으로 소화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책 읽기가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 책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주인공 헨리가 그림책을 먹은 것처럼 조금 뜯겨져 있다. 글과 그림의 배치도 독특하다.



헨리가 들고 가는 책 등에 글이 써 있고, 헨리가 책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똑똑해진다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글과 그림은 만화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런 그림책을 감상한 후 표현한 어린이의 활동은 아래와 같다.



스토리보드에 글과 그림을
구성하는 모습

말풍선, 화면 분할로
만화형식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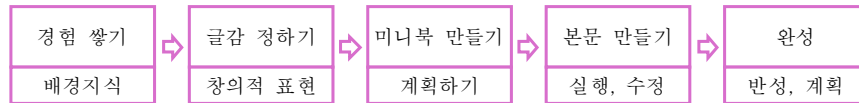
동시다발적인 인물들의
상황 표현

이 작품은 한 장면에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제 3자가 이 공간의 활동을 영상으로 찍고 짧은 시간의 사건을 정지 화면으로 연결시켜 그린 것처럼 사실적이면서 복잡하다. 마치 포털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보는 것처럼 독자가 보고 싶은 장면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 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이 진행되는 고전적인 읽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읽기가 필요하다. 유아는 그림으로 추상적인 언어와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글과 그림이 혼합되어 있는 장면은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를 복합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만화, 웹툰, 디지털 문화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4. 그림책 만들기

그림책 만들기는 작가가 되어 이야기를 쓰고 글과 그림으로 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책을 읽고 감상하는 독자에서 작가의 역할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글감 선택하기, 이야기 구성하기, 글과 그림의 배치, 본문 꾸미기, 작가 소개, 표지 만들기 등 책이 만들어지는 총체적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책을 만드는 창작의 과정은 계획, 실행, 수정, 반성 등 자신의 고를 되돌아보는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책 만드는 경험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아들이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림책을 읽고 자기 경험을 표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작가의 역할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 유아는 작가가 된다면 교사는 편집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유아가 주도적으로 구성해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주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유아의 그림책 만들기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3.4.1. 경험 쌓기

유아의 그림책 만들기는 평면과 입체를 골고루 섞어서 표현이 다양성을 이끌어 창의적 표현력의 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래 작품은 가족 캠핑을 주제로 만든 장면이다. 부모님과 텐트를 만들고, 모닥불을 켜고 음악을 들었던 좋은 경험을 한 장면으로 표현하였다.



제목: 캠핑에서 있었던 일



그림, 기호, 입체의 다양한 활용의 예

오감으로 체험한 경험을 한 장면에 여러 재료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림책을 만들 때 작가들은 회화뿐 아니라 입체적 재료를 사용하거나 사진 등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기법을 통해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더벅머리 톰〉을 읽고 등장인물 꾸미기



〈알도〉를 읽고 나만의 토끼 만들기(봉제인형)

3.4.2. 글감 고르기

그림책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주제는 '나의 꿈'이고 꿈에 대해 그린 책을 읽고 내가 되어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가 말한 것을 녹음하고 그것을 다시 글로 써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글감 정하고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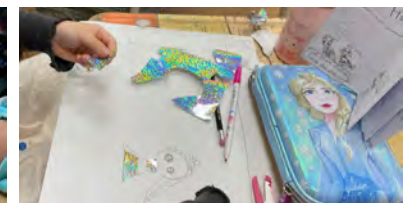
미니북 만들기: 글과 그림의 배치 계획하기

3.4.3. 미니북 만들기

글을 쓴 것을 작은 책으로 미리 만들어 계획을 한다. 글에 어울리는 그림을 구상하고 그것에 글과 그림의 배치를 계획한다.

3.4.4. 본문 완성하기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며,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 사고의 기회가 일어난다.



미니북 보면서 본문 완성하기

3.4.5. 그림책 완성

본문을 완성하면 한 장면씩 붙여서 책을 완성한다. 겉표지와 속표지를 만들고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점검하여 완성한다.



4. 마치며

그림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겉표지, 속표지, 면지, 서지사항, 본문 등을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책이다. 제목, 저자 이름, 장르 표시, 서문, 발문, 각주 등으로 주 텍스트(본문)를 보완하는 텍스트를 페라 텍스트라고 한다. 그림책 읽기는 본문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페라 텍스트까지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상호관계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인지 작용이 필요하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유아들은 종이책뿐 아니라 영상매체, 그림, 포

스터, 간판 등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컴퓨터나 휴대폰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본 사례는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을 읽은 경험이 유아의 읽기, 쓰기를 포함한 문해활동을 소개한다.

유아의 문해력은 일상 속에서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책 읽기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과 읽기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유기적인 관계뿐 아니라 표지, 면지, 그림책 테두리, 작품 표현 스타일 등 본문텍스트를 제외한 주변 텍스트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유아들은 글, 그림, 영상 등 다양해진 텍스트를 다룰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문해활동도 고전적인 방식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본 사례에서는 그림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주는 내용은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사례는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을 통해 그림책 읽기부터 문해활동까지 유아마다 개별적인 자발성, 능동성, 흥미, 욕구를 반영한 교육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발현적 문해활동으로 일상에서 관심 갖게 하는 활동,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탐색 과정을 담은 활동, 관찰과 모방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을 다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작가를 모방하고 따라 하는 활동. 현실을 바탕으로 상상력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메타인지 발달을 돕는 종합적 문해활동으로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영상, 음악, 신체적 문해력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은 제안하지 못했다.

본 사례를 참고하여 그림책뿐만 아니라 유아가 접하는 다양한 텍스트를 연구하고, 시각 문해력, 영상 문해력, 광고 문해력 등 다양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확장해 나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교육부, 『2019 개정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2019.

나오미 배런,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크로스, 2022.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다빈치에서 파인만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도구』, 예코의서재, 2007.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몰입 flow』, 한울림, 2004.

이시자, 『그림책 읽어주기와 유아의 초기 문해 능력 발달』, 『유아교육연구』 34(6), 2014.

이유나, 『만 4세 유아의 문해력 증진을 위한 언어놀이 실행연구』, 중앙대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24.

재닛 에번스, 『Literacy Moves On 읽기 쓰기의 진화: 아이들은 미디어를 어떻게 읽고 쓰고 만드는가』, 사회평론, 2011.

짐 트렐리스, 『하루 15분 책읽어주기의 힘』, 북라인, 2013.

최나야, 『취학 직전 유아의 쓰기 발달: 쓰기 운동조절 및 쓰기 표현 유형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0.

최나야·정수지·최지수·김효은·박상아, 『EBS 문해력 유치원』, EBS BOOKS, 2022.

한국보육진흥원,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 문해놀이』, 한국보육진흥원, 2023.

M. 캐스린 코너리, 베라 존 스타이너, 예나 마라노비치 세인, 『비고츠키와 창의성: 놀이, 의미 만들기, 예술에 대한 문화 역사적 접근』, 한국문화사, 2023.

ABSTRACT

Five-Year-Olds’ Literacy Practices Emerging from Picture Book Reading Experiences

Oh, Jung-Ok _ Korea Moonyewon Language Contents Institute

Objectives This study reframes picturebook reading as play rather than instruction. Grounded in constructivism, it examines how five-year-old digital-native children develop literacy through trusting, relational interactions with diverse picturebooks. The aim is to show how play-based reading supports contemporary early literacy growth.

Methods Using qualitative case analysis, the study observes five-year-olds’ spontaneous literacy behaviors during picturebook-related play. Data from observations, field notes, and interactions with print and digital picturebooks were thematically organized to reveal how children interpret narratives, use multimodal cues, and extend stories into creative play.

Conclusions The study finds that play-centered picturebook reading naturally fosters early literacy. Children develop meaning through imaginative, collaborative, and exploratory interactions. Trust-based relationships and autonomy prove essential. Extending literacy beyond picturebooks to everyday texts further enriches literacy growth within contemporary early childhood environments.

Keywords Picturebook Reading, Early Childhood Literacy, Play-Based Learning, Five-Year-Old Children, Literacy Activities

이 논문은 2024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지역 도서관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독서 환경의 재구성 방향

Strategies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Local Libraries and the Reconfiguration
of AI-Based Reading Ecosystems

윤은서*/오준호**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 도서관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AI 기술이 독서 환경과 도서관 운영 전반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AI는 자연어 기반 검색과 맞춤형 추천을 통하여 정보 탐색을 개인화하고, 챗봇이나 음성 안내 등 자동화된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독서 교육에서는 학습자 수준 분석, 토론 지원, 글쓰기 피드백 등으로 교육적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 아카이브 구축에서는 자료의 자동 분류, 시각화(視覺化), 주민 참여형 기록 생태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 이주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기술은 포용적 독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AI의 도입은 지역 도서관을 단순한 자료 보관소를 넘어서, 지식 생산, 문화 교류, 지역 공동체 형성의 중심 플랫폼으로 재정립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핵심어 지역 도서관,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개인화된 독서환경, 정보 접근성, 지역 아카이브, 문해력 교육, 포용적 독서환경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제1저자)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교신저자)

차례

1. 서론
2. AI 기술이 변화시키는 지역 도서관의 이용 환경
3. AI를 활용한 독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의 혁신
4. 지역 정보 아카이브 구축과 AI 분석의 결합
5. 정보 격차 해소와 포용적 독서환경의 확장
6. 마무리와 과제

1. 서론

지역 도서관은 지역 공동체의 지식 기반을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공공 문화기관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정보 접근권 보장과 독서문화 진흥이라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¹ 특히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학습의 공간이자,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거점으로 기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것은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그중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이러한 도서관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의 기능은 더 이상 단순한 자료 보존과 대출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AI 기술의 도입은 도서관이 지식을 ‘제공’하는 공간에서 지식을 ‘생산 및 재구성’하는 공간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²

맞춤형 추천, 자동화된 정보 탐색, 인터랙티브 독서 지원, 접근성 향상 기

1 박영숙, 「도서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역사회 플랫폼」, 『도서관』 397, 2023, 24쪽.

2 박영숙, 위의 글, 27쪽.

술 등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가능성은 독서 경험을 더욱 개별화하고 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정적인 정보 환경을 넘어, 이용자와 텍스트, 그리고 지역사회 지식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독서 환경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기본적 지식권을 보장하는 기관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학습, 문화, 정보 허브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 간 정보 격차와 문해력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의 도입은 지역 도서관이 포용적 지식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은 기술 중심의 단순 효율화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독서 경험을 심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도서관에 도입되고 있는 AI 기술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것이 지역의 독서환경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AI 시대 지역 도서관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 기술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AI 기술이 변화시키는 지역 도서관의 이용 환경

AI 기술의 도입은 지역 도서관의 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기존의 검색, 분류 체계가 기계적 정보 제공에 머물렀다면, AI는 이용자의 요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개인화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은 독서 경험뿐 아니라 도서관 운영 전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1. 개인화된 정보 탐색과 추천 환경의 구축

AI 기술은 지역 도서관의 정보 탐색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과거의 검색 시스템은 정해진 분류 체계와 키워드 일치 여부에 기반을 두고 자료를 찾아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AI 기반 검색은 문장 전체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해 더 정교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막연한 질문을 하더라도, AI는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 적합한 자료를 제시할 뿐 아니라, 관련성이 높은 추가 정보까지 연결함으로써 탐색 과정의 깊이와 폭을 동시에 확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 검색이 단순한 정보 조회에서 의미 기반 탐색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 역시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AI는 이용자의 대출 이력, 관심 분야, 독서 속도, 검색 패턴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⁴ 이것은 단순한 ‘유사 장르 추천’을 넘어, 독자의 숨겨진 취향을 예측하고 새로운 분야의 책을 소개함으로써 독서 경험의 확장을 돕는다. 예컨대 철학 서적을 읽던 이용자에게 사회학, 문학, 예술 분야의 연관 자료를 제안함으로써 인문학적 관점을 다각도로 심화하는 식이다. AI 추천은 이용자의 독서 경향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한 맞춤형 큐레이션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화된 탐색, 추천 환경은 도서관의 기능을 단순한 정보 제공 기관에서 지식 발견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기반이 된다. AI는 이용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적 관심사와 학습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지식의 ‘우연적

3 국립중앙도서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20, 122쪽.

4 박우정·노영희, 「도서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52(1), 2021, 174쪽.

발견’을 촉진하고, 독서 행위가 개별적 취향과 학습 목표에 맞춰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지원한다. 이것은 지역 도서관이 이용자 중심의 지식 플랫폼으로 재정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독서문화 생태계의 질적 확대에도 기여한다.

2.2. 안내, 상담 서비스의 자동화와 접근성 확대

AI 기반 안내, 상담 시스템은 지역 도서관의 운영 방식에 가장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에는 운영시간 문의, 자료 위치 확인, 대출, 반납 절차 안내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가 사서의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AI 챗봇은 이러한 문의에 24시간 자동으로 응답하며,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챗봇은 단순한 질문과 대답(Q&A) 응답이 아니라, 상황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추가 질문을 유도하는 상호작용적 안내까지 수행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를 높인다.⁵

음성 안내 서비스와 시각, 청각 보조 기술의 발전은 이용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장한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를 통해 음성 기반으로 도서관을 탐색할 수 있게 되면서 고령층이나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도 서비스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자동 자막 기능은 영상 자료 접근성을 높이것은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기반 안내 콘텐츠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AI 기술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접근성 확장은 도서관을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주민을 위한 보편적 공공공간으로 강화시키는 핵심 기반이다.

더 나아가 AI 번역 기술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주민 등 언어적 장벽을 가

5 박우정·노영희, 위의 글, 172쪽.

진 이용자에게 도서관 서비스 접근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도서 정보, 프로그램 안내, 행정 절차 등을 다양한 언어로 자동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 별도의 도움 없이도 도서관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도서관을 지역 사회 통합의 장으로 발전시키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한다. 결과적으로 AI 안내, 상담 시스템은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주민이 도서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만드는 핵심 기술적 기반이 된다.

2.3. 이용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환경 조성

AI 기술은 지역 도서관의 운영 방식 전반에서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정교한 환경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이용자의 이동 동선, 체류 시간, 선호 자료 유형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서관은 공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특정 구역의 혼잡도 완화나 소음 관리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조성에도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운영 방식은 도서관을 단순한 시설 관리의 차원을 넘어, 이용자 경험을 중심에 둔 공간 설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또한 AI는 이용자가 남긴 리뷰, 대출 기록, 관심 분야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큐레이션 북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을 위해 AI가 ‘생태환경 추천 도서’, ‘지역 역사 읽기 목록’, ‘청소년 진로 탐색 추천서’와 같은 맞춤형 도서 목록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동 큐레이션 기능은 사서의 전문적 큐레이션과 결합될 때 더욱 확장된 효과를 만들어내며, 도서관이 제공하는 도서 콘텐츠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큐레이션은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형성에도 의

미 있는 기여를 한다.

이처럼 AI를 통한 상호작용적 서비스 강화는 도서관을 ‘정적인 자료 보관소’가 아니라, 이용자와 함께 독서 문화를 공동 생산하는 참여적 플랫폼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용자는 단순한 자료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리뷰, 평가, 피드백이 다시 도서관의 서비스 개선과 큐레이션 구성에 반영되는 순환 구조 속에서 적극적인 주체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도서관이 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지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3. AI를 활용한 독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의 혁신

AI 기술의 확산은 지역 도서관의 독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AI는 학습자 분석, 교육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도서관이 지역 문해력 향상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3.1. 학습자 맞춤형 독서 교육의 실현

AI 기반 독서 교육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학습자 개개인의 읽기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독서 경험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 시스템은 학습자의 읽기 속도, 문장 이해도, 페이지 이동 패턴, 질문 유형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학습자의 현재 독서 능력을 정밀하게 진단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각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독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은 기존의 '일괄적 독서교육'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독서 과정 자체를 학습자 중심의 과정으로 재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⁶

특히 어린이 독서교실에서는 AI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AI는 아동의 표정 변화, 반응 시간, 특정 단락에서 머무는 시간 등을 분석해 이해도가 낮은 부분을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더 간단한 언어로 설명하거나 주요 장면을 시각 자료로 제공한다. 반대로 이해도가 높은 아동에게는 추가 배경지식, 확장 질문, 관련 도서 추천 등을 제시하여 학습의 깊이를 넓힌다. 이처럼 AI는 교사가 모든 학습자의 이해도를 균등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학습을 위한 세밀한 조정을 자동화함으로써 교육적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인다.

이러한 맞춤형 독서 지원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독서 자신감을 증진하는 중요한 교육 효과로 이어진다. 읽기 속도가 느리거나 문장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에게는 부담을 줄여 독서 지속성을 높이고, 독서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에게는 적절한 도전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성장 동기를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AI 기반 개인화 시스템은 도서관이 단순한 책의 제공처를 넘어, 학습자의 잠재력을 세밀하게 지원하는 교육 기관으로 기능하게 만들며, 지역 사회의 문해력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가능하게 한다.

6 한선관 외,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모형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2021, 99쪽.

3.2. 독서 프로그램의 심화와 학습 공동체 확장

AI 기술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독서 토론이나 독서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사전 지식 부족이나 자료 탐색의 한계로 토론의 깊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AI는 토론 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 작가의 생애와 시대적 맥락, 핵심 개념에 대한 해설 등을 자동으로 제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풍부한 지식 기반 위에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써 토론의 흐름이 단순 감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과 사회, 역사, 철학적 요소를 연결하는 심층적 논의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AI는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실시간으로 기록, 분석하여 핵심 쟁점을 정리하거나 토론 논점의 구조도를 생성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토론 후 요약된 결과물을 제공받아 내용을 다시 정리할 수 있고, 다음 모임을 위한 사전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은 사서나 프로그램 운영자가 모든 의견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며, 참가자들 간의 지식 공유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장시킨다.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은 토론의 질적 향상과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결과적으로 AI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단순한 책 읽기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지식을 공론화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학습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⁷ AI는 개인의 의견을 구조화하고 모임의 흐름을 맥락화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서로의 관점을 깊이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지역 지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허브로 기

7 한선관 외, 위의 글, 166쪽.

능하며, 독서 활동을 매개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연대와 학습 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3.3. 독서, 글쓰기 연계 교육의 강화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술은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정교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도서관의 글쓰기 교육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⁸ AI는 문장의 길이와 구조, 어휘 선택의 적절성, 문법적 오류뿐 아니라 문장 간의 연결 관계와 주제 전개의 논리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세밀한 피드백은 교사가 모든 학습자의 글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의 글쓰기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단순한 교열을 넘어 ‘생각을 글로 조직하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독서 기록장이나 서평 작성에서도 AI는 중요한 학습 도구로 기능한다. AI는 학습자가 읽은 책의 핵심 내용을 자동 요약하거나, 주요 등장 개념과 사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개념도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독해 과정을 체계화한다. 이러한 지원 기능은 독서 후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를 단순 기록이 아닌 의미 분석과 재구성의 과정으로 전환시킨다. 학습자는 요약된 내용을 비교하거나, 구조도를 참고하며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글을 작성함으로써 독해력과 사고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이 과정은 독서와 글쓰기가 상호 작용하는 학습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한다.

이처럼 AI는 독서 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하여 도서

8 송현경·심효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2(4),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519쪽.

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독서는 텍스트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글쓰기를 통해 내용이 재해석, 재구조화되며 학습자의 인지적 성장으로 이어진다. AI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교육의 균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⁹ 그 결과 지역 도서관은 책을 제공하는 장소를 넘어, 독서, 사고, 표현이 통합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종합적 문해력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4. 지역 정보 아카이브 구축과 AI 분석의 결합

지역 도서관은 오랫동안 지역사 자료를 수집, 보존, 제공하는 지역 아카이브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해 왔다. 신문, 사진, 구술 기록, 공공 문서, 문학 작품 등 다양한 자료를 축적해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경험을 형성해왔으며, 이런 자료들은 지역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특히 AI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아카이브 운영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AI를 활용한 자료 처리, 분석, 활용은 단순한 기록의 축적을 넘어 선제적 지식 생산의 장을 열어주며, 지역 도서관을 데이터 기반의 문화 지식 허브로 확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

4.1. 지역 기록물의 디지털화와 자동 메타데이터 생성

AI 기술은 지역 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기록물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존의 디지털화 작업은 인력 중심

9 한선관 외, 위의 글, 97쪽.

으로 이루어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류 체계 역시 제한적이었다. 반면 AI는 OCR(문자 인식), 이미지 분석, 음성-텍스트 변환 등을 활용해 문서, 사진, 오디오, 영상 기록을 자동으로 텍스트화하고, 제목, 키워드, 장소, 인물 등 핵심 정보를 자동 추출하여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지역 신문을 스캔한 뒤 AI가 기사 제목, 발행일, 관련 인물, 주요 사건명을 자동 분류해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옛 사진 자료에서도 건물 형태나 거리명, 행사 유형을 인식하여 분류할 수 있으며, 구술사 자료에서는 발화자의 감정, 주제, 관련 시기 등을 분석해 태그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는 기록물 누적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자료 접근성을 크게 확장한다.

4.2. 지역 자료의 패턴 분석과 지식 시각화

AI 기술은 지역 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단순히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고 지역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¹⁰ AI는 신문 기사, 행정 문서, 사진 기록, 문학 텍스트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자료를 통합해 시기별 흐름을 분석하며,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 모두를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분석은 인간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량의 데이터에서 규칙성과 관계성을 추출해, 지역 사회의 역사, 문화적 변화를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AI가 수행할 수 있는 분석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지역 인구 변화나 경제 구조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시기별 전환점을 시각화할 수 있으며, 지역 문학 텍스트에서 반복되는 감정, 주제 패턴을 찾아 특정 시기의

사회적 정서를 도출할 수도 있다. 또한 인물, 장소, 사건을 연결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나 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지역 신문 주요 키워드를 연도별로 비교해 주민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도표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데이터 기반 지역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 정체성 형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학술적, 교육적 가치를 모두 갖는다.

이처럼 AI가 생성한 시각 자료, 예를 들어 그래프, 지도 기반 사건 분포, 인물 관계망, 연도별 주제 흐름도는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도서관은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시, 강연, 출판물 제작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변화와 문화를 해석하는 ‘지식 생산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시각자료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일상과 지역 역사를 보다 깊이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돕고, 도서관을 지역 문화 교육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4.3.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 아카이브 활성화

AI 기반 아카이브 시스템은 지역 주민을 단순한 자료 이용자가 아니라, 기록 생산과 해석의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주민은 AI 검색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마을, 졸업한 학교, 동네 인물, 오래된 지명 등에 대한 기록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현재의 생활 세계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 역사, 문화 자료가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기록이 아니라, 주민이 자신의 기억과 삶을 되돌아보는 ‘살아 있는 지식’으로 기능하도록 만든다.

¹⁰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글, 80쪽.

또한 AI 기술은 주민 참여형 기록 프로젝트를 보다 확장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한다. 주민이 제공한 사진이나 일기, 구술 기록 등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하여 과거의 장소나 풍습을 시각적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는 지역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린 일상 기록이 자동으로 분류되어 지역 아카이브에 편입되거나, 주민 참여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마을별 역사 지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처럼 AI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생산된 자료를 구조화하고 확장하여, 지역의 문화적 기억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¹¹

이와 같은 순환적 구조, 주민이 기록을 생산하고, AI가 이를 정리, 분석해 다시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구조는 지역 도서관을 단순한 자료 수집 기관에서 ‘기억 공동체’의 중심으로 전환시킨다. 자동화된 자료 축적, 데이터 기반의 지역 분석, 그리고 주민 참여형 기록 활동이 결합되면서 지역 도서관은 지역의 과거를 보존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지식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AI 기술은 도서관과 지역 공동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 주민 모두가 지역 문화의 공동 창작자이자 해석자가 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5. 정보 격차 해소와 포용적 독서환경의 확장

지역 도서관은 정보 접근권 보장과 문해력 증진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공공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1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편,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 방안 연구』,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 88쪽.

최근 AI 기술은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확장시키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차별 없이 지식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독서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¹² AI의 도입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장애, 언어, 디지털 문해력 격차 등 복합적인 장벽을 해소하는 종합적 공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5.1.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AI 기반 지원 기술

AI 기술은 지역 도서관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다.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는 장애 유형에 따라 별도의 장비나 전문 인력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에, 이용자가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데 제약이 컸다. 그러나 AI는 이러한 장벽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며, 장애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동 자막 생성 기술은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청각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접근성을 제공하고, 음성 변환(Text-to-Speech) 기능은 시각 장애인이 문서나 책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청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기능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이다.

AI는 또한 텍스트 난이도 조절 기술을 통해 발달 장애인이나 노년층 등 복잡한 문장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Readable AI’로 불리는 이 기술은 긴 문장을 단순화하거나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의 이해도를 높인다. 이것은 자료 해석에 어려

12 송현경·심효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2(4),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530쪽.

움을 겪는 이용자에게 독서의 부담을 줄이고, 도서관 자료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더 나아가 도서관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학습 수준을 포용하는 교육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AI 기반 접근성 기술은 도서관이 추구하는 ‘보편적 학습 공간(Universal Learning Space)’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장애인이 별도의 차별적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AI가 제공하는 자동화된 지원 기술을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료를 탐색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공공 지식기관이 지향해야 할 평등성과 포용성의 원칙을 강화하는 실천적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도서관이 지역 사회 모두를 위한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5.2.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언어 장벽 해소

지역 사회의 다문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도서관은 다양한 언어적 요구를 수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AI 번역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AI는 한국어 자료를 이주민의 모국어로 자동 번역해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문해력이 높은 수준이 아닌 이용자도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다문화 이용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외국어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능은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내 문화 교류를 확장하는 기회를 창출한다. 과거에는 전문 번역 인력이나 다국어 서비스가 부족해 외국어 자료의 활용도가

낮았지만, AI 번역은 신속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자료가 지역 사회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다국적 작가의 문학, 해외 도시의 생활문화 보고서, 외국어로 제작된 영상 자료 등을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적 시야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더 나아가 최신 AI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텍스트의 맥락과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것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문화적 충돌을 줄여주며, 이주민이 도서관을 ‘언어적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동시에 지역 주민 역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기회를 얻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AI 기반 언어 지원은 도서관이 다문화 사회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문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

5.3. 디지털 문해력 지원과 생활 정보 접근의 확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오늘날,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곧 새로운 형태의 정보 격차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역 도서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교육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AI 기반 학습 도우미는 이러한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킨다. AI는 노년층이나 IT 취약계층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기본 기능을 익히는 과정부터, 문서 검색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 같은 생활에 밀접한 정보 기술 습득까지 단계별로 안내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AI와 결합될 때, 학

습자는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고, 도서관은 더 폭넓은 주민을 포용하게 된다.

AI 튜터의 가장 큰 강점은 학습자 맞춤형 반복 설명과 실시간 대응 능력에 있다. AI는 사용자의 이해도를 분석하여 설명을 단순화하거나, 한 번 더 설명해야 하는 부분을 감지해 즉각적으로 보완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질문하면 AI가 바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집단 교육 방식에서 놓치기 쉬운 개인별 학습 격차를 줄이것은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 기술 교육을 넘어, 주민들이 디지털 환경을 스스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서관을 지역의 복지, 교육 기능을 겸비한 현대적 공공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기반이 된다.¹³

디지털 문해력이 향상된 주민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하고, 온라인 독서 활동, 전자책 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브 탐색 등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것은 지역 사회 내 독서문화 확산과 지식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는 긍정적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결국 AI 기술은 장애인 지원, 다문화, 이주민 서비스,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라는 세 측면에서 지역 도서관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지식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독서환경’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¹⁴ 이것은 지역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대출 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평등한 지식 접근과 문화 복지의 중심 기관으로 재정립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6. 마무리와 과제

AI 기술의 도입은 지역 도서관의 정체성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자료를 열람하는 공간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지식 생산과 문화 향유, 그리고 공동체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AI는 책이라는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독서 경험을 확장시키는 핵심 매개 기술로 자리 잡았으며,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포용적 접근성 강화, 지역 기록의 분석, 재구성, 독서 교육의 혁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서관의 공공성과 교육성을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지식, 문화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중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분명하다. 무엇보다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보호, 자료 분류 오류와 같은 기술 의존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AI 시대에 요구되는 사서의 전문성 재구성도 필수적이다. 사서는 단순한 자료 관리자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이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지식 큐레이터’로 역할 전환을 해야 한다. 또한 기술 중심의 운영이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역 기록 프로젝트, 독서 공동체 활성화 등 사람 중심의 도서관 운영 전략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기술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산, 인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지역 도서관은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지식의 흐름을 창출하는 문화적 엔진으로 거듭나야 한다. AI는 효율화의 도구를 넘어,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독서 문화를 형성할 것

13 이혜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UX 기반 인포테인먼트형 대학 도서관 공간 디자인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9(3),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5, 384쪽.

1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편, 위의 글, 38쪽.

인지에 대한 방향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제이다. 미래의 지역 도서관은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책, 사람, 공동체를 새롭게 연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지식과 문화의 생산, 재해석에 참여하는 포용적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곽우정·노영희, 「도서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52(1), 2021.
- 국립중앙도서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20.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편,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 방안 연구』,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
- 박영숙, 「도서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역사회 플랫폼」, 『도서관』 397, 2023.
- 송현경·심효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2(4),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 이혜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UX 기반 인포테인먼트형 대학 도서관 공간 디자인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9(3),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5.
- 채창균 외, 『디지털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
- 최윤실, 「국회도서관 인공지능 챗봇(Chatbot) 서비스 도입 방안」, 『국회도서관』 55(4), 국회도서관, 2018.
- 한선관 외,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모형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2021.
- 허준 외, 「경기도 평생교육 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디지털과 AI」,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24.

ABSTRACT

Strategies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Local Libraries
and the Reconfiguration of AI-Based Reading Ecosystems

Yun, Eun-Seo _ Kangwon National University

Oh, Jun-Ho _ Kangwo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artificial intelligence (AI) transforms local library services by reshaping reading environments, enhancing user accessibility, and expanding the role of libraries as community-based knowledge platforms.

Methods The study reviews recent research, policy reports, and case studies on AI adoption in libraries. It analyzes AI-driven functions—including personalized search, automated guidance, digital literacy support, and regional archive development—to identify emerging patterns and implications.

Conclusions AI strengthens libraries’ public value by improving information accessibility, supporting inclusive reading environments, and enabling community participation in knowledge production. Local libraries are evolving from static repositories into interactive cultural and educational hubs.

Keywords Local Libraries; Artificial Intelligence (AI); Digital Transformation; Personalized Reading Environment; Information Accessibility; Regional Archives; Literacy Education; Inclusive Reading Environment

이 논문은 2024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우리들의
10주년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며

오길주 (학회장)

독서이론의 학술적 연구와 독서교육 및 독서 활동의 역동적 확산을 이끌어 한국 독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우리 학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독서의 학문적 영역과 현장성을 함께 아우르고 학문과 현장이 만나 상승하고 발전하자는 생각으로 10년의 시간을 달려왔다. 그간 10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독서아카고라연구>라는 이름으로 5권의 학술지를 발간했다. 크고 작은 소모임을 운영했고 워크숍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 들을 이어왔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학계의 연구자들 뿐 아니라 출판, 교육, 예술을 비롯해 방송, 문예 창작, 음악, 미술, 사회복지 등 여러 영역의 현장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하였고 대학생부터 팔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회원이 구성되었다.

학회를 만들면서 독서텍스트에 관한 연구, 독서행위에 관한 연구, 독서문화 콘텐츠에 관한 연구, 독서의 활동성에 관한 연구, 독서문화 관련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돌아보니 미흡한 영역들이 많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챙겨서 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 학회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현장 전문가들이라서 다른 학회와 비교해 볼 때는 학술적인 부분의 비중이 적은 듯한 감이 있고 이는 학술대회나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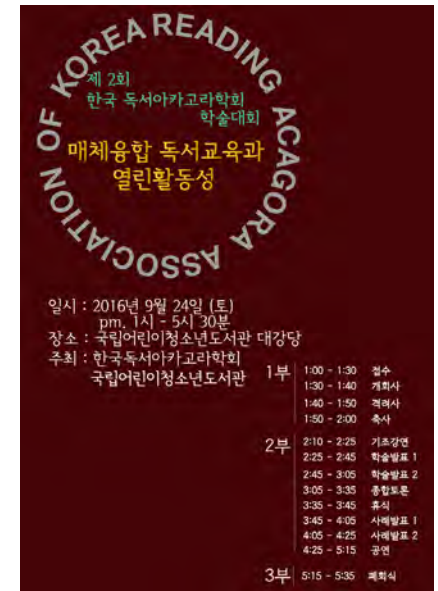
회지 발간 시 어려움을 느끼는 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차츰 우리 색깔을 입혀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 좀 더 고민하며 채워가면 될 것이다.

10년의 시간을 오면서 많은 분들이 학회회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참 귀한 일이다.

학회가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역량을 부족하지만, 무엇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 10년을 함께 온 우리 회원들이 학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하고 발전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려 한다. 이제 또 만들어갈 10년은 우리 학회가 연구와 활동면에서 그 지평을 더 넓혀 제대로 된 독서교육, 가치 있는 독서문화를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독서로 삶을 살찌우는 데 큰 힘을 보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포스터로 보는 10년





노래
방

노래 공연

장소: 경민대학교 정보도서관

시간: 2024.10.12.(토) 16:00 ~ 16:15

사회: 민상훈 (LEC)

노래: 황채영 어린이 (봉은초 2학년)



여행 온 달토끼 (작사: 윤보영/ 작곡: 문은정)

달토끼 멧토끼 쪽배를 타고
 동물의 천국 식물의 낙원
 신비한 은하수 건너 건너서
 우포늪에 왔어요
 새들이 만나고 냇물이 만나는
 생태 보물 우포늪에 앉아
 풀벌레 소리로 물결 따라
 노를 젓고 있어요
 곤히 잠든 물고기 일어날까봐
 가만 가만히 웃고 있다가
 생태누리 즐기다가 돌아간 자리
 물꽃이 피었어요

새들이 만나고 냇물이 만나는
 생태 보물 우포늪에 앉아
 풀벌레 소리로 물결 따라
 노를 젓고 있어요
 곤히 잠든 물고기 일어날까봐
 가만 가만히 웃고 있다가
 생태누리 즐기다가 돌아간 자리
 물꽃이 피었어요
 물꽃이 피었어요

모두 다 꽃이야 (작사/작곡: 류형선)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대로 피어도
 이름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대로 피어도
 이름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대로 피어도
 이름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북토크

북토크

오소리네 집 꽃밭

정승각 작가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 다 꽃이다!

장소: 경민대학교 정보도서관

시간: 2024.10.12.(토) 16:20 ~ 17:30

사회: 안남재 (오투라인 대표)

작가: 정승각



안남재 오늘 이 자리에 작가님이, 오소리네 집 꽃밭 그림책 원화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원화를 한 장씩 들고 직접 낭독을 해드리는 순서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습작을 보여드리고 원화 제작과정의 히스토리도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나서 북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관객 박수)

정승각 마이크 없이 그냥 제가 원화를 한 장씩 들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림 뒤에 글을 읽으면서 한 장씩 보여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승각 <오소리네 집 꽃밭>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회오리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진수네 밭둑에 서 있는 50년 묵은 밤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질 만큼 무서운 바람이었어요.

이런 날, 잿골 오소리 아줌마는 양지밭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불어오는 회오리바람에 테굴테굴 날려 갔어요.

오소리 아줌마는 4리나 떨어진 읍내 장터까지 가서 가까스로 멈추었어요.

“아이구, 엉덩이야!”

오소리 아줌마가 정신을 차려 보니

사람들이 와글와글 시끄럽게 떠들며 온갖 물건을 사고팔고 있었어요.

고무신도 팔고 운동화도 팔고, 반바지도 팔고 사탕도 팔고 떡도 팔았어요.

오소리 아줌마는 실컷 구경을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한테 들길까 봐 얼른 달아났어요.

마침 굴러 온 쪽에서 풍기는 오소리 냄새 때문에

집으로 가는 길을 금방 찾아 냈어요.

시장 모퉁이를 돌고 골목길을 빠져 나와 조금 가다 보니 학교가 있었어요.

오소리 아줌마는 갈 길이 바빴지만 울타리 사이로 학교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어머나, 예뻐라.”

운동장 둘레에 예쁜 꽃밭이 있었어요. 봉숭아, 채송화, 접시꽃, 나리꽃
오소리 아줌마는 이름조차 모르는 꽃들이 가지가지로 많이 피어 있었어요.

“나도 집에 가서 예쁜 꽃밭을 만들어야지.”

오소리 아줌마는 혼자말을 하며 잿골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소리 아저씨는 잔뜩 걱정을 하며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오우?”

“저, 읍내장에 다녀왔어요.”

“당신, 아까 회오리바람에 날려 갔잖소?”

“아니에요, 제 발로 걸어서 여기저기 구경했는 걸요.”

오소리 아줌마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바람에 날려 갔던 게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그리고는 서둘러 말했어요.

“우리도 꽃밭 만들어요.”

“갑자기 무슨 꽃밭을 만들자는 거요?”

“그냥 예쁜 꽃밭이요.”

오소리 아저씨는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팽이로 밭을 일구었어요.

“영차!”

“아니, 여보! 그건 패랭이꽃이잖아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 아줌마는 봉오리가 맺힌 패랭이꽃을 쫓까 봐 황급히 아저씨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소리 아저씨는 다른 쪽으로 돌아서서 팽이를 번쩍 들었다가,

“영차!”하고 땅을 쪼았어요.

“에구머니! 그건 잔대꽃이잖아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 아저씨는 조금 비켜 나와

“영차!”하고 땅을 쪼았어요.

“안 돼요!” 그건 용담꽃이에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 아저씨는 이젠 어느 쪽에서 팽이질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대체 꽃밭을 어디다 만들자는 거요?”

“꽃이 안 핀 데를 찾아보세요.”

“여기도 저기도 다 꽃인데, 어디 틈난 데가 있어야지.”

그러고 보니 오소리 아줌마도 할 말이 없었어요.

오소리네 집 둘레엔 온갖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으니까요.

모두 그대로 꽃밭이었어요.

잔대꽃, 도라지꽃, 용담꽃, 패랭이꽃…….”

“우리 집 둘레엔 일부러 꽃밭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천으로 피었구려.”

“그건 그래요. 이른 봄부터 진달래랑 개나리랑

늦가을 신국화까지 피고 지고 또 피니까요.”

“겨울이면 하얀 눈꽃이 온 산 가득히 피는 것 잊었소?”

“정말 그러네요. 호호호호…….”

“하하하하하하…….”

오소리 아줌마와 아저씨는 즐겁게 웃었어요.

오소리네 집 산비탈에 핀 꽃들도 모두 “하하하, 호호호!” 웃었어요.

안남재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림책 원화를 어떻게 그렸는지 이야기해 주
시겠습니다.

정승각 아, 이거는 망친 그림들, 습작들입니다. 제가 <강아지똥>그림책이 나
오고, 바로 이어서 <오소리네 집 꽃밭> 그림작업을 진행해서 마감을
했어요.

얼마뒤 출판사에서 교정지를 냈다는 연락을 받았지요. 교정지는 이제
인쇄기 돌리기 전에 색이 제대로 나왔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가서 보니까 너무나 끔찍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릴 땐 몰라요. 거기에 몰입해 가지고, 그런데 빠져나와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오소리네 아줌마는 원피스 입고 있었고요. 그냥 마냥 꽃밭 만들라고
조르기만 하는 아줌마로 그린 거죠. 글을 제대로 해석도 못한 그런 상
태가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편집책임자에게 말했지요. “다시 그려야 되겠어요. 죄송
합니다.” 꽃밭이, 진짜 꽃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취재하는 방식
으로 그려 가지고는 권정생 선생님의 이 글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하겠
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 가지고 외가가 있었던 충주로 겨울이사를
했어요.

봄이 되면서 보니까 동화에 나오는 배경들이 눈에 조금씩 들어오더라
구요. 그리고 강원도 진부에서 들꽃을 노지 재배하시는 농부님 도움
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장면은 제가 노지 재배하시는 분들 도움
을 받아 가지고 그렸어요. 이건 잔대꽃이에요. 이건 용담꽃이고 이건
도라지꽃입니다. 이런 용담꽃이나 잔대꽃은 민들레 피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 중턱쯤 올라가야 보이고요. 식물도감들고 가서 찾아도
보이지도 않아요. 게다가 가을 들꽃은 아주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여리
고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등장인물 오소리는 동물원에 가서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애네들이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자고 있어요. 잠깐 깼다가도 두리번거리다가
또 자요.

그런 모습들을 얼른 사진도 찍고 스케치도 해갖고 와요. 이런 그림자
료를 바탕으로 의인화해서 주인공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옷을



그림 1

입혀 봐요.

이렇게 런닝도 입혀보고 머플러도 둘러보게 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오소리 아줌마, 아저씨를 그려보는 겁니다.

시골로 내려왔지만 제가 뭐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그래서 봄에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흉내 내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는 호미를 들고, 저는 팽이를 들고 흉내를 내다보니까 앞집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관객 웃음)

정승각 그래서 당신이 입고 있던 그 몸빼라는 옷 있잖아요. 이 일옷을 획 던지면서 “그렇게 입고 무슨 일을 해!”

아내가 그 일옷을 딱 입는 순간에 오소리 아줌마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어쭙지 않은 팽이질을 하면서 오소리 아저씨가 돼버렸



그림 2

어요.

오소리 아줌마가 사십 리나 멀리 날아가지고 장터에 툇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리기 위해서 아내한테 장롱에 올라 가지고 이불을 깔아놓고 좀 떨어져 보라고 졸라요.

(관객 웃음)

정승각 아내가 막 떨어지는 흉내를 내면서 “아이쿠, 엉덩이야!” 이럴 때 그런 모습을 얼른 그리고, 학교 측백나무 울타리 사이로 학교 꽃밭 구경하는 거는 제 아들 녀석이 모델을 해줘요. 폴라로이드 사진 있잖아요. 그걸로 울타리 구멍으로 꽃밭 구경하는 모습을 찍어 스케치를 하는 거

쥬.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나도 꽃밭을 만들어야지.” 장면을 위한 그림 형식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림 3

이거는 약간 민화적인 풍으로 그려본 거고요, 이게 먼저 말씀드린 원
피스 입고 뛰어가는 오소리 아줌마예요. 최종 밑그림이 이거예요.
이렇게 먼저 그렸던 그림은 채색도 다 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 가
지고 포기하고 시골로 이사 와서 이렇게 나온 거죠.

정승각 다음 보겠습니다. 회오리바람에 오소리 아줌마가 날려가는 장면입
니다.

삼베천에다 그려본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종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실험을 하는 거죠. 어떤 게 좋은지, 회오리바람에 날려가
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림 4

정승각 이렇게 다시 작업해서 나온 <오소리네 집 꽃밭>을 들고 청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가족 독서 캠프에 초대를 받아 간 일이 있어

요. 먼저 <아빠하고 나하고> 동요를 불렀어요. 그리고 <오소리네 집 꽃밭>을 엄마와 딸이 함께 역할을 맡아 읽어주었어요. 그 다음엔 가족들 중에서 보고 들은 소감을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5살짜리 꼬마가 번쩍 손들고 나오더니 그냥 한마디만 해요.

“꽃이 참 예뻐요.” 이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전부 박수 치고 좋아해요.

이렇게 순서를 쭉 거치면서 맨 마지막에 한 아빠가 나왔어요. 마치 고백하듯이 고해성사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원에 있는 시골 학교에 전학 온 것은 우리 애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였다. 그래서 나는 주말에 한 번 시골집에 아이들을 보러 오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 잔다. 아이들은 아빠가 왔다고 막 놀자고 조른다. 그러면 난 귀찮아 가지고 짜증도 내고 화를 냈다. 그런데 오늘 <오소리네 집과 꽃밭>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아이가 사랑스럽고 신기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 사는 데 찌들려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가장 귀한 게 있는데 다가오는 내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듬어주지도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모인 가족들이 다 울었어요. ‘아, 이게 은혜고 성령 충만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관객 박수)

정승각 그 다음이 제 순서였어요. 저는 오늘 보여드리는 습작들 망친 그림들을 보여드렸죠. ‘당장은 잘 안되고 망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원하는 그림을 찾을 수 있더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가족들이 모여 그림책을 읽고, 돌아가면서 느낀 소감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지만, 그림책작가 입장에서는 라이브로, 있는 그대로 독자들이 느낀 점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어서 자극도 되고 보람된 마음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오늘 학술회의 주제도 돌봄이라는 주제여서 오늘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관객 박수)

안남재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담고 제 개인적인 마음도 같이 담아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 그림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강아지똥의 그림 작가이신 정승각 선생님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박수 안 치세요?

(관객 박수)

안남재 좀 전에 ‘아버지 에피소드’ 말씀하신 게 저희 1부 주제하고 2부 주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일부 주제는 돌봄의 사회성에 대한, 사회적 돌봄에 대한 얘기였다면 지금 이제 2부 북토크로 넘어왔는데 <강아지똥>도 사실 보면 돌보아주지 않는 것들에 대한 돌봄이잖아요.

‘강아지똥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결국 민들레 꽃을 피워내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또 〈오소리네 집 꽃밭〉도 마찬가지로 ‘결국 돌봐야 하는 소중한 것들은 내 주변 가까운 데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 에피소드’로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도 돌봄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작가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이 〈오소리네 집 꽃밭〉이라든가 〈강아지똥〉이라든가 우리 권정생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사가 있으면 거기에 곡을 입히는 건 청각적 그런 과정을 청각화시키는 거고 또, 권정생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시키는데 또 다른 창작의 과정이잖아요. 그 이야기만 있었을 때 이제 작가로서 그림 작가로서 창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주안점에 두고 창작 과정은 어떤 건지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정승각 대학 졸업할 무렵, 어린이도서연구회를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어린이 문학의 계보라 그럴까요? 그 맥락을 짚어 가면서 권정생 선생님의 문학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 제가 작업한 거는 사실은 권정생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쓴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시집을 위한 시화였어요. 그 시집 초판에는 시화가 없이 나왔어요. 표지 그림만 있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시집 뒤표지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시화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당선이면 재판을 낼 때, 그림을 실어 주겠다, 그리고 전속 작가로 예우를 해주겠다. 당선작 상금도 있었어요.

대학졸업 하던 해 10월 말이 마감이었어요. 서양화를 배운 저로서는 시화 그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사물을 재현하는 방식으로는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권정생 선생님 시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외삼촌 댁이 있는 충주로 내려가서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일을 돕고 밤에는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스케치를 해서 준비한 시화로 10월 마감에 출품을 했고, 그게 당선이 됐어요. 하지만 그 이듬해에 저의 책이 나올 줄 알고 잔뜩 기대했는데 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알아보니 그림 없는 초판 시집이 다 팔려야 재판을 내겠다는 거예요.

(관객 웃음)

정승각 그래서 제가 그때 얼른 포기했어요. 언제인지 기다릴 수 없어서, 여러 출판사에 그림 그린 거, 포토폴리오 들고 다니면서 출판일을 받으려고 다녔어요. 그래서 조금씩 출판미술 일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권정생 선생님의 시를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권정생 선생님의 글을 어떻게든지 그림책으로 좀 표현해 봐야 되겠다 꿈을 갖게 된 것이 ‘강아지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적인 정서를 어떻게 내가 시각적으로 선, 색, 형으로 표현하느냐 그래서 그런 공부를 했죠. 오천 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많은 조형예술 자료들이 있어요. 다만 학교 교육받으면서 일절 그걸 배운 적이 없을 뿐,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공부를 해보니까 의외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펴냈고 글자만이 아니라 그림도 많았어요.

고려시대 ‘어제비장전’이나 ‘변상도’같은 목판화를 보면서 놀랐어요.
우리네 그림들을 모방하고 녹여내서 조금씩 ‘내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 거죠.

안남재 이제 서양화를 전공하셨는데 실제 『강아지 똥』이나 『오소리 네 집 꽃
밭』도 보면 수묵화 같기도 하고 판화 느낌, 80년대 판화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한국화 쪽으로 표현을 하시려고.

정승각 그렇습니다.

안남재 네, 그러면 ‘이 스토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서양화보다는 저희 한
국화 쪽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정승각 그래서 시집〈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시화는 목판화로 제작을 했
어요. 단행본으로 〈강아지똥〉그림책을 하고 싶어서 기획안을 들고 출
판사를 찾아 다녔는데 될 듯 될 듯하면서 계약이 안 되더라고요.

‘인지도가 없어 그러나?’

그래서 고구려 벽화에서부터 불화 조선 민화에 이르기까지 공부한 거
를 압축해서, 옛이야기를 새로 쓰고 그린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그
림책 단행본을 초방 책방의 도움을 받아서 출판했어요.

바로 그 이듬해,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온 분이 자기 공유 공간이 생겼
다고 놀러오라 그래요. 가서 지금처럼 얘기를 했어요.

“전 ‘강아지똥’기획안 들고 다녔는데 몇 년째 허탕입니다.” 멀찌감치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던 안경 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

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틀 후에 권정생 선생님을 그 편집자와 찾아뵙고 계약을
해서 일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 그림책 〈강아지똥〉원고는 한 라디오 방송 주최 동화구연대회에
서 최고상을 받은 구연 동화체로 고친 글이었어요. 그 구연체 원고로
원화를 다 그렸어요.

편집진이 보강된 출판사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구연체로 고친
글과 권정생 선생님의 원작이 너무 다르다. 글 냄새도 다르고 맛도 틀
리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똥〉은 김
영현 소설가가 재화한 글에 판화가 이철수 판화로 그림을 올려 웅진
‘어린이 마을’ 전집 12월치에 들어 있었어요. 큰 회사에서 제작한 책에
도 권정생 선생님 손으로 고친 글이 아니었는데, 신생 출판사에서 직
접 고치신 글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전집에서 벗어난 단행본으로 그림책 〈강아지똥〉을 꼭 내고 싶은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연동화체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출판사
에서 선생님이 쓰신 원작 글하고 너무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뜸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하지 뭐.” 이러시더라
고요.

이틀쯤 지났는지, 직접 쓰신 원고를 써서 보내 주셨어요. 하얀색 우편
편지봉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강아지똥’ 원고만 있는 게 아니고 ‘오소리네 집 꽃밭’, ‘황소 아저씨’까
지 200자 원고지에 써서 접어 넣었으니 편지봉투가 터지지 않은 게 다

행이었지요. <강아지똥>원고를 열어보는 순간에 ‘아, 이거 다시 그려야 되겠다! 전부 다시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남재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쭙보고 여기 계신 분들 질문도 받아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책에 있는 그림을 보는 거 하고 원화를 직접 보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원화는 전체 작품인데 인쇄된 그림책은 위아래 양 옆이 잘려진 형태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강아지똥> 원화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그림 중에서 이 페이지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페이지하고 여기 마지막에 여러 가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이 장면이 제일 저는 이제 원픽으로 뽑았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직접 그리시면서 ‘제일 애를 많이 썼다.’ 또는 ‘심혈을 기울였다.’ 혹은 본인이 꿈으시는 제일 멋진 그림 원픽이 있으신지, 어느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원픽, 요즘 쓰는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정승각 처음에 원피스 입은 오소리아줌마 그렸다 그랬잖아요.

학교 꽃밭 아름다운 거 보고 영문도 모르는 남편한테 무조건대고 꽃밭 만들자면서 그냥 막 졸라대는 그런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 이사해서 살아보니까 밭일은 아주머니들이 다 하는 거 같았어요.

아저씨들은 뭐 기계로 일한다치면 아주머니들은 쪼그린 채 호미들고 김매고 복돋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꽃밭 만들자고 오소리아저씨 등 떠미는 오소리아줌마 손에 호미를 들리고, 여기 패랭이꽃 향내를 맡고있는 오소리아줌마 왼쪽,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호미를 그렸어요. 동화 원작에는 그냥 아저씨 팽이질만 나오지만, 현장에 들어가서 나름 알아낸 것이어서 이 장면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림 5

안남재 저 그림책 모임을 하면서 이제 오길주 교수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림책에서 그냥 그림은 글을 뒷받침하는 배경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좋은 그림책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림이 또 하나의 창작이고 그림 이야기 못지않게 이 두 작품이 잘 만나야 좋은 그림책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결국은 <강아지 똥>이나 <오소리네 집 꽃밭> 이런 또 <황소 아저씨> 또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책들도 모두 선생님의 멋진 그림 창작이 권정생 선생님의 글과 글맛을 한껏 살려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1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 그려야겠다.’ 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예전에 그리셨던 그림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승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버릴 건 버리지만, 밑그림도 챙겨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평화그림책 <춘희는 아기란다>작업 때문에 일본을 한 3년에 걸쳐 봄철에 취재하고 스케치했어요. 원폭 2세 피해자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경기도립미술관 학예연구원이 와서 밑그림을 보더니 “독자들은 너무 완성된 것만 본다.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밑그림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참석자1 감사합니다.

안남재 오늘 돌봄인데 망친 그림마저도 돌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석자2 강아지 똥을 그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리셨는지 궁금해요.

정승각 ‘강아지똥’을 그리는 데 잘 안 돼요. 여전히 그리려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산문이든 뭐 이런 걸 다 보죠.

이렇게면 권 선생님이 당시에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기도 하

고, 보리밥 세 칸으로 나눠 드시면서 글을 쓰셨고, 온몸은 막 고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내가 이 글을 쓰고나면 ‘아, 이제 내가 죽겠지.’ 이러고 그 글을 쓰시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강아지똥’이 권정생 선생님 자신을 표현한거라 봤어요.

거지처럼 뒹굴면서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이렇게 산문 제목을 붙일 정도인데, ‘내가 표현할 수 있나?’했어요.

선생님이 직접 고쳐주신 글을 보니, 온몸으로 쓰신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업실이 있던 집 때문에 강아지가 눈 똥을 자세히 살펴보니깐, 꼭 조그만 인형처럼 사람모양으로 보였어요. 그러다 떠오르는 말이 마치 ‘화두’ 같았어요.

‘나는 강아지 똥이다’ 잊어버릴까봐 얼른 표어처럼 써서 벽에 붙였어요.

강아지똥이 된 것처럼 보고 생각해야지.

이렇게면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어요.’장면을 먼저 그리기보다, 비 오는 날 강아지똥처럼 나가서 저도 비를 맞아봤어요. 강아지똥은 사흘 동안 비를 맞았지만, 저는 잠시 맞았는데도 온몸이 다 젖더라고요. 비를 피해 방으로 들어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물감 그릇을 보니까 저절로 색이 쭉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권 선생님이 온몸으로 보고 쓰신다했는데 예를 더 들어 볼게요. 먼저 눈에 보이듯이 쓰는 글, 시각적인 글인데요. ‘돌이네 강아지 흰둥이가 똥을 똥어. 골목길 담 밑 구석 쪽이에요.’ 동화의 배경이 되는 공간과 등장인물 흰둥이가 똥을 어디다 똥는지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묘

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가다가 내려앉더니 아 지똥을 콧속으로 쏘면서 “에이 더러워, 똥똥!”’ 미각적인 글이에요. 흙덩이가 막 신세 한탄하다가 장면전환을 위해 나오는 글입니다.

‘그때 저쪽에서 소달구지가 오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이렇게 돼도 무난한 것 같은데, 청각적인 효과를 위해 의성어를 넣어요.

‘그때 저쪽에서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오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촉각적인 글입니다. 우리 머리에는 네 가지 감각이 있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러나 촉각만은 온몸에 퍼져 있잖아요. 선생님은 절정의 장면에서 촉각을 담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 나갔어요.’

후각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림책 최초로 100만부 팔린 것은 순전히 권정생 선생님의 글의 힘이에요. 권정생 선생님 작품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하자면, 각개 전투 훈련을 닮았어요. 철조망 밑으로 박박 기어 가지 않으면 걸리는 것처럼, 온몸으로 기어가야, 그 글이 겨우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참석자2 감사합니다.



그림 6

안남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직접 비를 맞으러 나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위대한 작품은 화실 안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에 있는 자연이나 삶이 같이 결합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 정 선생님의 작품이 그렇게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시간, 마지막이어야 되죠? 네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참석자3 간단한 질문 한번 할게요. 이제 보시면 지금 동화 구연처럼 너무 감정에 어떤 호소가 돼 있고 들었을 때 저도 사실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정 호소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권정생 선생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걸 담기 위해서 실제 비도 맞으시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온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감성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다듬어진 건가요?

정승각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이 되고 공부를 하면서 이 출판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수레바퀴처럼 가야 되겠구나, 하나는 어린이들을 만나는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동육아연구원 초창기에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교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의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 공동벽화를 한 15년간, 해마다 아이들과 작업했어요.

이 작업과정을 기록하면서 한편에서 아이들한테 배우고 그렇게 그림 책작업과 균형을 맞추면서 이 그림책 일을 지속한 거죠.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쓴 거죠.

참석자3 감사합니다.

안남재 한마디 더 해 주십시오.

정승각 오늘 학술발표문 중에 <옛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이야기 설화를 주제로 해서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를 냈는데, 우리네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천 년 동안 우리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하고 녹여내서 널리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7

안남재 자, 오늘 1부에서는 우리 거창한 담론 거대 담론 사회적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2부에서 우리 돌아가신 권정생 선생님과 또 정승각 선생님 모시고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는 돌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나요? 내년에도 오실 거죠? 내년에도 꼭 참가해 주시길 바라고 1,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림 북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
그 현장**

초·중등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사례

권미숙

지혜로운 아이 루카스 대표

학창시절 체력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안다. 어떤 친구는 운동장 다섯 바퀴를 쉬 없이 달리는 오래달리기에 강하고, 어떤 친구는 100m 단거리에서 기량을 뽐낸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문제를 떠올리면 오래달리기를 단거리 달리기의 호흡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양육자와 교사의 초조한 모습이 겹쳐진다. 게다가 이 결기가 무색하게 아이들의 어휘 실력과 표현력이 심각한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다. 교육부의 22년 개정 교과 필수역량이 아이들의 ‘문해력 강화’임을 고려할 때 모두가 문해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장거리를 단거리의 호흡으로 달릴 수 없는 것이 아동, 청소년의 학습이다. 본 글에서는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한 당연한 이야기와 과학적 분석은 논외로 두고, 교육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 상황과 본원에서 연구하고 실행하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초·중등 독서교육 활동 일부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들과 직접 부대끼며 익히고 수정해온 배움을 나누려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의 문해력 발달 문제는 여러 요인이 중첩되어있다. 현 초, 중등 학생은 유아기부터 글과 익숙해지기도 전에 영상매체에 익숙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COVID-19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

육 활동이 단절되어 학습자 간의 편차 또한 커졌다. 그런데도 국어과 입시 문제의 난도는 높아지고, 개인 실력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비문학 지문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물론 학생 간의 실력 차는 언제나 존재했으나 그 차이의 모양새가 달라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공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의 표현을 빌자면 아이들의 학습역량이 예전에는 향아리 유형이었다면, 요사이 모래시계 유형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다급해진 양육자들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초등 단계의 어휘력으로 우선 문제 풀이에 집중하고 있다. 사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도 읽기 어렵고, 아이들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은 도서를 선정하여 ‘이 정도는 읽어야 한다’라는 불안감을 마케팅의 목적으로 부추긴다. 나아가 초등부터 수능 독해 유형의 문제 풀이에 몰두하는 방식이 ‘문해력의 답’이라고 주장하는 학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 틈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바쁜 아이들은 고단하고 불안하다.

이처럼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교육 종사자들은 다시금 문해력 향상을 위한 원칙적이고 바른 지도 방향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종사자의 일원으로서 필자가 판단하는 문해력 저하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도 방향은 이렇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읽는 도서를 각각의 발달단계와 취향에 맞게 선정해야 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에 먼저 기억해야 한다. 학업성적이 좋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동물농장’을 읽은 뒤 주제가 ‘동물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일화가 있다. 내용과 주제의 연결 사이에서 헤맨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많은 교사는 이미 학생들이 읽은 책의 내용에서 주제를 간명하게 추리는 일을 대단히 어려워한다는 걸 체감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정받은’, 즉 공교육 내외에서

꼭 읽으면 좋다는 책을 선정해 학생 간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읽히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당연히 언젠가는 읽혀야 할 ‘리스트’가 존재함은 분명하지만 같은 분야나 주제에서도 학생의 역량을 냉정하게 판단해 독서 활동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이끄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면 자연히 아이들은 내용을 친밀하게 느껴 주제를 정리하는 일에도 익숙해진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겪는 독서과도기를 부드럽게 넘을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첫 번째 독서과도기라고 한다. 그림책 중심의 독서에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동화 읽기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그림책에서 동화로 자연스럽게 진전되지 못하면 학습이 정체되어 읽기에 대한 흥미까지 잃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도기는 일반적으로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할 때 나타난다. 동화 중심의 읽기에서 문학과 비문학 읽기의 궤도로 나아가야 할 시기이다. 판타지 동화나 이야기 중심의 글에만 몰두하면 첫 번째 독서과도기와 비슷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여 이 과도기를 이해하고 시기에 맞는 주제와 형식에 친밀해 지도록 세심한 지도가 불가결하다.

세 번째로 비문학 지도는 각 글의 주제를 검토하여 ‘알맞게 묶어 읽어야’ 한다. 비문학은 학생 뿐 아니라 성인들도 문학보다 어렵게 느낀다. 때문에 질적 읽기보다 양적으로 산발적인 주제를 성급히 쏟아부으려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초·중등 학생은 과학, 정치, 경제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기초 개념이 매우 부족한 게 당연하다. 또한, 부분적으로 관련 지식과 어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산발적인 지식이기엔 쓸모 있게 엮이지 못하고 결국은 그마저 휘발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 한정된 주제를 선정해 학생이 스스로 같은 분야의 여러 글을 접하여 배경이 되는 지식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 기반이 부족한 채로 여러 주제를 짧은 기간 내에 읽게 되면 정보가 파

편화되기에 십상이다. 통합적인 사고력과 논리가 만들어지려면 도서의 커리큘럼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묵음’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급하게 다분야를 잡식성으로 삼키지 않고, 개별 주제를 음미하며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것이 결국 통합적 사고력을 위한 첫 단추다.

넷째, 비문학을 읽을 때는 문학과 다른 방식으로 읽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초등과정에서 비문학 도서를 읽을 때 동화처럼 읽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초등 5학년 학생이 문학은 쉽게 읽지만 역사책은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어떤 부분이 어려우냐 물으니 역사서에는 모르는 단어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모르는 단어를 만나도 ‘생각을 해서’ 의미를 추측하기에 쪽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에게 인터넷 사전에서 낱말의 뜻과 이미지를 보여 주고, 앞으로는 낯선 어휘, 지명, 인물, 사건 등이 나오면 마음껏 과감하게 찾으라고 일러주었다. 물론 모르는 개념을 추측하여 얻는 사고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건 이미 머릿속에 재료가 많을 때 빛을 낼 수 있는 추론이다. 아직 많은 재료를 삼켜야 하는 아이들은 다르다. 이처럼 많은 아이가 비문학 도서를 이야기책처럼 읽기에 교육자는 학생이 문학과 비문학의 읽기 방식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에 맞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문장의 맛과 이야기의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과 달리 비문학은 지식정보의 전달이 존재 의의이다. 따라서 비문학 도서를 읽을 때는, 메모와 정리를 습관화하며 모르는 것을 직접 손으로 찾아가며 읽는 태도가 글의 목적과 알맞다. 게다가 아이들은 본인이 아는 것이 연결되면 흥미를 느끼기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배움으로 확장하고 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 암기와는 다르게 지식에 맥락을 부여하는 학습법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언어 표현활동을 수행하는 지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인풋(input)이 있어도 직접 글로 써 보는 것이 글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

기에 가장 적합하다. 줄글의 내용을 역순으로 구조화하고, 또 반대로 구조화된 내용을 풀어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자연히 그 사이를 넘나드는 방법을 배운다. 이 과정에서 글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글쓰기에서 문단을 중심으로 쓰는 법을 배우고 난 뒤, 천선란의 『그림자 놀이』를 읽는데 문단마다 핵심이 쉽게 읽혔다”고 말했다. 이 학습은 초등과정에도 적용 가능하기에, 익숙해지면 낯설고 어려운 글을 만날 때에도 일종의 마음 대비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글쓰기 대부분은 논설문이나 감상문 중심으로, 토론은 찬반 토론으로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글쓰기나 토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말과 글, 또는 토론으로 자신의 느낌을 서툴게나마 지속적으로 말하고 쓰게 하는 것이 곧 타인의 글을 마주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물론 선순환으로 타인의 글을 잘 이해하게 되면 본인의 글도 풍부해진다.

짧은 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좋은 문해력 교육’의 목표를 되짚어보는 게 좋겠다. 진정으로 아이들의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교육은, 내용파악 능력과 더불어, 주제를 생각하고, 확장하고, 결국 그에 관한 나의 지식과 의견까지를 정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다. 이는 단순히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독해 능력만이 아니라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매체 정보를 어떻게 해독, 습득, 비판할 것인지의 범위이기에 훈련에서도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넘어 글쓰기, 토론, 즉 적극적이고 풍부한 ‘표현’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 종사자, 양육자, 그리고 한 삶을 살아가는 학생이 갖춰야 할 안정적인 문해력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문해력은 국어 교과를 넘어 모든 교육의 기반이 된다. 문해력은 단순 문장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의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토록 중요한 문해력 교육이 갑자기 몇 가지의 기계적

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깨우쳐지지 않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시험’이라는 단거리 달리기든 운이 따를 수 있지만, ‘문해력’이라는 오래달리기는 준비운동과 호흡 관리, 그리고 지구력이 뒤따라야 원하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 바르고 원칙적인 방법으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중간에 몇 번 넘어지거나 방향을 벗어나더라도 언제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 종사자가 글을 바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은 인간종이 행하는 최고의 능력이자 아름다운 기술임을 마음에 새기며, 아이들에게 그 지혜를 전달한다는 책임감을 가진다면 그는 학생과 함께 뛰어주는 훌륭한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

글을 마무리하며 본원의 초·중등 문해력을 위한 읽기 지도 사례와 활동을 사진으로 거칠게 소개해본다.

① 어휘와 독서기록카드

어휘 기록 카드 (역사논술)

이름	글수지	학년	5	독서시간	1시간
재목	한국사편지3	지문이	태종왕	출판사	창원출판사

오늘은 어휘와 뜻을 찾아서 적기 (10개 이상)

단어	뜻풀이
도적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서 빼앗는 나쁜 짓
포도청	참외를 2년간은 싹을 잘라내어 고추
외국병	외국에 병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
고지명	낮은 산봉을 일컫는 말
보통	평범하게 여러 것들
전남	전남에 대항하여 투쟁하다
청포	저녁에 고추를 요리
침도	침을 흘리는 것
수종	나무의 종류
형질	형질에 따라

새로운 어휘를 활용해서 짧은 글짓기하기 (3개 이상)

- 참외를 2년간 싹을 잘라내어 고추
- 포도청은 도둑이 훔쳐갔다
- 내 친구는 전쟁에 가서 한참이 나중지 끝났다

독서 기록 카드(문학)

이름	글수지	학년	5	독서시간	1시간 20분
재목	소리없는 전쟁	지문이	전쟁만	출판사	창원

이름과 주인공의 말과 행동에서 보이는 특징

주인공: 김동아

주변인물: 마구방, 공노라, 김동아

반대인물: 마구방, 공노라

시간적배경: 아침, 점심, 10월, 겨울... 등 시간을 나타내는 말

공간적배경: 김동아, 공노라, 마구방

사건: 김동아와 공노라가 전쟁을 하는 것

주제: 전쟁

결말: 김동아는 공노라를 죽이고 마구방을 데리고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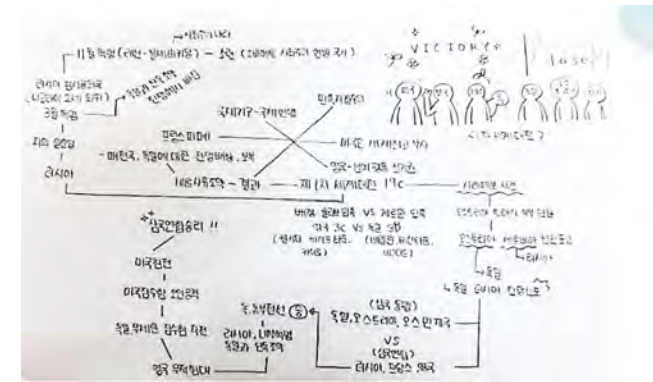
줄거리 요약: 마구방이 죽어 버린 공노라와 마구방이 죽어 버린 공노라는 같은 아이들이다. 마구방은 공노라를 죽이고 마구방을 데리고 간다. 공노라는 김동아를 죽이고 마구방을 데리고 간다. 공노라는 김동아를 죽이고 마구방을 데리고 간다.

개념 용어 이해를 통해 역사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독서활동(왼쪽).

소설의 구성요소(인물, 사건, 배경)를 통해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요약하는 활동(오른쪽).

② 비문학 도서 구조도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여 주는 세계사 구조도



③ 지도를 중심으로 무역로와 상품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무역로와 상품의 교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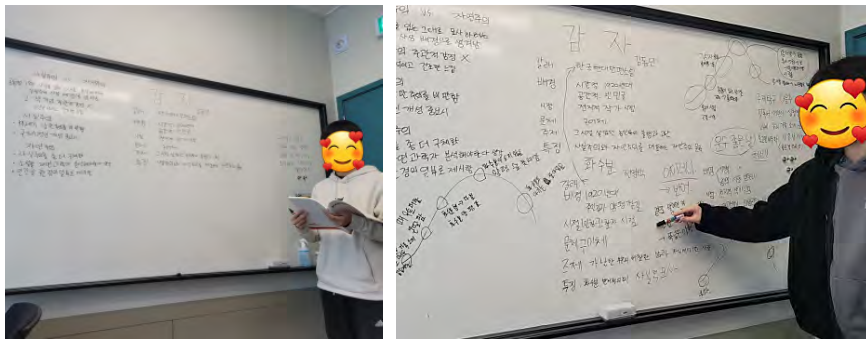
⑧ 브레인 스토밍하기

주제를 정하여 자유롭게 거침없이 자기 생각펼치기



⑨ 강의하기

문학 작품 분석, 사회문화적 배경, 주제, 작품의 구성요소 분석 강의하며 내용 파악하고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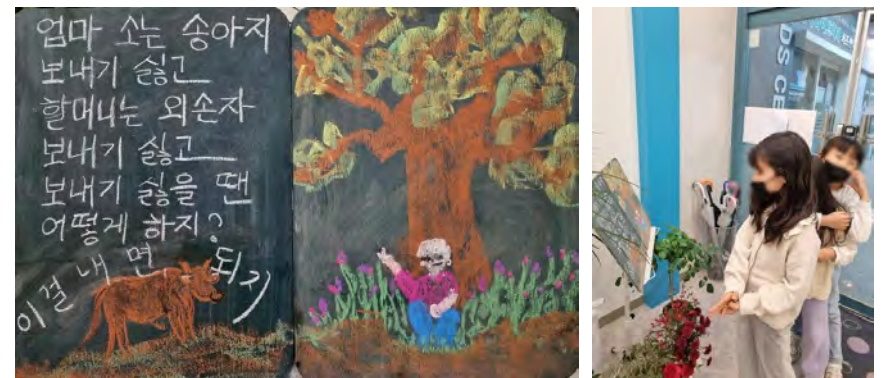
⑩ 문장 이어달리기

언어의 창의성, 어휘력 향상을 위한 단체 브레인스토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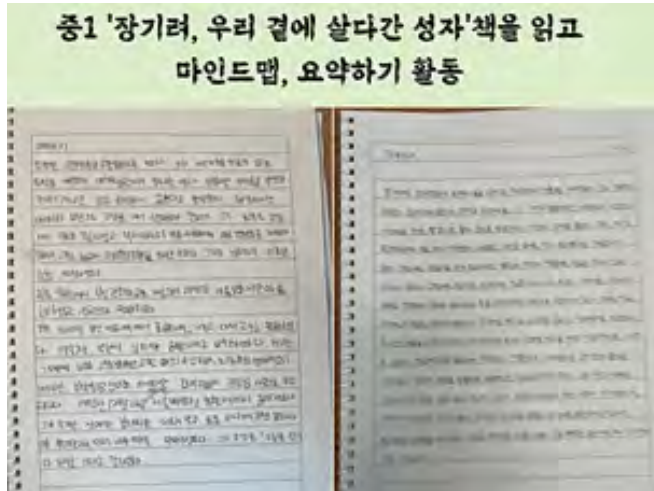
⑪ 동시로 어휘놀이

창의적 추론을 통한 어휘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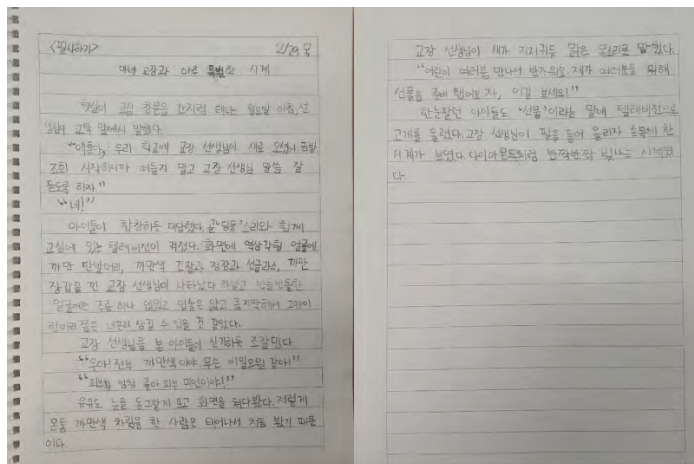
⑫ 요약하기

일대기, 사건, 업적 중심으로 인물 요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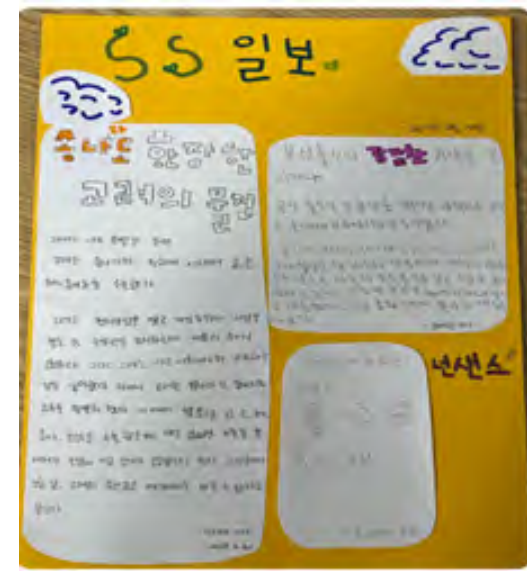
⑬ 필사하기

책 내용 다시 새기고 문장구사 방법 이해하기



⑭ 신문 만들기

주요 내용 판단하고 편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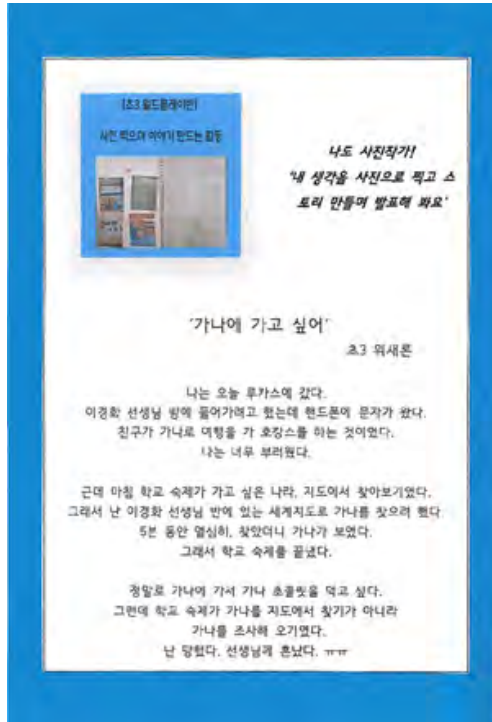
⑮ 토론하기

토론의 주제 역할 맡아서 토론하기, 토론의 예의와 절차 배우기,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고민하기



⑩ 사진찍고 스토리 만들기

핵심 메시지 파악하여 스토리 구성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주제 표현하기



유아 영어 교육기관에서의 영어 문해력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유아의 독서 활동성

민상훈

LEC 어학원

유아기 시절의 영어 학습과 독서

영어가 공부 해야 하는 과목이 아닌 글로벌 시대에 기본 언어라는 관점에서 어린이들의 영어 교육은 점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아기 어린이가 영어를 배운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학부모가 존재한다. 유아기의 영어 학습을 사교육의 폐해로 치부하기보다 건강한 언어 교육을 통해 영어를 단계적으로 배운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에 유아기는 너무 빠르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시기이다.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준, 즉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배우는 수준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체계적인 언어 습득 과정의 단계를 따르는 것이다. 제2외국어 또한 모국어와 마찬가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영어 유아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외국어로 듣고, 말하는 비중이 높다. 영어를 사용하는 대상(원어민 및 이중언어 교사)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듣고, 단어가 가진 뜻을 유추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도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언어 구사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

는 것은 어린이들이 본격적으로 ‘읽기’의 단계에 진입하고 난 때부터라 할 수 있다.

영어 교육기관에서의 유아기 독서 학습 과정

독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불문하고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순간부터 곧바로 ‘읽기’를 시작할 수는 없다. 어린이들은 다음의 학습 단계를 따라 독서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독서 능력을 기른다.

‘52개의 알파벳 음가 인지’ → ‘디코딩: 문자 해독’ → ‘낭독’ → ‘묵독’
→ ‘읽기 독립’.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파악하는 때는 ‘묵독’이 가능한 시점부터이다. 이때부터 어린이들은 소리내어 읽지 않더라도, 문장과 문단을 해석하고, 글을 구조적으로 읽기 시작한다. 글을 읽는 속도가 올라가고, 같은 글을 읽더라도 보다 많고,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퀴즈 등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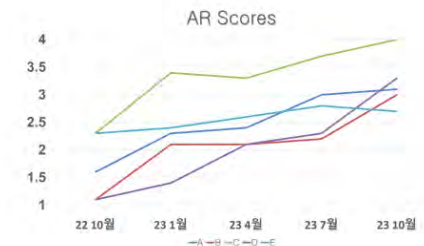
필자는 영어교육 방법으로 어린이들이 ‘묵독’을 시작하는 때부터,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는 영어 도서를 대여하며, 독서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읽고, 푸는 퀴즈가 문해력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일 정해진 양의 책을 읽고, 퀴즈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글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영어 문해력의 정량적 측정과 학습 관리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영어 문해력에 대한 다양한 측정방법이 개발되었고,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의 교육기관에서는 어린이에게 도서를 대여해주는 시기가 되면, 도서 프로그램과 연계된 시험을 실시한다. 해당 시험은 어린이의 문해력을 정량화하는 도구로써, 어린이의 현재 문해력에 맞는 수준의 도서를 대여해 주는 것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전반적인 어린이의 문해력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린이의 실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점수가 어린이의 영어 실력 전반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문해력의 영역에서 어린이의 발달 과정을 확인하는 도구로서는 유의미하게 역할을 한다. 미국 현지에서도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인 문해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험을 통해, 연령별 평균과, 해당 어린이의 위치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수준 파악이 선행돼야 어린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수준의 도서를 대여할 수 있고, 읽기 과정을 통한 문해력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1st		2nd		3rd		4th	
		Date	Scores	Date	Scores	Date	Scores	Date	Scores
		6/16	1.1	8/11	2.2	11/10	2.9	2월 16일	3.2
		Average		1.2		2		2.6	

		1st		2nd	
		Date	Scores	Date	Scores
		5/31	4.3		
		Average		3.3	



르네상스 사의 AR Score와 학생별 분기 성적 추적 분석



미국 국가공인 독서 능력 평가 프로그램인 Lexile 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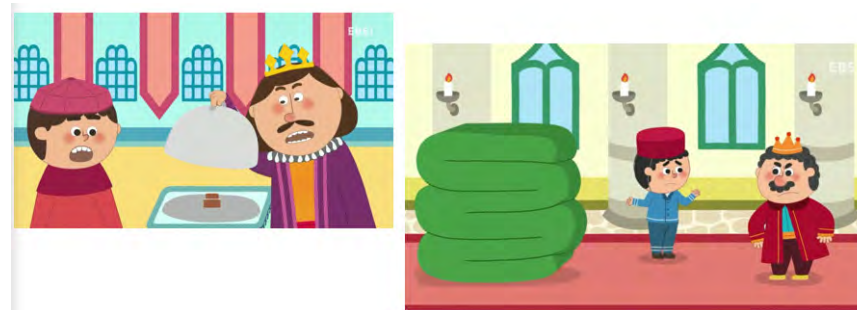
Reading 수업과 영어 도서 대여가 어린이가 글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라면, 독서 이후 어린이의 상상력이 자극되는 활동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교육방법 중 하나인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동화 탐구

어린이들은 한 가지 탐구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수업은 시작된다. 이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유아 교육을 전공한 전문 선생님이 어린이들과 함께 한다. 한국어로 진행되는만큼, 정제되지 않은 어린이들의 언어가 그 중심에 있다. 그 주제는 내 주변에서 변하고 있는 계절이 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이벤트일 수도 있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개미일 수도 있다. 어린이를 둘러싼 모든 것이 재미있는 탐구 주제이고, 그 주제마다 어린이들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다양하다.

다음은 실제 수업 사례이다. 선생님이 ‘일상에서의 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고, 〈거인 왕국과 소인 왕국〉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EBS키즈 - 수학이야호 ‘도구로 재봐요’

“옛날옛날, 거인 왕국과 소인 왕국이 있었고, 두 나라의 왕은 두 나라의 친구를 위하여, 각자가 원하는 선물을 주고받기로 했다. 거인 왕국의 왕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맛있는 케이크를 원했고, 소인 왕국의 왕은 자신에게 꼭 맞는 따뜻한 목도리를 원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왕은 보인 기준에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고, 그 결과, 거인 왕국 왕에게는 너무 작은 케이크가, 소인 왕국 왕에게는 본인의 이불보다 더 큰 목도리가 도착했다.”

어린이들이 퀴즈를 풀기 위해 이 책을 읽었다면, 중요한 것은 주고받은 선물의 내용물이 어떤 것이었는지와 같은 사실 관계에 기반한 책의 내용 그 자체였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에서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두 왕국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고민해본다. 한 아이가 각자 원하는 크기를 정확히 얘기해주면 된다고 대답하자, 교사는 두 왕국이 각각 가지고 있는 측정 단위가 동일할지 되물어본다. 어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1cm는 모두 동일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훌륭한 논

쟁거리가 된다. 거인국이니까 1cm도 거대할 것이라는 어린이들의 생각은 엉뚱하고, 소중하다. 교사가 곧바로 세상의 모든 자는 동일하다고 정답을 말해 줄 수 있지만,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보다 근원적인 궁금증을 풀어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한다. 어린이들이 직접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로 100cm를 측정한 특정한 물건을 우리 원으로 들고 와서 모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본다. 비로소 아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측정한 100cm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수, 숫자, 측정, 비교의 개념으로 프로젝트의 영역을 넓혀간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며 길이와 측정의 개념을 익히는 어린이들

쉽고 재미있는 동화책 한 권이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탐구 주제가 된다. 마음껏 생각하고, 표현한 주제는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그 속에는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가득하다. 어린이들의 독서는 탐구의 좋은 출발점이 되어준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길이와 측정의 개념을 확장해가는 어린이들의 놀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탐구 지식의 영어 문해력으로의 전환

프로젝트 수업은 경험 많은 유아 교육 전공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로 진행된다. 필자가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아이들이 만든 멋진 프로젝트는 또 다른 배움의 원천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하여 사유하고, 생각한 내용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수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업 때 내가 표현한 내용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우기 위해, 어린이들은 관련된 어휘를 배우고, 추가적인 배경지식을 배우고, 프로젝트 수업 때 다 못한 활동을 영어로 표현해 본다.



프로젝트 수업 기반 영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영어 독서의 기반을 다지는 어린이들

이 과정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진행한 프로젝트에 기반했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받아 들어진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키를 영어로 표현해보고, 센티미터(cm)를 미터(m)로 바꿀 때 사용하는 영어에 대해 배운다. 자신들이 사용한 측정 도구에 관한 어휘를 배우고, 직접 그와 관련한 essay를 써보기도 한다. 거인 왕국에 케이크를 소개하는 소인 왕국 왕의 대사를 직접 영어로 작성해 보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영어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배경지식을 쌓고, 어휘를 다양하게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창의적으로 생각을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영어 도서 또한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글의 구조 이상을 상상하는 힘을 기른다.

유아의 독서 활동성을 통한 영어 문해력의 향상

유아기에 건강하게 제 2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독서는 필수적이다. 다만, 독서를 통해 퀴즈를 풀고, 그 점수가 어린이 언어 능력의 전부처럼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퀴즈 점수 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책 속에서 생각했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하는 것이다.

필자가 영어교육을 할 때 한국동화책을 함께 읽게 하거나 영어와 한국어를 융합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모국어와 제 2외국어의 동시 교육이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통합교육과 다양한 활동은 어린이들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독서 동기를 갖게 하는 데 매우 긍정적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영어를 친근하게 여겨 이후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수업이 아닌 스스로 학습 동기를 가지고 탐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주제, 놀이, 교육, 활동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아이들의 잠재력을 향상시켜 줄 뿐아니라 문해력 기초를 닦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수업에 한국어 책과 영어 책을 동시에 활용하며 융합적 활동과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영유아 영어교육의 문해력 신장을 위한 수업 방식으로 권할 만하다.

수학학습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와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실천사례

안남재

1. 수학학습의 내용적 분류에 따른 문해력의 중요성

수학 학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개념에 대한 학습과 문제에 대한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문해력은 개념 학습과 문제 학습 이 두 가지에 모두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 보자.

첫째, 수학 개념은 용어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정의에서 도출되는 성질과 법칙, 이론, 공식의 유도과정, 공식 등이 모두 개념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언어로 전개되고 설명된다. 따라서 문해력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잘 이해하느냐에서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숙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수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진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지학사)내용이다.

★ 함수의 수렴

함수 $f(x)$ 에서 x 의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함수 $f(x)=x+1$ 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x 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의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한편, 함수 $g(x)=\frac{x^2-1}{x-1}$ 은 $x=1$ 에서 분모가 0이 되어 정의되지 않지만 $x \neq 1$ 인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g(x)=\frac{x^2-1}{x-1}=\frac{(x+1)(x-1)}{x-1}=x+1$$

이다. 따라서 함수 $y=g(x)$ 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x 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 의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함수 $f(x)$ 에서 x 의 값이 a 가 아니면서 a 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의 값이 일정한 값 a 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 는 a 에 수렴한다고 하며, 이것을 기호

$$\lim_{x \rightarrow a} f(x) = a$$

또는

$$x \rightarrow a \text{ 일 때, } f(x) \rightarrow a$$

로 나타낸다.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수식과 기호들이 일부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언어로 표현된 문장이나 명제들이 주를 이룬다. 수학적 원리 이전에 문장을 이해하는 역량이 부족해서 개념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해력을 키우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굳이 저 본문 텍스트를 읽지 않고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명료하다. 선생님의 말에 의한 강의로 표현되어지는 개념과 글이 품고 있는 개념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텍스트로 된 개념을 읽고 학습하는 과정을 반드시 실행한다.

둘째, 문제를 푸는 학습을 할 때도 문해력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어려워 하는 이유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우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응용이 심한 어려운 문제일수록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구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문해력이 뒷받침되어야 극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문해력이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해력이 부족하면 논리적인 사고가 어려워지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래는 2023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제다.

27.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1개의 용량은 정규분포

$N(m, \sigma^2)$ 을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16개를 임의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m 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이 $746.1 \leq m \leq 755.9$ 이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n 개를 임의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구하는 m 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구간이 $a \leq m \leq b$ 일 때, $b-a$ 의 값이 6 이하가 되기 위한 자연수 n 의 최솟값은? (단, 용량의 단위는 mL이고, Z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P(|Z| \leq 1.96) = 0.95$, $P(|Z| \leq 2.58) = 0.99$ 로 계산한다.) [3점]

- ① 70 ② 74 ③ 78 ④ 82 ⑤ 86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구해야 하는 값을 찾는 풀이는 수학적 개념만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문제 자체를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주어진 조건 자체가 중문과 복문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문장이다. 문해력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된다.

2. 수학적 사고력과 문해력

수학적 사고력이라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계산능력, 이해능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능력 이렇게 네 가지다. 학교시험이나 수능들에 나오는 모든 수학문제, 즉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수학이라는 과목만 한정했을 때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위의 네 가지 능력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 중 이해능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다음은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해력이다.

“이해 능력은 문제에 주어진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의 의미와 관련 성질을 알고 적용하는 능력,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예제나 정형화된 응용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수학적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위 글에서 ‘수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빼고 다시 한 번 읽어 보시라. 정확하게 문해력과 겹친다.

수학에서 기호와 수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언어로 된 문장이다. 따라서 수학적 의미를 염두에 둔 문해력이 바로 ‘수학적 이해능력’인 것이다.

이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추론능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자.

“추론능력은 나열하기, 세어보기, 관찰 등을 통해 문제해결의 핵심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유추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수학의 개

념·원리·법칙을 이용하여 참인 성질을 이끌어 내거나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능력, 주어진 정의를 이해하고 참인 성질을 이끌어 내는 능력, 반례를 들어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판단하는 능력등을 의미한다.

조건 명제의 증명, 삼단 논법에 의한 추론, 반례에 의한 증명, 모순법, 동치 명제의 증명,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 등을 이해하는 능력과 주어진 증명을 읽고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등도 이에 해당한다.”

추론능력에서 논리적 사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읽어 낼 수 있다. 문해력을 기른다는 것은 문학 뿐만 아니라 비문학의 설명문이나 논설문 등의 다양한 글을 읽고 이해하며,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훈련을 하게 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추론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한 훈련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수학적 사고력의 ‘추론능력’도 문해력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문해력을 기른다면 전반적인 수학적 사고력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저학년 시절에 소위 ‘사고력 수학’을 열심히 했으나 독서에는 그리 힘을 쏟지 않았던 학생이 고학년 교과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그와 반대로 남들이 다들 한다는 ‘사고력 수학’은 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독서를 통해 문해력을 기른 학생이 고학년 교과 수학에서 수월한 성취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3. 다양한 실천 사례

문해력이 수학 학습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수학학원의 실천사례를 보자.

3.1. 입학시험에서 문해력 측정

아래는 필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입학시험에 대한 결과 리포트지의 한 페이지이다.



수학적 사고력에 대한 점수 뿐만 아니라 ‘언어 유추력’, ‘언어 논리(어휘력)’ 등에 대한 점수가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해력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을 했다는 이야기다.

수학학원의 입학테스트 문제에 문해력을 측정하는 것에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 학부모들도 처음에는 수학학원의 입학테스트에 왜 문해력 측정이 필요하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요새는 거의 의문조차 품지 않는다.

3.2. 학원의 숙제와 문해력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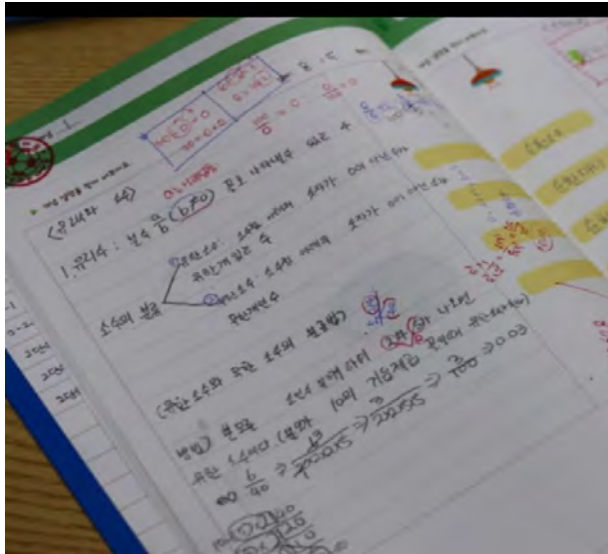
필자가 운영하는 학원은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학생들이 해당 단원을 집에서 예습을 하고 오는 소위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채택하고 있다. 그 예습에는 해당 단원의 ‘개념읽기’와 ‘개념노트 작성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공배수와 최소공배수’ 단원에 대한 개념이다.

공배수와 최소공배수(Least common multiple, 最小公倍数 / LCM)

- 재현이는 4일마다 세우는 6일마다 같은 선생님에게 과학을 배우다고 하자. 그런데 재현이와 세우의 과학 공부 가 겹치는 날에는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자. 오늘 만약에 같이 공부를 한다면 그 다음은 며칠 후에 같이 공부하게 될까?
-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요?
- 하하하. 그렇기는 하지. 이렇게해보면 어떨까?
- 4의 배수는 4, 8, 12, 16, 20, 24, 28, 32, 36, 40, ... 이고
6의 배수는 6, 12, 18, 24, 30, 36, 42, ... 이므로
공통인 배수는 12, 24, 36, ... 이잖아.
이럴 때, 12, 24, 36, ... 를 4와 6의 공배수라고 해.
그러면 며칠 후에 같이 공부하게 되는지 알 수 있겠지?
- 아. 12일 후, 24일 후, ...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되군요.
- 맞아. 이제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공배수는 두 수의 공통인 배수이고
최소공배수는 두 수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야.
예를 들어, 4와 6의 공배수는 12, 24, 36, ... 이고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12야.
- 그럼,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것 맞지요?
- 맞아. 예를 들어 최소공배수가 12라면 공배수는 12의 배수인 12, 24, 36, 48, 60... 이 되는 거지.
소인수분해로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각 수를 소인수 분해해서 거듭제곱의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곱하고 지수가 다르면 큰 것을 택해서 곱하고 지수가 공통으로 들어 있지 않은 수도 함께 곱하는 거야.**

이렇게 개념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학생은 ‘개념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문해력이 아주 낮은 학생이라면 소화하기 어려운 학습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3.3. 학원에서의 수업과 문해력의 관계

과거의 학원수업은 대부분 교사주도로 진행되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습내용을 칠판을 이용해서 전달하고 학생은 수용만 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학생주도의 수업이 수학학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생이 예습한 개념을 교사에게 설명을 하게 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설명하기도 하고, 친구들간에 토의를 하며 문제를 풀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출위주’의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은 수학학원에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 때, 학생들의 표현능력과 논리성이 길러지기 마련인데 이는 문해력의 향상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즉 수학적 학습역량과 문해력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라는 점이 중요하다.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자 서로 시너지를 내는 관계라는 것이다.

4. 결론

문해력은 학습정보를 받아들이고 내용을 깊이있게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량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과목에서 필요한 역량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필요한 역량이다. 본 글에서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실제 문해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천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보보안, 사진 저작권 등의 제한으로 인해 여러 수학학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못하고 필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사례만을 들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수학학원들의 사례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굳이 사례를 추정해 보자면 ‘수학일기’를 지도하는 학원도 있을 수 있고, 수학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교재들을 읽히는 학원도 있을 수 있다. 모두 문해력과 수학이라는 과목의 밀접성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韓國讀書아카고라學會)’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약칭, RAAK)라 한다.

(우리 학회의 명칭 ‘아카고라(ACAGORA)’는 아카데미(ACADEMY)와 아고라(AGORA)를 합성한 약어로 서,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성(academy)과 독서 운동의 열린 활동성(agora)을 표방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지부는 국내의 지방과 국외의 소정 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독서 이론의 학구적(學究的) 학술 연구와 독서 교육의 진취적 학습 운영과 독서 활동의 역동적 확산 운동 등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 1회 이상의 정기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연 1회 이상의 학술지 발간
3. 독서 학술 논저 공모제 시행
4. 독서 교육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개최
5. 독서 문화 자료 전시회 개최
6.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업 진행

제5조 (학술지)

본 학회는 학술지 『독서 아카고라 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약칭 ARR)를 발간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독서, 책, 출판, 미디어, 교육을 전공하거나 관련 학문에 관심을 둔 모든 자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이 승인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독서 관련 학술 이론 전공자
 - ② 학술 연구 및 저술가로서 본 회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 ③ 각급 학교의 독서 관련 교육자
 - ④ 위 ①, ②, ③ 외의 독서 문화 콘텐츠 관련 전문직 종사자
 - ⑤ 독서 운동가로서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인준을 얻은 자
2. 명예 회원은 본 회의 유관 원로 중 본 회칙 제2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제9조의 소관 업무를 적극 후원 할 인사로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추대한다.
 - ① 명예 회원의 후보는 회장 및 회장단,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지명한다.
 - ② 명예 회원 지명 발의자는 별지 양식의 심의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 ③ 이사회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심의 의결하고, 회장은 이를 인준한다.
3.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각급 학교 및 각종 교육 기관, 또는 그 교육 기관의 독서 관련 부서 (예: 도서관, 학회, 기타)
 - ② 독서 유관 전문 직종 (예: 언론, 미디어, 각종 출판계, 기타)
 - ③ 위 ①, ② 이외의 개인 및 단체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거 하여 가입 의사를 밝힌 자

제8조 (회원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참석 및 발의, 표결권
2.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학회 주관 학술활동 참여권
4. 회비 납부의 의무
5. 명예회원과 준회원에게는 본 학회의 제반 사업과 활동에 참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본 학회와의 개별 약정을 준행할 의무를 진다.

제9조 (회원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학회의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2. 학술지 논문 심사 시 정해진 심사비를 납부할 것

3. 내규에서 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것

제10조 (회원 징계)

1. 본 학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학회는 임원진 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①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술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② 연구 부정행위 또는 학술지 운영 방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
 - ③ 정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5년 이상 경과시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 ④ 징계는 경고, 자격 정지, 제명으로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 ⑤ 제명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 후 확정된다.
 - ⑥ 각종 회원은 본 회칙 제 1, 2 조에서 밝힌 바 본 회의 정신과 목적에 배치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3장 총회**제11조 (구성)**

총회는 본 학회(회원)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임원진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13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이사의 인준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정관 개정
5. 기타 중요 사항

제14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원은 서면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5조 (임원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부회장
- 3. 이사
- 4. 위원장
- 5. 감사
- 6. 고문

제16조 (회장)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주재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 (감사)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학회의 운영, 재정 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이사)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학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결정한다.

제19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연임할 수 있고, 학술지 논문 심사, 게재 여부 결정 등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 (기타 임원)

연구윤리위원과 실무 간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내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5장 재정

제21조 (재정 구성)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구성한다.

- 1. 회원 회비
- 2. 찬조금
- 3. 기타 수입금

제22조 (회비 및 경비)

회비 및 각종 경비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회원은 이에 따라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부칙]

제23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관례,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4조 (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년 1월 1일 1차 제정
- 2023년 1월 1일 1차 수정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심사위원회 구성)

『독서 아카고라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제2조 (일반논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뢰)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해 편집회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심사 결과를 취합한다.
- ② 심사위원 선정은 1차 및 2차 편집회의를 통해 진행하며, 필요 시 온라인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온라인 회의는 외국이나 지방 거주 등으로 대면 참석이 어려운 편집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일반논문의 심사 과정)

-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일반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다음 4가지 중 하나로 판정하며,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④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 판정이 없는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
- ⑤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
- ⑥ ‘게재 불가’ 판정이 2인 이상이면 게재하지 않는다.
- ⑦ 그 외의 심사 결과들은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판정한다.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판정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판정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⑧ ‘수정 후 게재’ 판정이 있는 경우, 해당 수정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 한 뒤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게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해당 논문은 차기 호로 이월할 수 있다.
- ⑩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있는 경우, 수정된 원고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재결정한다.
- ⑪ 필요한 경우, 심사 과정을 차기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⑫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 반려 처리되며, 동일 주제로 재투고할 수 없다.

제4조 (일반논문의 표절 및 변조 관리)

- ① 표절 및 변조 관련
 - 편집위원회는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해 표절·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 표절·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투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한다.
- ② 표절 및 변조 관리에 따른 조치
 - 표절 또는 변조가 확인된 논문은 즉시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해당 논문은 본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없다.
 - 표절·변조 행위는 학계 윤리 위반으로 간주하며, 필요 시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 (일반논문의 표절 및 검증 절차)

편집위원회는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해 다음 절차에 따라 표절 검증을 실시한다.

- ① 초기 검증
 - 접수된 모든 원고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검사한다.
 - 표절률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준(예: 30%)을 초과할 경우, ‘표절 의심’ 단계로 분류한다.
- ② 심층 검토
 - ‘표절 의심’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직접 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다.
 - 투고자에게 표절 의혹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해명 및 조치
 - 투고자가 해명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다.
 - 표절이 확인되거나 해명이 부적절할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 불가’로 결정하고 재투고를 금지 한다. 그리고 필요시 연구윤리 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 아울러 본 학술지의 투고를 5년간 금지한다.
- ④ 기록 및 보관
- 표절 검증 과정과 결과는 문서로 기록·보관하며, 향후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한다.

제7조(기획논문의 심사 및 관리)

- ① 기획논문의 주제는 본 학술지 임원진에서 결정하며, 관련 분야의 적합한 연구자에게 원고를 의뢰한다.
- ②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는 논문 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고, 심사의견서를 첨부한다.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판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④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기획논문은 본 학술지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투고할 수 없다.
- ⑤ 기획논문의 심사 절차 및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와 학술지 회장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타 사항)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 ②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2019년 1월 1일 1차 제정
- 2023년 1월 1일 1차 수정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투고 규정

1. 논문 투고의 범위 및 자격

- 1) 『독서 아카고라 연구』는 독서이론, 독서교육, 독서문화와 관련된 전반의 논문을 게재한다. 구체적으로 독서 관련 전반은 독서, 책, 출판, 미디어, 교육 등이다.
- 2) 『독서 아카고라 연구』의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단, 임원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외를 두기로 한다.

2. 논문의 작성 원칙 및 제출 기준

- 1) 원고는 '한글(컴퓨터 문서작성기)'로 작성하여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단, 도판 등 파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복사·인쇄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 2) 원고 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제한한다. 단, 150매가 넘는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 3) 연구 논문의 경우, 체제는 '제목(한글 및 영문 제목)-국문요약-핵심어(6개 내외)-차례-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 제목과 외국어 필자명 포함)-키워드(6개 내외)'의 순서가 되도록 한다.
- 4) 국문요약은 편집본 기준 15줄, 영문초록의 경우 250자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 5) 본 학술지는 연 1회 발행한다. 마감은 9월 15일 학회 메일이나 논문 투고 시스템으로 투고한다. 이에 따른 발행일은 10월 31일로 정한다.

3. 논문 작성의 형식

- 1) 저자 표시
- ① 단독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학교, 직위를 표시한다. (*전자메일의 경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적지 않는다.)
- ② 공동논문: 표시 형태는 단독논문과 같고, 제1저자와 제2저자를 구분해 표시한다. 아울러 교신저자일 경우, 이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③ 저자의 차례: 필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필자가 원하는 언어로 표기한다. 단 중국과 일본인 필자의 경우 한자(漢字)로, 국내 필자는 영어로 표기한다.
- 2)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
- ① 국문요약은 국문(한국어)로 작성한다.
- ② 외국어 초록은 영문으로만 작성한다.
- 3) 장, 절, 항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 4) 각주의 출전 표시는 ‘저자, 서명, 출판 사항, 인용 쪽수’ 순서로 표기하고, 세부사항은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 5) 논문의 마지막에 참고문헌 목록을 제시한다. 참고문헌에 대한 완벽한 서지정보(저자, 논저명, 해당 권호, 발행처, 발간 연도, 실제 참고한 페이지 등)를 명시해야 하며, 논문의 경우, 발표지의 수록 페이지까지 밝혀야 한다.
- 6) 논문 투고 시 사용할 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 ①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전집류 등: 『 』 (신문의 경우 0000년 00월 00일로 표기)
 - ② 논문 명: 「 」
 - ③ 작품 명: < >
 - ④ 원문 인용, 대화: “ ”
 - ⑤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2019년 1월 1일 1차 제정
- 2023년 1월 1일 1차 수정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투고 논문 심사 규정 및 심사서 양식

제1조 (심사위원회 구성)

『독서 아카고라 연구』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 (일반논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해 편집회의를 통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하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취합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외국과 지방에 있는 편집위원들이 참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일반논문의 심사과정)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공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한 가지로 판정을 내리고, 심사 소견을 붙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 판정이 없는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
- ④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
- ⑤ ‘게재 불가’ 판정이 2인 이상이면 게재하지 않는다.
- ⑥ 그 외의 심사 결과들은 다음의 <표>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판정한다.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판정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㉗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보완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알리고, 수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논문에 한해 게재를 결정한다. 수정·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게재를 보류하고 심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 ㉘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보완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알린다. 수정 후 다시 투고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수정·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게재를 보류하고 심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 ㉙ 최종적으로 반려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4조 (기획논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뢰)

- 기획논문의 주제는 본 학술지 임원진에서 기획하고 해당 분야의 적격자에 의뢰하여 원고를 수합한다. 기획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㉑ 편집위원회는 기획논문에 대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한 가지로 판정을 내리고, 심사 소견을 붙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㉒ 기획논문 중에서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의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재투고할 수 없다.
 - ㉓ 기획논문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본 연구원의 원장에게 일임한다.

제5조 (기타)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제6조 (심사서양식) 『독서 아카고라 연구』 논문 게재 심사서

논문제목

1. 요건 심사: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심사 항목		평가 등급				
제목	적절성	5	4	3	2	1
전개	구성 및 논리	5	4	3	2	1
자료	신뢰성 및 정확성	5	4	3	2	1
초록	적절성 및 정확성	5	4	3	2	1
인용윤리	정확성 및 표절여부	5	4	3	2	1
총점						

2. 내용 심사: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심사 항목		평가 등급				
내용의 독창성		5	4	3	2	1
내용의 객관성		5	4	3	2	1
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학문적 기여도		5	4	3	2	1
총점						

3. 심사 요지: 심사 내용, 수정 사항 및 지적사항, 의문점 등

4. 최종 평가: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판정 결과	판정 사유
게재가	* 공란 부족시 별지 첨부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위와 같이 논문을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또는 서명)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연구 윤리 규정 및 서약서 양식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의 『독서 아카고라 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는 독서이론, 독서교육, 독서문화, 독서 전반(독서, 책, 출판, 미디어, 교육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인문학의 발전과 세계적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여 연구 활동에 따르는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 한국 학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에 본 학회는 회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연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이를 통해 연구 활동의 엄밀함을 담보하고, 학회와 회원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1조 (회원의 의무)

- 1) 본 학회 회원은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과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2) 본 학회의 회원은 표절과 조작을 연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표절과 조작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의 양심과 명예를 존중한다.
- 4) 본 학회의 회원은 공개된 연구는 공적 자산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한 규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DB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본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 2) 위원회는 관련 학문 분야의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본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 윤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심사하고 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이 요청한 경우,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한다.
-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을 비롯하여 연구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 5) 위원회는 심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윤리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한 사항
 - ①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②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③ 회원의 품위와 관련한 사항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한다.
-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한 사항
 -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②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무고 또는 허위로 제보한 경우.
 - ③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사 절차)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건의 심사 절차를 논의하되, 심사의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제보자,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

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8)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소된 자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8조 (심사결과와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제명
- 2) 해당 논문의 저작권 취소 및 인용 금지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5)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를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0조 (후속 조치)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1조 (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제1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붙임양식)

표절 / AI 도구 사용 여부 확인 및 자가 점검 연구 서약서

- 2019년 1월 1일 1차 제정

- 2023년 1월 1일 1차 수정

[붙임양식]

표절 / AI 도구 사용 여부 확인 및 자가 점검 연구 서약서

『독서 아카고라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자들이 문헌 활용 및 참조, 해석, 개념 분석 및 논증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을 본인의 사유와 판단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표절의 근절은 물론, AI 도구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독서 아카고라 연구』의 투고자는 연구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가 점검표의 항목을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 제목: _____

1) 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 및 참고 문헌의 누락은 없습니까?

[] 예 / [] 아니오

2) 논문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챗GPT, Claude, Gemini, DALL-E, Midjourney 등)를 사용하였습니까?

[] 예 (사용한 AI 도구명과 버전: _____)

[] 아니오

※ AI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논문 제목과 날짜, 성명, 서명만 작성해 주십시오.

3) 논문 작성 중 AI 도구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① 투고할 원고에서 해당 부분의 글자 색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십시오.

②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 사용한 AI 도구와 버전(예: 챗GPT-4)

- 활용한 구체적 내용(예: 문법 수정)

- 예시: '챗GPT-4를 사용하여 문법 수정' 또는 '챗GPT-4를 활용한 영문초록 영작' 등

4) AI 도구가 생성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예 / [] 아니오 / [] 해당 사항 없음

본인은 본 점검표의 모든 항목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윤리 위반 시 논문의 철회 및 투고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또한 AI 도구 사용 여부를 진실하게 기재하였음을 서명으로 확 인합니다.

날짜: _____

성명 및 서명: _____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저작권 이양 및 활용 동의서

논문 투고자는 본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독서 아카고라 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에 투고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제1조 (저작권의 귀속)

본인은 본 논문이 『독서 아카고라 연구』에 게재되는 경우, 논문의 저작권(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 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전적으로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에 이양함에 동의합니다.

단, 저자는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적 활용(예: 강의, 연구, 개인 홈페이지 게재 등)을 위해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2조 (이용 및 배포)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는 본 논문을 학술지 인쇄본,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베이스(KCI, RISS, DBpia, e-article 등), 학회 홈페이지 등에 수록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학회는 학술적, 교육적, 비영리적 목적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재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연구윤리 및 책임)

본인은 본 논문이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표절, 중복게재, 허위 저자 표기, 위력에 의한 저 자 등재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논문 내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기타)

본 동의서의 효력은 논문이 게재 확정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본 동의서의 사본 및 전자서명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논문 제목: _____

저자명(대표저자): _____

소속: _____

연락처: _____

전자우편: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YYYY년 MM월 DD일)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임원

회장단	고문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 조월례 (아동문학평론가)
	회장	오길주 (경민대학교)
	부회장	김명석 (성신여자대학교) / 김현경 (경민대학교)
	감사	김연홍 (동국대학교) / 정명자 (중원대학교)
이사회	총무이사	홍유화(한국외국어대학교) / 박경원 (북바인딩 연구소 시루)
	기획이사	김장호 (경민대학교)
	교육이사	안남재 ((주) 오투라인)
	출판이사	김경희 (가천대학교)
	홍보이사	권민주 (성균관대학교)
	사업이사	김소영 (경민대학교)
	대외협력이사	민상훈 (LEC 어학원)
	국제이사	미국: 윤재영 (Purdue University) / 중국: 전금화 (吉林大學) 일본: 박종후(同志社大学) / 인도: 연규득 (Christ University)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도영 (춘천교육대학교)
	위원	권태현 (충북대학교) / 김낙현 (중앙대학교) / 김승현 (홍익대학교) 변경가 (서원대학교) / 유준동 (강원대학교) / 이승은 (고려대학교)
		조성윤 (동국대학교) / 조재형 (전남대학교) / 최배은 (숙명여자대학교)
윤리위원회	위원장	한영균 (연세대학교)
	위원	한승우 (중앙대학교) / 이윤정 (경철대학교) / 오세정 (충북대학교)
		이상현 (부산대학교) / 백진우 (서강대학교) / 서보영 (계명대학교)
편집간사		이세인 (동국대학교) / 윤은서 (강원대학교)
총무간사		오준호 (강원대학교) / 최주원 (강원대학교) / 이종연 (강원대학교)

ACAGORA READING RESEARCH

2024 | vol.6

| Special Topics: The Open Dynamics of Care and Reading

The Children's Movement of Bang Jeong-hwan in the 1920s: A Care Perspective and Its Value Orientation | **Jang, Jeung-Hee**(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alities of Care Found
in Today's Children's Books | **Nam, Yoon-Jeong**(Children's book editor)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Care Systems
and Reading Education Programs | **Min, Boung-Hui**(Multicultural International School)

Narratives of Mutual Care Between Humans
and Animals in Folktales | **Kim, Kyung-Hee**(Gachon University)

| General Topics

Five-Year-Olds' Literacy Practices Emerging
from Picture Book Reading Experiences | **Oh, Jung-Ok**

Strategies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Local Libraries
and the Reconfiguration of AI-Based Reading Ecosystems | **Yun, Eun-Seo / Oh, Jun-Ho**

| Celebrating Our Decade Together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Acagora: A 10-Year Journey through Posters | **Oh, Kil-Ju**

| Song Performance

| **Hwang, Chae-Young**

| Book Talk

"We Are All Flowers!" | **Jeong, Seung-Gak**
A Book Talk with Author Jeong Seung-gak in the Badger's Flower Garden

| Reading, in the Field

Case Studies on Enhancing Literacy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 **Gwon, Mi-Sook**

Children's Reading Engagement Through English Literacy
and Project-Based Learn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 **Min, Sang-Hoon**

The Importance of Literacy in Mathematics Learning
and Practical Approaches to Enhancing Literacy | **An, Nam-Jae**